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2월 6일 수요일(주간) 제 297 호

금주 법구

설법을 듣는 사람은 자세를 단정히 해야 한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저 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일심(一心)으로 말의 의미 속에 들어가라. 그런 뒤에 기쁜 마음으로 법을 듣고 감격해야 한다.

-지도론(智度論)-

봉사하는 불교 시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041)734-2680
무료복지관이 있는 불교 선학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자기를 바로 봅시다

'免'



불교를 연구하고 또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가? 최근 '간화선'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개진되고 있지만,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행하지 않고, 논하지 말라"는 한 편의 주장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 적절하게 응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가 불교학자들이 "간화선이나 선어록 해석 문제를 논하기 전에, 불교학계 내부적으로 연구와 수행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자성의

학술

'불교학 발전' 화두로 연구-수행 관계 정립

의견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재가 학자들은 연구와 수행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수행에 치우치면 호교론으로 기울기 쉽고, 학문에 치우치면 불교의 본질을 볼 수 없는 모순에 빠지기 쉽다"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태도는 연구와 수행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재가 학자들이 나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연구와 수행을 하나로 여기는 견해와, 두 문제를 달리 보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학자는 "선배 학자들은 지금과는 달랐다. 그들에게 불교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과 실천의 대상이었다"며 "불교학에 서구적인 연구방법론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연구와 수행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안타깝다는 감정적 차원보다는 불교학의 발전을 저해할 측면이 더 강하다. '간화선'이나 '선어록 한역' 등의 논쟁은 한국 불교 현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데, 논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 미달'이라는 딱지를 붙이고는 생산적인 논쟁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 737-0695 Fax:02) 737-0696

"각 종단 환경부서 설치"

13개 단체, 종단·사찰에 '환경훼손 참회' 건의

"사찰의 환경훼손에 대한 참회와 불교의 생명운동 동참을 건의합니다."

무리한 대형불사와 오·폐수 방류, 무분별한 방생 등 사찰의 환경훼손을 다같이 참회하자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왔다. 또 본·말사주지 연수, 승가교육에 환경교육 실시, 각 종단에 환경전담부서 설치 등 불교계가 환경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정책이 제안됐다.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 범불교연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환경교육원 등 13개 교계단체들은 11월 30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리산댐·장경사 송전탑 건설 등 최근 빚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불교계이지만, 다른 사람을 비관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며, "사찰에 의한 환경파괴를 다같이 참회하고 불교가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다하자"고 각 종단과 사찰·교계단체에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무분별한 대형불사와 방생법회, 오·폐수 방류, 산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그리고 사찰촌의 위락시설로 인한 하천오염 등 많은 환경훼손이 사찰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교계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각 종단에 환경전담부서 설치 △무분별한 불사 방지를 위한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본·말사주지연수·승가교육에 환경교육 실시 △불교환경단체 지원 등을 각 종단에 건의했다. 또 각 사찰에 △정기 환경조사 및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무분별한 대형불사 중단 △환경 법회 및 교육 등을 요구했다.

교육기관이나 연구자들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불교환경이론 정립으로 환경위기시대의 불교적 해법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불자들에게도 "환경분쟁 발생시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생협운동 및 도농공동체 운동 등 환경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불교 단체들은 이날 건의문을 조계종 총무원과 각 본말사·교계단체에 전달했으며, 조만간 종단협의회와 논의해 각 종단에도 건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이와 관련 "천주교에서 역사적 과오를 참회한 일이 있었듯이 종단이 자성할 일을 불교단체가 적시해줘 감사하다"며 "본·말사는 물론 지자체 및 환경단체에 이번 건의문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교계 환경단체들의 이번 반성적 환경운동은 기도원 건립 등으로 산림을 파괴하고 있는 이웃종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자비의 뜨개질 한코 한코에 정성과 자비를 담아 만드는 따뜻한 스웨터로 겨울추위도 능히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스웨터를 뜨는 능인선원복지관 수요봉사회 회원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사랑의 스웨터와 장갑, 목도리 등은 12월 중순에 전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3면> 사진=고영배 기자

종단협-조불련 14일 베이징 회동

통일토론회 등 논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대표단이 14일 베이징에서 만나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개최, 종단협의회 대표단의 평양 방문, 북한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조계종의 민족공동체추진본부(13일)와 평불협(15일) 진각종(16일) 천태종(17일) 불교인권위(17일) 태고종(18일) 대표단도 13~18일 조불련과 개별접촉을 갖고 남북불교교류에 대해 논의한다.

조불련은 21일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 앞으로 곽스를 보내 "심상진 서기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귀측과의 만남을 12월 14일 베이징에서 가지려 한다"고 알려왔다. 조불련의 이같은 제안은 11월 13일 종단협의회에서 12월중 베이징에서 만나자고 한 데 대한 답신이다. 조불련은 조계종 등에도 같은 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했다.

조계종은 베이징 회동에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위원장 명진스님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보낼 예정이다. 종단협의회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의 부장급으로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4일 회장단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IT시대 인터넷 불교신문

Buddhanews.com

경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록

'경주역사유적지구'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1월 29일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두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키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경주 남산을 중심으로 월성·대능원·황룡사·명활산성 지역이 포괄된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시대 천년의 문화적 업적과 불교 및 세속 건축의 발달을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으로 인정받았다.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은 기원전 2000~3000년 전의 장례 및 의식유적으로 선사시대 기술 및 사회발전을 생생히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권 문화재청과 경주시 및 고창, 화순, 강화군 등 관할 지방 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록을 기념해 △홍보물 제작, 배포 △축하공연 △경축식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

오종욱 기자

'94·98년 사태 멸빈자 사면'

조계종 종헌개정안 '심의'

조계종 종헌·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종하)는 11월 28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총무원이 제출한 종헌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총무원은 27일 멸빈자의 사면 실시를 위해 종헌 개정안을 종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총무원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에 따르면, 99년 제정된 해종특위법에 따른 멸빈자를 사면 대상으로 하며, 사면 이후 15년 동안 종헌종법상의 종무직 취임과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금지한다.

이날 회의에서 종헌특위는 94년 종단사태에 관련돼 멸빈의 징계를 받은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종헌 개정안의 수정을 총무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수정 종헌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총무원은 또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의결 절차 등을 규정한 종령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 구성과 관련 호법부장 종지스님은 지난 3월 열린 중앙종회에서 종책질의 답변을 통해 "엄정한 사면·복권 심사기준을 정하여 호계위원과 중앙종회의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94년과 98년 종단사태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20명 정도이다.

줄곧 사면 실시를 강조해온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지난 9월 147회 임시종회 인사말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 구체적인 화합 방향을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정대스님 종교인 대표 노벨평화상 축하 출국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강원룡목사(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단 종교인 대표로 참석한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시청에서 열린다. 정대스님 등은 대통령 전용기편을 이용해 8일 출국, 13일 돌아올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관절염 앓는 노스님이나 불우신도를 주위에서 추천해 주세요"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해에 이어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벌입니다. 가천의대 동인천 길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수찬 원장과 담당 전문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 ◆지원 규모: 6~8명 정도
- ◆지원 대상: 노스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자
- ◆지원 내용: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견상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 ◆구비 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략한 의료지원신청서(소정양식)
- ◆진료비 무료: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3,000원 안팎) 및 무통 주사비는 본인이 부담.
- ◆접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동인천 길병원
후원 :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길녀)

경제번영 평화통일 불국토성취기원

석지형스님 강론 묘법연화경 대강좌

불교교양대학 제21회

각계 초청교수님의 특강과 석지형스님의 감동적인 강론에
수많은 정진 불자님께서 흰연꽃 향기 충만한 마음으로
환희 동참하고 있습니다



묘법연화경은 불교의 최상승 경전입니다. 석지형 스님은 전법 수행하며 묘법연화경을 편역 1993년 BBS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불교계의 여러 선지식 석학여러분을 모시고 출간 대법회를 여법봉행 전국의 인연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번 각계 초청 교수님의 특강과 석지형 스님 묘법연화경 강론으로 여전법사 과정을 개설하여 인연 불자님을 진리회상에 초대합니다.

개강대법회 : 2000년 12월 7일(목) 오전11시

초청특강
- 성암도 스님 전조계종포교원장
- 무진장 스님 전조계종포교원장
- 정락 스님 용주사주지
- 박순달 교수 (서울대)
- 정병조 교수 (동국대)
- 김형석 교수 (연세대 명예교수)
- 정현우 박사 (숙대 경영대학원 교육원 교수)
- 송석구 동국대학교총장
- 박완일 회장 (전조계종 전국신도회장)
- 김형효 박사 (정신문화연구원교수)
- 안병욱 교수 (숭실대 명예교수)
- 서윤길 교수 (동국대)
- 강영숙 원장 (예지원 원장)
- 김규대 법사 (국방부 법사)

· 매주강좌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6개월) · 내 용 : 불교기본교리, 참선, 명상, 건강행법, 생활불교, 법화경
· 동 참 금 : 5만원 ◉동참 불자님께 법화경(819p 고급양장 단행본)드립니다. ◉모범정진불자님은 전법과 수행에 적극 후원합니다.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TEL 511-6210~5 · 3443-9871~7 · 3446-2158,21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압구정동 현대고·신사중 정문 맞은편)

사 설

지역사회서의 사찰역할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역 사찰 사회활동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것은 그동안 불교의 사회화를 외쳐온 조계종 종단의 행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의 종책 발표를 보면, 그 방향과 실천 방안에 있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졸속한 명분세우기를 위한 발표가 아니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사회복지활동, 생태사찰 만들기,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 이라는 영역 설정도 시의성이 있으며, 환경·복지단체와 전문가들과 영역별로 팀을 구성하여 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도 올바른 순서를 밟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동안 각 영역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던 단체나 전문가들을 그러한 모델링 작업에 참여시켜 일을 진행하는 것 또한 거대 종단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답게, 그간의 성과를 포용하여 보다 한 걸음 나아간 사업으로 전개시키겠다는 자세에서 경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을 잃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단계적인 시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큰 방향 전환에 종단이 준비의 중심이 되고 그러한 철저한 준비가 각 사찰로 확산되게 한다는 방침 또한 현 조계종의 여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전개되는 데 역시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것은 사찰을 맡고 있는 스님들의 의식 전환이다. 그러하기에 종단 차원에서는 스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종단의 큰 정책이 모든 스님들에게 전달되도록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스님들이 이러한 지역사회에의 참여 없이는 앞날의 불교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구태의연한 사찰 운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종단의 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야 한다.

실로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나서는 것은 이 세계를 보다 나은 세계롤 만들고 또 불법을 홍포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찰에는 당연히 신도조직이 있기에 스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해 간다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신속하고도 클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의 종책을 바탕으로 조계종이 이 사회를 맑히고 밝히는 일에 구호만이 아닌 진정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새 출발하는 중앙승가대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교가 새 총장을 맞아들이고 마침내 새 학사로 이전한다. 11월 30일 열린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대책위 회의에서는 오는 18일부터 김포학사로의 이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 3월이면 새 학사에서 새 학기를 시작한다. 95년 한국의 '나란다 대학'을 짓겠다는 커다란 원력으로 시작한 불사가 5년여만에 마무리하고, 새 출발의 선상에 섰다.

한국불교 승가교육에 있어서 중앙승가대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79년 개교 당시 여러 강원과 달리 많은 외전을 교과목으로 채택한 것은 지성불교의 장을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불교의 교육기관은 수행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사회에서 불교에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 교육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이것이 강원이 여럿 있음에도 중앙승가대가 생겨야 하는 당위성이었고, 이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 중앙승가대를 열었다. 그 만큼 예산도 많이 투여했다. 올해 교육원 예산(세출 기준) 34억6700여만원 가운데 중앙승가대학 보조금이 12억원이다.

중앙승가대는 개교 이래 1천여명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다. 각종학교에서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했으며, 포교학과 역경학과 등을 개설해 외연을 넓히기도 했다. 초기의 졸업생은 우리 불교계의 중진이 되었다. 곳곳에서 주어진 소임을 살며 한국불교를 떠받치고 있다.

중앙승가대가 새학사 이전을 계기로 물심양면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원하다. 새출발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털어낼 것은 무엇이고, 간직해갈 것은 무엇인지를 찬찬히 뜯어보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히 승가의 지적 수준이 일반 국민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중앙승가대만의 문제냐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스스로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제2의 출발을 하는 중앙승가대의 새 총장에 승가와 불교학계에서 존경을 받는 종범스님이 취임했다. 종범스님은 학사 이전과 운영 계획 등을 짜느라 대학의 꽃인 총장이 되었다는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을 것이다. 중앙승가대의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승가대 18일 김포 이전

입주식 내년 2월…안암학사 연수 · 교육 활용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총장 종범)이 18일 김포학사로 이전한다. 이로써 부실시공과 공사비 마련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어온 중앙승가대가 승가교육 진흥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김포학사 시대를 열게 됐다.

김포학사는 5만3천평 부지에 건평 9천 2백평이며, 지하1층 지상 4층의 대학본관과 48개의 연구실을 갖춘 교수회관, 3층 규모의 강의동, 470명 수용 규모의 비구·비구니수행관 등 5개 건물을 갖추고 있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는 11월 30일 종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갖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을 위한 추진일정과 안암학사 활용계획, 2001년 김포학사 운영예산안 수립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전대책위 결정사항은 5일 총무원장이며 승가학원 이사장인 정대스님의 인가를 거친 뒤 김포학사에 이전상황실을 설치하고, 18일부터 행정부서를 시작으로 1월 10일까지 단계별로 이전하여 내년 2월 입주식을 갖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암학사 활용계획과 관련, 안암학사는 승가학원의 기본재산임을 재확인하고 중앙승가대학 세입원 확충을 위해 법인사무처가 공간활용과 수익사업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단에서 연수 및 교육, 포교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승가대학은 불교어산작법학교 불전국역연구원, 보육교사양성소, 대학원 설립 추진본부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익사업으로는 고시원 운영, 하숙업, 사무실 임대, 독서실 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중앙승가대의 내년 운영예산과 관련해 총 27억6천9백97만원의 긴축예산을 상정한 교육원 안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의 전임교원수가 동결되고, 총무처 기획실 교학처가 교학처 행정사무처 2처로 되는 등 행정부서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은 1979년 개운사에 개교했으며, 90년 2월 교육부 인정 각종학교, 96년 12월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인됐다. 현재 전임교원 17명, 직원 18명, 288명의 학인이 수학중이다. 졸업생은 930여명이 배출돼 종단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김포학사 3천불 봉안운동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원행)는 11월 20일 자비관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학사의 원만한 이전과 학인스님들의 수행환경을 위해 김포학사 법당에 3천불 모시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승가교육기금 내년부터 조성

2005년까지 기금 확보

행자교육원 신설등 지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승가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행자교육원 신설과 기본 전문교육기관 시설지원을 위한 승가교육기금을 내년부터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12월말까지 추진위원회(위원장 일면)를 구성한 뒤, 2005년까지 행자교육 상설도량 건립 35억, 기본교육 지원 9억, 선원 육성 9억, 재교육 진흥 7억원 등의 용도로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방안으로는 종단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는 시설비 등과 행자교육도량 설립기금 등 사업 주체의 별도기금 조성, 교육원 차원의 기부금, 수익금을 조성키로 했다.

교육원 환철기 계장은 "현재 종단의 경상비 예산체계와 구성내용으로는 교육 목적사업과 그에 따른 교육예산을 충족시켜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종단 교육사업 진흥을 위한 공적기금은 책정사업이 실현될 경우 영구적으로 존속시켜 중·장기적 교육사업에 투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타종교 이해에 큰도움"

아셈2000 서울워크숍 평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세계화와 영성, 그 대안적 가치'라는 주제로 'ASEM 2000 민간 포럼 종교분과'가 주최한 '서울 워크숍'(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 참가했던 종교지도자들이 11월29일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이 워크숍은 다양한 종교와 정신적 전통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세계화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 "특히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나눔은 물론, 워크숍 내용과 한국문화 체험이 서로 다른 종교적·정신적 전통들을 더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관람료 인상 재고 촉구"

재가연대등 14개 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등 14개 환경관련 단체는 11월 29일 '조계종의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인상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7월 1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30% 인상한데 이어, 12월 1일자로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를 많게는 3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지난 9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음)과 관련, "이는 조계종이 주도한 '국립공원제도 개선시민위원회'의 발족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온 조계종의 의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므로 인상계획을 전면 재검토,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또 "우리는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통한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립공원 내에서 사찰이 차지하는 커다란 비중을 활용하고 고려하여 시민사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변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조계종이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인상 조치의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하고, 정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논의에 참여케 하여, 국립공원관리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는 일에 비중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현 대 만 평 박 구 원



함께 나누는 세상

지리산댐 반대 공문 전달

범불교연대, 총리실등 53개 관계기관에

189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는 11월25일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국회, 낙동강물이용조사단 등 53개 관계기관에 971개 사찰 주지 및 시민 33만명의 서명부 등을 첨부한 '지리산댐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의견'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문', 조계종 24개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문,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의 지리산댐 백지화요구 결의문 등도 첨부됐다.

김재경 기자

종범 승가대총장 6일 취임

승가원 5대 이사장도 맡아

중앙승가대 제3대 총장 종범스님 취임법회가 6일 오전 11시 정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현재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인 종범스님은 11월 16일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회에서 제3대 총장으로 선출됐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11월29일 상락원 2층 강당에서 제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을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61개 사찰 감사

조계종은 24개 교구본사와 직할교구 37개 사찰에 대한 정기종무지도감사를 11월 28일부터 1일까지 실시했다.

총무원은 이번 감사에서 △재정 규모 및 운영 현황 △종무 처리능력 및 시스템 구축 정도 △지역사회 기여 정도 및 포교 현황을 파악하고 △신도조직 점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성운 기자

"교과서 불교왜곡 수정·보완"

교육부 편찬담당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1월 30일 초·중·고교 교과서 중 불교관련 기술내용중 개선·보완해야할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 불교관련내용 연구보고서(본지 293호 1면 참조)'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포교원 명조스님(포교연구실장)과 김관태 과장은 포교원에서 각급학교 교과서 연구를 실시한 목적과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설명한뒤 이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병호 교과서 편찬팀장은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매년 실시되는 교과서 수정작업에 반영하는 한편 새로이 발간되는 교과서 제작에도 참조하겠다"며 "보고서를 참조하여 교과서의 수정·보완내용을 통보해주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앞으로도 각급학교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교사들이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불교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용 지침서를 발간하여 파라미타를 통해 전국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개 불사의 모든것 일 심 불 원 원

◈ 일심불원에서는 불사에 관련된 일체 모든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인사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제방의 대덕 스님과 선연 신도님께 삼가 합장삼배를 올립니다.
시방제국토의 장엄과 무진정법의 외호에 일신의 원력을 세우고 불사일념 해 온 소생이 금번 조계사 인근에 '일심불원'을 개원했습니다.
각종 불사의 상담에서 회향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진하고자 하오니 두루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앙망 합니다.

2000년 12월 일심불원 대표
김 기 문

· 불 상
· 목불, 동불, 특수불
· 순금개금, 당채
· 大佛, 小佛 (동불, 특수불, 석불)

· 불 단
· 홍송 · 스프르스
· 다그라스 · 알마시카
· 목재 일체
· 조각불단, 수미단불단, 채색불단
· 법상, 경탁, 연, 불장, 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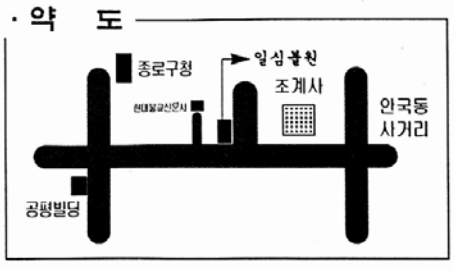
· 닫 집
· 내외 13포 용반자 학 용두
· 내외 11포 용반자 학 용두
· 내외 9포 용반자 학 용두
· 조각 운각, 미니 운각 (석가래, 부연)

· 불교용품 일체
◈ 각종등
- 비닐만월등 丸, 長
- 청동 촛대, 향로
- 공단등, 수입사등
- 각종 방제 유기
- 예수재 용품
- 각종 염주
- 불교 달력
(합장주, 백팔염주, 천주)

· 사찰건축
· 고건축 (목재)
주삼포, 주심포
내 11포, 외 9포
내 9포, 외 7포
내 7포, 외 5포
내 5포, 외 3포
· 대웅전, 요사채... 현대 건축

· 탱 화
· 조선불화, 고려불화 (석채, 분채, 안료)
· 홍탱화, 흑탱화, 채색탱화
· 목탱화, 청동탱화,
· 특수불탱화

· 단 청
· 금모르 단청
· 벽화
· 금단청
· 얼금 단청
· 긋기 단청

· 약 도


一心佛院 전화 : 02) 725-2030 · 725-2040 팩스 : 02) 737-529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110-39

목어

금메달의 값

한참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올림픽 얘기를 해야겠다. 며칠 전 문득 TV를 보다 서글픈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호주의 시드니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의 값이 너무 차별이 난다는 보도였다. 성하지 못한 몸으로 국가 지원은 물론 변변히 잠잘 방조차 없이 힘겹게 훈련해서 하계장애인올림픽에서 따온 금메달의 값이 일반 올림픽의 그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고 한다.

온 몸이 건강한 사람의 올림픽에 대해서는 방송도 시끌벅적하게 하루종일 생중계에 녹화방송까지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고, 신문 역시 연일 1면 머리기사였다.

반면에 장애인올림픽에는 반의 반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장애인올림픽에서 몇 개의 메달을 땄으며,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지나갔다.

국가를 대표해 나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서도 정작 울고 있는 장애인 메달리스트의 아픔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사격을 비롯한 몇 개의 종목에서 딴 금메달에서는 일반인이 얻은 점수보다 더 높아 오히려 일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이었다고 한다.

장애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기 않고 극복하여 획득한 금메달이 더욱 값지지 않은가. 국제 무대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했어도 장애인들이 더 높이 우리 민족의 기개를 펼친 것이 아닌가.

나 자신도 언제 어떻게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겠지만, 장애인을 혐오스럽게 보고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여 경원시하는 국민정신건강의 척도가 아쉽기만 하다.

〈열반경〉에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고 하였는데, 장애인도 성불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장애인고용법을 국가기관에서 기피하고, 거리에서나 건물에서나 모든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책은 제대로 집행되어 애초에 목적했던 성과가 달성될 때 의미가 있다. 하루속히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 본지 논설위원)

'자기반성' 환경위기 극복

불교단체 제안 '환경파괴 참회' 무엇을 담았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지리산살리기 · 댐백지화 범불교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13개 불교단체가 11월 30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가진 '사찰의 환경파괴에 대한 참회와 불교생명운동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의 기자회견은 불교 환경운동사상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심정적으로만 사찰 내부의 환경훼손에 대해 우려를 표하던 불교 환경단체들이 종단에 대해 처음으로 용기있는 발언을 한 점, 소극적인 환경운동에 머물던 불교계가 자기반성을 통해 실천적 생명운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점, 종단이 불교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기 시작한 점 등이 그것이다.

불교단체들의 이번 '환경 반성문'은 최근 가야산의 골프장 및 관통도로의 건설, 범어사 앞 아파트 개발, 정혜사의 석산 개발과 심복사 근처의 쓰레기 매립지 건설, 장경사 인근 송전탑 건설 등 지방자치제 실시 후 산사 인근의 개발로 인해 불교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사찰 외부로부터의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찰 스스로 환경을 파괴한 일에 대해 깊이 돌아보며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올 여름부터 지리산댐 백지화운동을 이끌면서 시민환경운동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불교계가 자기반성을 통해 환경 · 생명운동의 사상 · 실천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발원도 담고 있다.

환경위기시대를 사는 인류는 이미 서구적 가치관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동양사상 특히 수행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는 불교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스님과 학자, 불자들은 단지 이에 대한 자부심만으로 그칠 뿐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는 우리 시대가 풀어야만 할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책임감도 갖지 못한 것이다.

'심청정, 국토청정'의 교리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결국 인간의 마음이 혼탁한 결과이며, 불자들이 올바로 역할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자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나 깨달음을 소중히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환경운동가들의 생각이다.

"사찰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바로 사찰의 청정한 수행기풍을 진작시키는 것이자, 한국 불교를 지키고 살리는 일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하게 자연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참된 행복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며, 우리가 정말 부처님처럼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다."

교계 내외의 환경전문가들은 물질과 정신의 청정을 함께 추구하는 불교 환경운동이 이번 참회를 계기로 한단계 도약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웃종교의 환경운동가들도 불교계의 참회를 계기로 종교 환경운동의 자기반성적 기회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13개 불교단체는 11월 30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찰의 환경파괴에 대한 참회와 불교생명운동을 제안했다.

남산 안팎 개발억제 '청신호'

경주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록 의미

'부처님 나라', '노천 박물관'이라는 경주 남산을 포함한 경주역사유적지구가 11월 29일 제24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경주 남산의 가치와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남산 안팎에서 진행되는 개발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월성지구를 가로지르는 고속철도나 남산 내 취락지구 등 개발과 파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주 일대 보존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고도(古都) 경주에 대한 총체적 보존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면 6년에 한번씩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세계유산협약'이 있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경주시가 9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남산일원 정비 사업 5개년 계획' 외에도 문화재 전문가와 경주시민단체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남산은 관리사무소도 없이 경주시 사적관리사무소의 직원 3명이 있을 뿐이어서 자연재해와 인위적 훼손에 무방비 상태다. 또 셀 수도 없이 많은 분묘가 남산에 들어서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남산사랑시민모임 김구석 대표는 "많은 규제 속에 살고 있는 경주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천년고도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며 "정부도 이를 의식해 남산을 비롯해 방치 되다시피 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찰의 남산보존 자원봉사 운영, 종단차원의 신라불교문화 연구기관 설립 등 근본적인 접근도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문화재 전문가들은 남산 내 폐사지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총 2천880ha에 이르며, 여기에는 국보 · 지방지정 불교문화재 30여 기가 있는 '남산지구'(사적 제311호)를 비롯해 첨성대와 계림, 내물왕릉이 있는 '월성지구', 황남리 · 노동리 · 노서리 고분군이 밀집된 '대능원지구', 황룡사지(사적 제6호)와 분황사 석탁(국보 제30호) 등이 있는 '황룡사지구', 명활산성(사적 제47호)이 남아있는 '산성지구' 등이 있다.

세계유산 가운데 불교관련 유산은 총 28건. 중국은 막고굴, 포탈라궁, 낙산대불과 아미산 유적, 노산의 불교사원 등 4건이, 일본 · 캄보디아 · 방글라데시는 각각 법륭사, 앙코르, 파하르푸르 유적지 등 1건이 올리있다. 태국은 수코타이, 아유타야 등 2건, 인도는 아잔타, 엘로라, 산치 등 3건이 등록됐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지구의 칠불암 마애석불.

광고수주 자율 움직임…종교방송사들 '비상'

"방송사 미디어렙 출자 금지"

방송사 수익의 근간이 되고 있는 광고시장의 광고수주 자율체제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어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종교방송은 자율광고 경쟁에서 일반 방송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 그러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든 방송에 똑같이 적용되는 방송광고시장의 완전 자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혁위는 11월 17일과 24일 규제심사를 하면서 방송광고시장을 완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교방송을 비롯한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등 4개 종교방송사 사장단은 11월 2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방송사 미디어렙 출자 금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종교방송 사장단은 규제개혁위의 방송광고시장 자율화 움직임을 전면 거부한다는 원칙에 인식을 함께 하고 방송광고법이 상업주의적인 정책으로 방향이 잡힐 경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공동법회와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 △방송의 다양성 확보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낼 것도 결의했다.

사장단은 회의가 끝난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미디어렙의 도입취지에 맞게 방송사가 광고판매회사에 직접 출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방송사가 광고비 확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현실은 정부의 잘못된 방송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불평등한 방송 구조를 그대로 두고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방송전파와 방송권역을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렙은 광고주의 위탁을 받아 광고제작사가 만든 광고를 개별 방송사에게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곳이다. 81년 이전에는 각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독자적으로 펼쳤으나 방송사의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 82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로 창구를 단일화했다가 이번에 경쟁체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입법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의 등록제 방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각 방송사마다 미디어렙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 상업성이 강한 일반방송사는 광고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종교방송은 '엄청난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현실적으로 종교방송사들은 별도의 미디어렙을 설립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방송사들이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 시장경쟁에서 제외된 현행 체제를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반방송의 상업성과 종교방송의 공익성을 같은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되며, 특히 방송환경에서의 종교가 갖는 공익성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겸 재단이사장 특별 담화문

삼보에 귀의하옵시고

친애하는 일붕종도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 방방곡곡에 계시는 일붕문도 여러분!

노납은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의 창종주이신 일붕존자의 후계자로 종단에서는 일붕존자의 종통을 계승한 제2세 종정이고 재단에서는 일붕존자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킬 책무가 있는 재단 이사장이기에 작금에 저의 종단내외에서 저의 종단 공식 호칭을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이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마치 종단이 내분이 일어난 것 같은 인상을 종단내외에 풍겨주고 있기에 이에 노납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이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헌 제23조 7항에 명시된 종정의 권한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정관 제9조에 정해진 재단 이사장의 직권에 의거 우리 종단과 재단은 하나이기에 종단이던 재단이던 불문하고 공식명칭은 공히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으로 하고 약칭은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또는 『일붕선교종』으로 사용할 것을 종단내외에 엄숙히 천명합니다.

그러나 노납은 종도들의 공식 대의기구이며 종헌기관인 중앙종회에서 지난 3월 우리종단의 공식명칭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이 아닌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으로 하자는 그 결의사항을 전연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명하신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였기에 지난 3월의 중앙종회의 그 결의사항이 노납의 마음에 사실상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납은 지금까지 그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노납의 의견을 유보한채 중앙종회의 그 결의를 총무원에서 시행해 오는 것을 묵묵히 지켜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노납의 내심은 사실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종회 의원들의 그 결의 사항이 아무리 옳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대(先代)로부터 사용해온 우리 종단의 공식명칭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 하루 아침에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으로 하자고 하니 이는 마치 선사(先師)에 대해 죄를 짓는 것 같은 석연찮은 마음이 항상 이 노납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왔고 또 종단 안팎에서 종명으로 인한 논의가 분분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노납은 고심 끝에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이 지난 3월 임시 중앙종회에서 종단의 공식명칭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이 아닌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으로 하자는 그 결의안이 잘못된 것이거나 또는 세간법 차원에서의 법적 이론이나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앙종회의 그 결의안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보겠다는 개혁적인 결의안이었던 것을 이 노납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의 그 수준높은 결의안을 이해하는 대중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들도 있고, 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우리종단을 떠난 해종행위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러한 상황을 왜곡되게 부추기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들을 직시할 때 노납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종도 여러분께서는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일붕종도 여러분!

우리 일붕선교종은 일붕존자께서 평생을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고 세계불교를 한국화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원행(願行)과 또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평생을 기구(新求)하신 그 호국불교의 염원(念願)들이 알알이 맺혀 이룩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이념 종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방방곡곡 아니 국내외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1간여 일붕문도들의 종가(宗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붕선교종은 세계불교의 명문(名門)답게 또 호국불교의 기수(旗手)답게 선사이신 일붕존자의 유지(遺志)를 높이 받드는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오니 노납의 이러한 충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어 향후 종단의 공식명칭에 대하여 더 이상 왈가 왈부 하지 않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노납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일붕종도들에게 또 한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붕종도들은 선사이신 일붕존자의 이념과 유지를 봉행하는 봉찬행자(奉讚行者)들이기에 조석 예불시 조사단(祖師壇)에 다음과 같은 예를 꼭 거행할 것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심귀명례 세계불교 초대법왕 삼장법사 일붕존자
(志心歸命禮 世界佛教 初代法王 三藏法師 一鵬尊者)
지심귀명례 일붕선교종 창종주 삼장법사 일붕존자
(志心歸命禮 一鵬禪教宗 創宗主 三藏法師 一鵬尊者)
지심귀명례 세계일백삼 박사학위 철학박사 일붕존자
(志心歸命禮 世界一百三 博士學位 哲學博士 一鵬尊者)
사화등용일각생(蛇化鄧龍一角生) 송담풍우만인경(松潭風雨萬人驚)
남성춘지마운진(南城春至魔運盡) 북령야래선월명(北領夜來禪月明)

일붕종도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 방방곡곡에 계시는 일붕문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고 불보살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삼보님전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2544(2000)년 11월 25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겸 재단 이사장 붕해 현 기 홍

일주문



서초구사암련 회장 추대

춘광 서울 천태종 관문사 부주지는 11월 23일 우면동 대성사에서 열린 서초구 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 4대 연합회장으로 추대됐다.



조계종 호계원 사무처장

진만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11월 21일 조계종 호계원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여수 흥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56사단 백운사 수계법회

법현 서울 천중사 부주지는 17일 오전 11시 고양시 지축동 56사단 백운사에서 장교와 장교부인, 사병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갖는다.



충남도 예술문화상 수상

전흥수 한국고건축박물관장(62)은 11월 24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심대평 충남도지사로 부터 제4회 충남도 문화상 예술부문을 수상했다.



전북불교대 동문 작품전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은 9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녹지원에서 전북불교대학인의 밤 및 동문 작품전을 개최한다. (063)226-7878



다보법회 12월 초청법문

권기종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6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02)703-0108



'공직자의 자세' 강연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1일 전남 영암군청 대강당에서 군내 공무원 300명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도서 4백여권 동방대 기증

이형련 동방불교대 교수는 11월 23일 〈경제학원론〉, 〈상법개론〉 등 사회과학 서적 및 소설 등 10여종의 도서 4백여권을 동방불교대에 기증했다.



대불청 서울지구 새 회장

조영규 (주)우림엔지니어링 관리차장은 11월 14일 열린 대불청 서울지구 대의원 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인 사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장: 심용식 △수석부회장: 박현수 △부회장: 곽동해, 김의식 △총무: 이재순 △재무: 이철승 △감사: 전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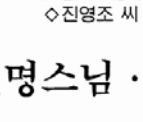
천태종 영통사서 첫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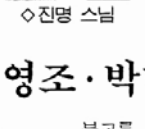
덕수 총무부장, 도재 재무부장, 경천 교무국장, 세운 의전국장, 송재 사회국장, 김유혁 중앙 신도회장, 최용춘·김상현·김동현 동국대 교수 등 천태종 방북단은 11월 23일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출가·열반지인 개성 영통사지에서 남한 불교계 대표로는 처음으로 기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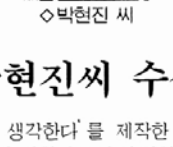
대각국사 부도탑 앞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덕수스님과 북한의 영통사복원위원회 김세민위원장은 헌화 헌향을 한 뒤 인사말을 통해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출가 열반지인 영통사의 복원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덕수스님을 대표로 한 천태종 방북단 9명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평양 광법사, 묘향산 보현사, 개성 영통사 등 불교사찰과 단군왕릉 등 유적을 답사하고 26일 귀국했다.

이경숙 기자


◇진영조 씨


◇진명 스님


◇박현진 씨

진명스님·진영조·박현진씨 수상

제8회 보리방송문화상

방송 포교를 통한 불교문화의 계승 보전과 불교사회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8회 보리방송문화상 수상작'이 결정됐다.

먼저 불교방송부문에서는 '경전 2000년, 천축에서 해인사까지'를 연출한 진영조PD가 연출상에 선정됐으며, 진행상에는 '차 한잔의 선율'을 3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진명스님이 받았다. 또 지역방송상에는 '2000년 불교를 생각한다'를 제작한 대구 불교방송의 박현진PD가 수상했다.

일반TV부문 대상에는 대구MBC의 '다라니경의 진실(2부작)'(연출 이원욱)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MBC 본사가 제작한 '큰스님, 숭산'(연출 김영호)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사단법인 불국토가 주최하고 보리방송모니터회와 브리방송문화상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렸다.

김주일 기자

불교기자 대상 이재형 기자

본사 김원우·김두식 기자 기획상

제4회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에 법보신문 이재형 기자가 선정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정성운)는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에 기획기사 '불교학·불교학자'를 쓴 법보신문 이재형 기자를, 기획부문상에는 '관람료 사찰과 포교'를 쓴 본사의 김원우·김두식 기자, 취재부문상에는 '달라이라마 관련' 보도를 한 법보신문 남배현 기자, 사진부문상에는 기획물 '우리 스님'의 불교신문 김형주 기자를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11일 오후 6시30분 불교언론인의 밤 행사와 함께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백만원과 상패,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한편 올 기자상에는 기획부문 8편, 취재부문 4편, 사진부문 1편 등 총 13편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다.

김주일 기자


◇이재형 기자


◇김원우 기자


◇김두식 기자

성운스님 월남장 특별상

사회복지·종교교화 공로인정



은평노인복지관 관장 성운스님이 11월 25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국평생교육복지진흥회 주최 제24회 '원로찬하(元老讚賀) 월남장'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사진〉했다. '원로찬하 월남장'은 월남 이상재 선생의 뜻을 기려 활발한 사회적 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원로들을 선정, 수상하는 상이다.

성운스님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아끼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등 사회복지에 기여했으며, 종교교화 및 시민운동에도 앞장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성운스님은 "아직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우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며 "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라는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이웃에 보시행 펴며 후배양성"

은퇴하는 불자 레슬링 국가대표 심권호



"나에게 베풀어준 후배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라운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보시행 정신을 실천하며 후배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힘쓰겠습니다."

한국레슬링계의 거인 심권호선수가 은퇴한다.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28세의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자신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못한 후배 하태연(24·삼성생명)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지인들 중에는 이번 은퇴가 평소 불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그의 조건없는 이타행에서 비롯된 용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사실 한번 하기도 힘들다는 그랜드슬램(아시아 선수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올림픽을 모두 제패하는 것)을 그레코로만형 48kg급과 54kg급, 두 체급에 걸쳐 두 번씩이나 이룬 심권호의 쾌거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달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성금을 보내는 등 보시행을 곁쳐온 심 선수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한 뒤 후배 양성을 위한 지도자 생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권호 선수는 시드니 올림픽이 끝나고 대표선수 기간의 승리와 좌절 등을 엮은 자서전 〈세계를 굴린 작은 청년〉(디자인 소호 刊) 출판기념회를 7일 올림픽파크텔서 연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7년째 신부전증…수술비 없어



호소 한 불자가 7년째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으나 수술비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박소영씨(31·서울 영등포 당산동)가 신부전증 발병 사실을 안 것은 지난 94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앓아온 당뇨로 지칠대로 지쳐있는 박씨와 박씨 가족에게는 형벌이나 다름없는 충격이었다. 박씨는 얼마전 한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수술비가 없어 안타깝게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현재는 입원비가 없어 집에서 복막투석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도움주실분 (02)734-8050 한명우 기자



인권법당 기금마련 고승서화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한상범)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월27일~12월6일 서울 웅전갤러리에서 '인권법당 길상사 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도자기 전시회'를 열고 있다. 석주스님, 회광스님, 화엄스님 등 원로스님의 서화, 도자기 등 80여점이 전시중이다. 11월27일 전시회 첫날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이 참석했다.



제32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육해공군 군승단과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2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정련,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장곡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군불교진흥회는 전흥찬 법사와 현대불교신문사 등에 군포교원력상을 수여했다.



돌풍연대 호국 석림사 낙성법회

무적태풍부대 돌풍연대 호국 석림사는 11월 29일 불상 점안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도선사 주지 광복스님, 불광사 법주 지정 스님, 동두천사암연합회 회장 혜림스님을 비롯해 이승호·유명선·이종인 군종장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오재덕



불음합창단 15돌 기념 자선공연

불음합창단은 11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창단 15주년 기념 자선공연 '불교 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는 '예불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님께로 향하여' 등 25곡의 찬불가가 연주됐다. 또 바이올린 연주와 수화공연도 함께 열렸다.

杜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 중국은왕조의 갑골문의 기록으로부터 3천년이란 장구한 세월동안 수많은 선현석학들에 의해 끊임없는 실험을 거쳐 완성된 이 명리학이 왜 현대에 이르러 더욱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마침내 벽에 부딪치고 그 한계를 드러낸 서양사상이 의지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어떠한 과학보다 더욱 과학적이며 어떠한 철학보다 더욱 오묘한 음양오행을 기초로 하여 선천을 파악하고 후천을 예지하는 청산 김성진 선생의「命理玉精」을 읽지않고 어찌 감히 운명을 감정한다 할 수 있겠는가!



화제의 신간

전국 서점 판매중! 청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3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垏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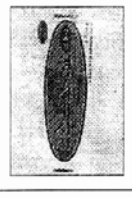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흘어진다.
3.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4.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5.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6.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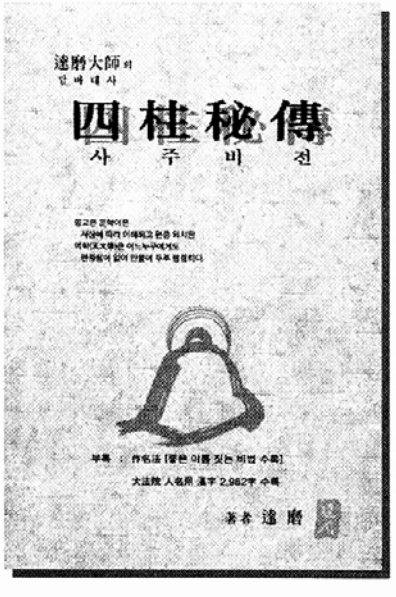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신/양장본 값 40,000원

達磨大師의 달마대사

四柱秘傳 사주비전



人生에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고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고
오복은 양서의 비전을 보고
훌륭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達磨大師의, 달마대사

四柱秘傳
사주비전

종교든 문학이든
사상에 따라 이해되고 편중 되지만
역학(天文學)은 어느 누구에게도
편중됨이 없어 만물에 두루 평등하다.

▷ 부 록 : 作名法
[좋은 이름 짓는 비법 수록]
大法院 人名用 漢字 2,962字 수록

著者 達磨

■ 구입 문의
011-301-4949 051-301-4949
051-328-5551 051-321-4804

일터에 꽃피운 '금강불심'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 직장불자 3人


◇김관용 시장


◇권장섭 경사


◇머루와 다래

김관용 시장 구미지역 100여 불자회 산파역

권장섭 경사 불교회 만들어 경찰포교 앞장

머루와 다래 군 · 교도소 · 병원서 노래 포교

11월 21일 발표된 제12회 포교대상에서 원력상을 수상한 김관용 경북 구미시장, 불자가수 머루와 다래, 서울경찰청 권장섭 경사는 직장직능 법회를 알리는 전법사들이다.

바쁜 직장업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 직장법회에서 신심을 키우며 직장동료는 물론 불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불법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직장에 종사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한결 같기만 하다.

부모님의 위패를 직지사 말사인 운수암(주지 보일)에 안치하고 수시로 절을 찾는 김관용 구미시장은 지역내 직장직능신행단체의 '아버지'로 통한다. 97년 구미시청불자회 결성을 주도하면서 경찰서, 교육청 등 20여개 공공기관 불자회 결성을 도왔고, 공단내 일반기업 불자회 결성을 후원해 구미지역 100여개 이상의 불자회 창립의 산파역할도 했다.

특히 그가 처음 결성한 구미시청불자회는 구미지역 신행단체와의 합동법회 개최 및 활발한 교류로 '구미 불국토' 만들기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직장내 동료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구미시청 불자회 결성을 주도했다"는 김 시장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머루와 다래로 더 잘 알려진 김정안씨는 노래하는 포교사다. 그는 불자가수들의 불심을 모아 대한불자가수회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에서 찬불가 음성공양을 통해 불법을 알리고 있다.

찬불가 음반 '만다라'와 '석가여래부처님'을 91년과 97년에 발표한 그는 특히 4년 전부터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산사음악회를 시작해 지금까지 다니지 않은 사찰이 거의 없을 정도다. 요즘은 부산 동래 허심청에서 21일 열리는 불자 소아암 환자 돕기 디너쇼를 준비하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서울의 교통정보를 구수한 입담으로 전달해 주는 서울경찰청 권장섭 경사는 바쁜 업무로 인해 사찰을 찾을 수가 없어 지난 85년 직장 내 서울경찰청 불교회를 만들었다.

유년시절부터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 그는 매주 금요일 정기법회 때마다 집전을 하며 지금까지 한번도 법회에 빠져본 적이 없다. 처음 3~4명이 법회를 보며 시작한 서울경찰청 불교회가 지금은 매주 150여명이 넘는 경찰불자들이 참석해 법당 공간이 부족할 정도다.

"직장내 불자들에게 종교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을 위해 불교회를 만들었다"는 권 경사는 신입법우에게 법당예절 등 기본 교리를 가르쳐 주며 직장에서 불심을 심는 포교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11월28일 열린 낙동강 도보순례단 보고대회에서 단원들이 종교 · 시민 · 환경단체 회원들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고 있다.

"생태 망치는 댐건설 철회하라"

낙동강 도보순례 보고 수질오염 현장등 고발

189개 종교 · 환경 ·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과 39개 낙동강 유역단체들은 11월 28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낙동강 1300리 도보순례단 보고대회'를 열고, 낙동강 수질개선과 지리산댐 건설계획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댐건설은 결코 수자원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댐건설을 강행할 경우 낙동강과 지리산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땜질식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으로는 결코 지역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 · 환경 ·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자원 정책의 입안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낙동강 수질 복원대책 수립 ▲낙동강 유역의 모든 댐건설 계획 백지화 ▲수요관리 위주의 수자원정책 수립 ▲대규모 공단 및 각종 위락시설 조성 방조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편 낙동강 도보순례단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황지못~부산시 을숙도간 1300리의 도보답사를 통해 목격한 태백 소도천과 황지천의 백화 · 적화현상, 대구 · 구미 공단의 폐수방류 실태, 낙동강 유역의 골재채취 및 습지파괴 실태 등 낙동강 오염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이들이 마산 소재 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에 의뢰, 분석한 낙동강 유역 하수처리장 및 공단주변 등 10개 지점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천환경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총인(TP '인' 성분의 총계) 농도가 평균 0.12~0.793ppm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총인 농도가 평균 0.02~0.1ppm인 점을 감안할때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대부분 지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50ppm이하)을 만족시켰으나 부산 자갈치시장의 경우 64.3ppm으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수치가 높을 수록 오염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내는 전기전도도는 일반하천에 비해 평균 2~3배, 최고 100배까지 높았다.

김재경 기자

우리모임에선



복지부불자회 송년법회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는 11월 25~26일 충북 영동 영국사에서 사찰순례를 겸한 송년법회를 가졌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송년법회는 입제식, 1080배 기도정진, 새벽예불, 천태산 등반, 초하루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영휘 회장은 "소비 위주의 송년회보다 산사에서 기도를 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니 너무 좋다"며 "앞으로 지혜로운 공직자가 되기 위해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세상, 따뜻한 세상, 희망의 사회를 만드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김두식 기자

서울시청 불심회 교리문답

서울시청 불심회(회장 이정관)는 11월 26일 경기도 양평 용문사로 사찰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불교교리에 대해 용문사 송호스님과 문답식 법문을 가지며 신심을 키웠다.

한전 반야회 가족법회

한전본사반야회(회장 김영창)는 2일 옥수동 미타사 정수암으로 가족법회를 다녀왔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스님이 신중에 대해 법문했다.

감사원불자회 신륵사 참배

감사원불자회(회장 노욱섭)는 3일 여주 신륵사를 참배하는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신륵사에서 법회를 봉행한 40여명의 회원들은 돌아오는 길에 고달사지와 목아불교박물관을 참배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유불동부처님나라 바자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 나라(대표시샵 오기석)는 6일 저녁 7시 을지로3가 트라이포트 홀에서 송년바자회를 개최한다.

유니텔 회원들이 제공한 자선물품과 일부 협찬물품을 기증받아 경매방식과 정가판매르 진행되는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011-226-9477 오기석

정신병원불자회 정기법회

국립서울 불자회(회장 김주효)는 4일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학주 교법사의 설법한 이날 법회에서는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불심을 다졌다.

게시판

알림

▲영남불교대 무료 건강검진=영남불교대는 대구 경희한방병원과 함께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2 · 3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검진을 마친 어르신들에게는 점심도 대접한다. (053)474-8228

▲자비나눔 행사=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5일 강북구 중증 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사회재활을 돕고자 보장구(휠체어, 지팡이), 백미, 의류를 지원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펼친다. (02)989-4215

▲남북평화통일 기원법회 및 겨울철새 먹이주기=한국석불선양회는 10일 민통선내 철원평야 철새도래지에서 평화통일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펼친다. 또한 군부대를 방문해 초코파이, 단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피안사, 심원사를 참배한다.(02)996-7945

▲무료 호침시술=덕유주간노인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의 통증부위 완화 및 예방을 위해 조계종 자원봉사단과 연계로 무료 호침시술을 실시한다. 이번 시술은 한의사 및 침술원 종사자 등 전문자원봉사자 6명이 1 · 3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시술한다.(032)325-2161

강좌

▲법화경 특강=법화삼부경강원은 매주 저녁 7시 30분 부산 남신동 델코밧데리 2층에서 법화경 특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법화삼부경강원 책임교수 최광영 박사가 진행한다. (051)583-8711

▲불교교리강좌=동산반야회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동산법당에서 '알기쉬운 불교교리강좌'를 개최한다.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법사가 강의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의 정의, 삼법인설, 연기설,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등 불교의 기본교리를 배우게 된다. (02)732-1206~8

모집

▲차량운행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관내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할 차량운행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이용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생활을 통해 재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개소한 직업재활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직업재활센터는 직업적응훈련실, 작업활동반, 지원고용반, 정신장애인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작업, 기초기능학습, 여가활동, 사회적응훈련, 사회성강화 훈련을 받게된다.(02)989-4215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전국염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은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4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과목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인도 · 중국 · 한국 정토사 등이며 강의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에서 한다. (02)732-1206~8

나라의 안정과 인류평화기원 대법회

제3세 종정 무찰 대종사 추대 및 제6대 총무원장 동봉 종사 각급 종무기관장 취임 법요식

귀의 삼보하옵고

다사다난하였던 경진년 납월을 맞이하여 항상 본종단을 애종하시는 전국종도 여러분과 일붕문도 여러분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 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산하 본종단에서는 나라의 안정과 인류평화기원 및 지난 11월 20일 중앙종회에서 추대된 제3세 종정 무찰 대종사 추대 및 제6대 총무원장 동봉 종사와 각급 종무기관장 취임 법요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이 동참하시어 일붕존자예하의 법통수호와 유지보존 및 종단 중흥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00년 12월 11일 (음 11.16.) 월요일 오후1시
2. 장 소 : 세검정 하림각 대회의장 (종로구 부암동)
3. 복 장 : (1) 스님은 가사장삼
   (2) 법사는 법복
   (3) 일반신도는 가급적이면 정장또는 한복
4. 준비사항 : 당일 12시까지 입장완료

※ 연락처 : 총무원 / 봉행위원회 : (02)998－8161 ~ 2

봉 행 위 원 회

대 법 주	제3세 종정 무찰 대종사
증 명	각 종단 종정예하
지 도 위 원	각 종단 총무원장 대덕스님
대 회 장	총무원장 동봉 종사
부 대 회 장	금봉스님, 명종스님, 각 교구 종무원장스님
추대위원장	종회의장 정관 이영우스님
봉행위원장	호계원장 지공스님
준비위원장	총무원부원장 혜천스님/용암스님/법성스님
집행위원장	교육원장 법운 이대연스님
기획위원장	포교원장 화엄 김광옥스님
진행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능호 한성석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총무부장 법선 김성국스님
총 무 간 사	총무과장 호룡 송윤주법사
교 무 분 과 위 원	교무부장 도봉 체수산스님
재 무 분 과 위 원	재무부장 정수 이문우스님
섭 외 분 과 위 원	사회부장 덕화 김용태스님
섭 외 분 과 간 사	사회부 법장 김유광법사
홍 보 분 과 위 원	홍보부장 법상 이진모스님
동 원 분 과 위 원	포교원부원장 대우 김우연스님
봉 사 분 리 위 원	교육부장 법해 안상철스님
경 호 분 과 위 원	규정부장 법륜 송기문스님
경호분과부위원장	규정국장 지성 김덕진스님
감 사 분 과 위 원	감사원장 대륜 진억두스님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법회 봉행위원회

추대위원장 종회의장 이정관
대 회 장 총무원장 정동봉 합 장

보살행

수화로 마음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무료 운전교습

청각 장애인 불자 김승호씨

11월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애인 운전교습장. 검은색 점퍼 차림의 한 남자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다소 과격한 손놀림을 계속한다.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한 여성은 마치 죽을죄라도 지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따금 손가락을 펴보이기만 할 뿐이다.

못들어 불합격 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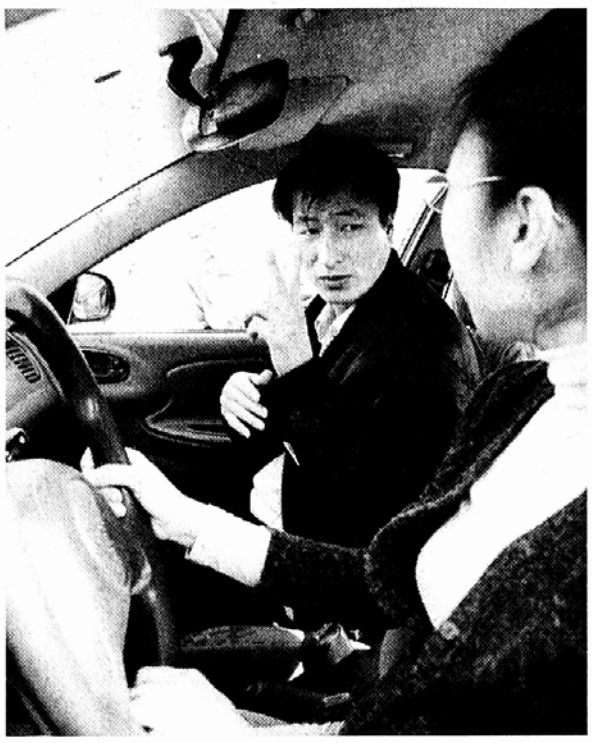
험상궂은 표정의 주인공은 청각장애인 김승호(32)씨다. 김씨는 "가르쳐 준대로 하지 않고 왜 마음대로 하느냐"며 화가 잔뜩 났다. 김씨에게 운전교습을 받고 있는 신아영(22)씨 역시 청각장애인.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수화로 의사표현을 한다.

김승호씨가 청각장애인 운전교습을 시작한 것은 올 1월부터다.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이 98년부터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전 이론교육을 실시하다, 작년부터는 기능교육까지 하게 되면서 이곳의 운전강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광림사 해성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조계사 원심회에 나가다 청각장애인들의 단체인 연화복지학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다.

자신도 청각장애인이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운전강사로 나서게 된 데는 운전면허를 따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장애인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김씨는 운전면허를 따는데 무려 3년이 걸렸다. 무엇보다 필기시험이 큰 난관이었다. 3살 때 열병을 앓고 나서 청각장애인이 된 김씨는 지금까지 줄곧 수화만 사용해왔기에, 사물을 언어로 듣고 책으로 읽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운전과 관련한 갖가지 개념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기능연습도 마찬가지다. 운전강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어떤 설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기능시험때 '돌발'에 불이 들어오며 '삐익삐익' 소리가 나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 차를 멈출 수 없어 '불합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김씨에게 운전교습을 받으려는 청각장애인들은 최근에 부쩍 늘어났다. 김씨에게 배운 장애인들의 80%가 합격한다는 것은 웬만한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습을 한다. 지금까지만도 50여명의 제자(?)를 배출했다. 불교계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운전교습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종교에 관계없이 청각장애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청각장애인 불자 김승호(왼쪽)씨가 수화로 교육생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있다.

주5일 4시간씩 교습

"저는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게 운전을 배우면서 불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우한 청년시절을 보내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따라 지금은 이렇게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얼 바라겠습니까. 이 일은 부처님께서 제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김씨는 얼마전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각장애인 운전교습 프로그램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하는 데 주인공으로 나섰다. 전국의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이 운전요령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본다는 생각만 하면 저절로 흥이 난다. 이 비디오는 이달 중순경 제작돼 무료로 대여된다.

김씨는 교습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불교공부를 한다. 불교공부는 일상이기도 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운전을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나눔의 삶은 부처의 길

하늘이 조금만 찌뿌드드 해도 '눈이 올려나' 하며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되었다. 그런데 어쩌자고 노숙자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심지어 출근길 전철 안에는 밤새 추위에 떨던 노숙자들이 길게 누워 종점에서 종점을 오가며 잠을 청하기도 한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자신의 삶도 버거운 형편으로선 별 도리가 없다. 그저 족히 여러 명은 앉아도 될 자리를 내어주는 것말고는, 정녕 연민의 눈동자로 바라보는 것말고는 할 일은 없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말씀하셨다. 이른바 자(慈)·비(悲)·희(喜)·사(捨)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테면 '만생명들이여, 평안하고 행복하라' 한다면 그것이 곧 '자심(慈心)'이요, 남의 고통을 무심히 바라보지 않고 빨리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곧 '비심(悲心)'이다.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면 '희(喜)'요, 일체의 편견과 분별을 여의면 사(捨)다. 고로 '자·비·희·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삶이다. 모름지기 불자라면 자비희사의 정신을 삶의 으뜸원리로 삼아야 한다. 모든 존재의 존재 방식은 서로 의지하고(相依) 서로 돕는(相補)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없다. 오히려 못되면 세상 탓이고 잘되면 제 탓이다.

그러나 철저히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었다고 믿는 부나 명예, 권력 따위도 사실은 상대가 있음으로써, 상대의 협조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엔 어떤 한계가 있어야 한다. '나의 부와 즐거움이 남의 빈곤과 고통'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도덕 군자에게나 가능한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률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심이요, 양심이다.

재화·권력·명예 따위를 움켜쥐려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줄어든다. 반대로 비우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증장된다. 움켜쥐는 데서 오는 기쁨은 비우는 데서 오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움의 기쁨은 곧 법열(法悅)인 것이다.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이 세상의 존재방식을 생각할진대,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눔은 우리 모두의 생활 덕목이자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 어느 때보다 나눔의 미덕이 절실한 오늘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 발심하고 실천합시다



허운스님
평촌 보림사 주지

"혹한의 추위가 없으면 저 눈속에 핀 매화가 어찌 사람의 시선을 끌수 있는 향기를 얻겠는가" 설중매(雪中梅)가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얻기 위해서 혹한의 겨울을 견뎌내듯이 우리 중생도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절집에서는 발심(發心)한다고 합니다.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된다 해서 새롭게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입니다. 발심하기까지가 어렵다고 했어요. 마음을 내고 각오만 가지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며 편안이며 안락함을 전부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발심을 했건만 아직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처음의 발심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겨울이 몹시 힘들 겁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구조조정

보시후 생기는 기쁨 번뇌 아니라 공덕심

에 따른 실업의 고통도 심할 것이고, 대학을 가지 못한 고통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만 사는데, 다른 이들은 행복한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을까 하는데 실제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이웃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고(苦)를 가지고 삽니다.

화엄에서는 이 세계를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세계라 해요. 중중무진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중첩되고 중첩돼 있고, 겹치고 거듭되는 것이 끊임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니 어떤 행복이나 고통도 자기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를 표현하는 방법중 첫째가 보시입니다. 보시를 통해서 서로서로 억눌리고 옴츠려들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을 없앨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재보시지요. 또 법보시가 권장되고 있는데 꼭 책을 나눠주는 일뿐 아니라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무외시, 즉 두렵고 무서워 할때 그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없애주는 것도 보시행입니다.

보시는 너와 나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사실 보시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지극히 짧습니다. 보시를 하는 시간은 찰나지만 그 보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덕은 무한히 깁니다. 진정한 보시는 마음의 찌꺼기를 다 없애야 하지만 보시후 생기는 기쁨은 번뇌가 아니라 공덕심입니다. 그래서 십년, 이십년 뒤에, 임종직전에도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이것이 보시의 공덕입니다. 보시라는게 베풀고 어떤 결과를 내눈으로 확인해 물질로 받는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무한히 오래가는 것이지요.

누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세요, 이유따지지 말고. 그렇게 주다보면 받는 사람도 미안한 마음이 들게돼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 나도 남에게 뭔가를 베풀어야지 하게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마음에 잠들어있던 불성이 눈을 뜹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보시라는 것은 간탐심, 즉 욕심을 버리는 것이예요, 자꾸 욕심을 퍼내다 보면 과거세월에 지은 가난한 업이 녹아집니다. 빈궁업이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보시의 궁극적 목적은 반야의 세계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반야가 지혜 아닙니까.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세계는 다 중중무진, 나와 무관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되고, 나 하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래 나의 발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괴롭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더라도 절을 하고 경을 읽고 하다보면 마음이 차차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옛날 스님들은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한다고 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그냥 속상해만 하고 지낸다면 이중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겁니다. 더 큰 웃음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올 겨울을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행캘린더

12월 6일 (수)

■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취임법회=중앙승가대학교는 오전 11시 정진관 대강당에서 제 3대 총장 종범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02)925-5508

■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발표 및 봉정식=고려대장경연구소는 오후 2시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발표 및 봉정식을 봉행한다. 또 7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에서 '불전전산화와 정보혁명 시대의 불교'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02)797-0585

■ 정명스님 연꽃전=정명스님은 12일까지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연꽃전'을 가진다. 스님은 87년부터 종이로 연꽃을 만들어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표현하고 있다.(02)388-0108

12월 7일 (목)

■ 농협 불교회 삼존불 탱화 봉안법회=농협불교회는 창립 6돌을 맞아 오후 7시 본관 근환관에서 동국대 현각스님을 증명법사로 삼존불탱화 봉행법회를 개최한다. (02)397-5988

12월 8일 (금)

■ 국립의료원법우회 창립 11주년 기념법회=국립의료원법우회는 오후 6시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9층 강당에서 창립 11주년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2260-7328 임종승

■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취임법회=영천 은해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승가대학원장 혜남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054)335-3318

■ 봉림사 백고좌 법회=창원봉림사는 오전 10시 30분 중앙승가대 교수 종진스님을 법사로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12월 9일 (토)

■ 파라미타 전국지도자대회=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오후 4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2층에서 '파라미타 전국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02)723-6165

■ 전북불교대학인의 밤 및 동문 작품전=전불불교대학은 오후 3시 전북대학교 녹지원에서 전북불교대학인의 밤 및 동문 작품전을 개최한다. (063)226-7878

12월10일 (일)

■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 교사의 밤=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는 오후3시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교사의 밤' 행사를 가진다. (051)853-5486 이선경

12월11일 (월)

■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한국불교기자협회는 11일 오후 6시30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4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02)722-4162

위빠사나 · 아봐타 수련안내

"자신을 찾는 여행을 함께 할 벗님을 초대합니다."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방법 그대로의 위빠사나와 禪공학이라고 불리우는 아봐타 두 개의 방법으로 수행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12월 8일 오후 4시부터 12월 14일 점심까지 (6박 7일)
참가비	20만원
교육내용	1. 위빠사나 2. 아봐타 코스 1부
준비물	담마를 체득하겠다는 서원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개인세면도구 필기도구

동참하실 분은 종무소에 미리 접수와 온라인 입금을 바랍니다.

◐ 국민은행 : 277-25-0000-906 (예금주 - 봉인사)

◑ 연락처 : 031-574-5585 / 528-5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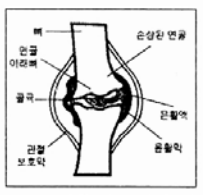
봉 인 사 종무소

봉인사 한길정진원 합장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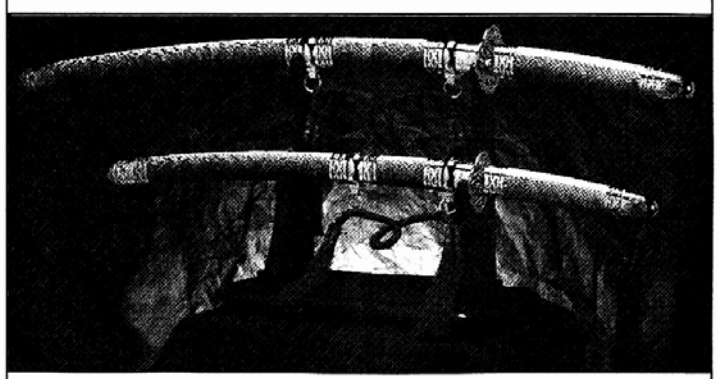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희망과 포부를 나래에 실어 무지개 핀 하늘에 꿈을 드리우는 검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에게 전하는 검은 수족과도 같은 이들에게 못난 생각을 스스로 자르게 하는 것이요, 자식에게 내리는 검은 인생사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부모의 빛이어라

검을 주고 받는 마음이란...

○ 부모님께 바치는 검의 의미 :
넓고 깊은 자애로운 마음이시여!
악한 질병 자르시어 무병장수하소서!

○ 형제에게 드리는 검의 의미 :
우애의 정 깊이 간직하시고 곧가는 마음 자로소서!

○ 친구에게 전하는 검의 의미 :
벗이여! 우리의 우정 변하는 마음 자로로서!

○ 자손에게 내리는 검의 의미 :
모든 풍파에도 좌절하지 말고 악한 유혹을 자르며
굳건히 제자리를 지켜 나가거라

○ 제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검의 의미 :
항상 의롭게 빛나는 정신 깊이 보존하시고 악해지는 마음 자로로서!

○ 스승이 제자에게 내리는 검의 의미 :
혼탁한 마음 자르고 밝은 지혜로 큰 세상에 우뚝서라!

삼 정 도 도 검

본사·공장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99-1
TEL : 032) 677-0085 (代) 032) 674-0081~3
FAX : 032) 677-0084



박태원 교수의 15

불교로 보는 인생

달라이 라마의 감화력

정부 소신 · 용기 부족
진리 대면 기회 외면

설법을 듣고자 워싱턴 광장을 꽉 메운 미국인들, 배우 리처드기어의 열렬한 신심, 달라이 라마로 인해 생겨나는 신선한 풍경들이다. 몇 해전, 한 TV에서 그의 일상을 담은 특집을 본 적이 있다. 그 한 장면. 이른 새벽 참선 시간, 홀로 앉은 그는 만다라를 쌓으면서 관(觀)을 챙겨가고 있었다. 일종의 행선(行禪)이다. 전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대로 공부를 짓는 그의 모습과 분위기는, 결코 범상치 않는 수행력으로 꽉 차 있었다. 그는 언론과 소문이 띄운, 그래서 실제보다 과장되기 일쑤인 유명인들과는 분명 다른 격(格)을 지니고 있었다. 간접 대면이었지만, 그에게서 발산되는 탄탄한 수행의 공덕은 일순간 매우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다른 한 장면. 달라이 라마를 친견할 수 있는 날, 그의 거처 문밖에는 새벽부터 몰려온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서구인들이 많았는데, 잠시 후 문 밖에 나와 선 달라이 라마 앞으로 한 사람씩 나아가 잠시 손 한번 잡고 합장하고는 곧 뒷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어야 했다. 그렇게 잠깐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고 막 그 행렬에서 나온 한 서구 여성에게 카메라맨이 다가갔다.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감동에 젖어 있는 그녀에게 왜 우느냐고 묻자, 그녀의 대답. "나도 모르겠어요. 정면에서 그 분이 웃는 모습을 대하는 순간, 저절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 인터뷰를 듣는 순간, '아, 달라이 라마는 자비의 념(念)이 매우 강하게 계발되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곧이어 떠오르는 것은, 부처님 당시 살인마로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 성불한 앙굴리말라의 일화였다. 앙굴리말라, 그는 999명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였다. 삿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천명을 죽일 작정을 하고, 죽인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 죽은 자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기에 앙굴리말라(손가락 목걸이)로 불리었던 지경 수배자였다.

국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체포 작전에 나서자, 걱정이 된 앙굴리말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숨어 있는 숲으로 길을 나선다. 마지막 천 번째 희생자는 바로 어머니가 되려는 기구한 정황이다. 인연이 익었음을 살피신 부처님이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발 앞서 숲으로 들어가신다. 부처님을 발견한 앙굴리말라는 칼을 휘두르며 부처님 뒤를 쫓지만, 어쩐 일인지 천천히 걷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사문아, 거기 서라!" "여래는 이미 서 있건만, 그대가 서지를 못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 "여래는 생명 죽이기를 그치고 우주적 자비와 지혜로 온전하게 섰노라. 그러나 그대는 살인하며 자비심을 버리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니, 서있지를 못하는구나."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진땀을 쏟으며 털썩 주저앉는다. 조금 전까지 불타오르던 강한 살기는 부처님 몸에서 발하는 자비의 힘 앞에 흔적도 없이 사그라져 버린다. 마치 빛 앞에서 사라지는 어둠처럼. 그렇게 제 정신이 든 그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고, 단기간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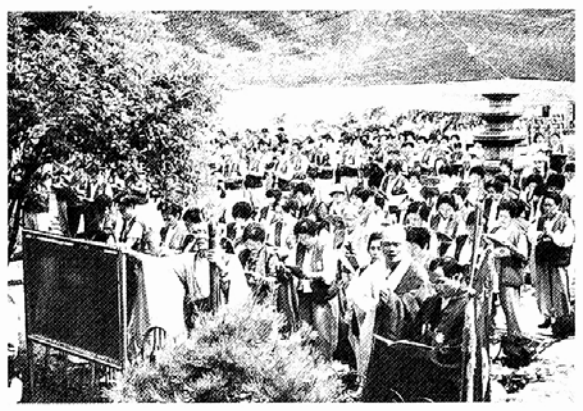
부처님은 자비의 념(念)을 계발하는 수행을 설하신다. 자애관(慈愛觀)이 그것인데, 해탈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참선법이다. 자비의 념은 그 감화력이 실로 크다. 증오·시기·질투·원한·공격의 모든 부정·배타의 기운은 자비 념의 긍정·포용 안에서라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자비기운 앞에서 평안을 느끼며 긴장과 왜곡과 억지를 푼다. 달라이라마의 돋보이는 감화력 원천에는 분명 오랜 세월 지혜력과 균형을 이루며 계발시켜 온 자비의 힘이 있는 것 같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달라이라마는 미국스파이' 라고 망발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 고귀한 수행인의 감화력과 교감할 수 있는 진리 대면의 기회(法緣)를 외면해 버린 것이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안목과 소신과 용기가 그토록 빈깡통이더란 말인가. 그렇다면 한민족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염불심으로 정토세계 만들자"

참불자의 길 염불수행⑤- 염불만일회 어제와 오늘



◇최근 염불만일 결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7월 대원사에서 열린 전국염불만일회 성지대회 장면.

염불만일회는 염불수행의 뜻을 같이 하는 불자들이 1만일(27년 5개월)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칭념하는 수행 결사 운동을 말한다. 8세기경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결사운동은 전국의 사찰에서 행해졌으며, 그 역할도 깨달음과 반성 및 국난 극복, 민중의 귀의처 역할 등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됐다.

염불만일회의 효시는 건봉사 염불만일회다. 신라시대인 758년(경덕왕 17년) 건봉사에서 발징화상이 신도인 정신, 양순 등과 함께 염불을 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염불회로 보는 견해가 많다. 특히 이 결사에는 스님 31명과 신도 1820명이 참여해 기도정진 1만일 후인 787년(원성왕 3년)에 회향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염불만일회의 맥이 한동안 끊겨오다가 1802년(순조 2년)에 2차 만일회가 결성됐고, 1851년(철종 2년)에는 벽오유총 스님이 3차 만일회를 결성했으나 1863년(철종 14년) 철종의 죽음으로 만일을 채우지 못하고 회향됐다.

특히 염불과 선을 함께 중시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에는 많은 사찰에 염불당(念佛堂)이 세워졌다. 이와 함께 염불만일회를 개설하는 사찰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하며 새로운 부흥기를 맞는다. 특히 건봉사와 망월사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이후 염불회는 전국에서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건봉사 이외의 타 사찰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해오고 있지는 않다. 1908년에도 역시 건봉사에서 염불만일 결사가 있었지만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대에 와서는 1960년경 정릉 보국사 자운 스님과 신도 홍인표 거사 등이 중심이 돼 '대동염불회'를 조직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80여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는 이 모임은 매월 한 번씩 모여 '아미타불' 칭념을 하며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보국사 주지 태원 스님은 "대동염불회는 재가자와 출가자가 함께 모여 염불로서 업장 소멸과 극락 왕생을 발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며 "염불수행에 관한 책도 출간 하는 등 창립 취지의 정신을 살려 40여년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98년 8월 6일에는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과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이 주축이 돼서 맥이 끊어진 건봉사 염불만일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경제한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가 결성됐다. 특히 이번 모임은 불자들이 참된 실천 수행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신라시대부터 선지식들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평생염불과 염불만일의 정신을 되살려 올바른 염불심으로 자비와 복덕을 펴는 정토세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조직됐다.

전국염불만일회 3천여명의 회원들은 각자 집에서 매일 오전 10시를 기해 '아미타불 정근 1000념' '아미타 48대원' 등을 칭명하며 수행하고 있다. 또 회향일인 2025년 12월 21일까지 6월과 8월 1년에 두 번 건봉사, 대원사, 은해사 등 아미타 성지를 돌며 법회를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봉사, 대원사, 담양 정토사 등 전국 40여개 이상의 사찰에서 염불만일 결사 회향을 위해 사시불공과 조석예불시 아미타 칭명염불을 꾸준히 전개하며 참불자의 길을 열어가는 실천 수행의 방편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조선후기 염불당 세워

현재 40여사찰 결사

전국염불만일회 참여 사찰

사찰명	전화번호
서울 보국사	(02)914-4069
서울 정토사	(02)379-5502
성남 정토사	(031)723-9797
양평 법왕정사	(031)771-7745
고성 건봉사	(033)682-4946
제천 대승사	(043)647-6371
대전 관음암	(042)581-4001
보성 대원사	(061)852-1755
담양 정토사	(061)381-0108
강진 백련사	(061)432-0837
경주 송계사	(054)773-0854
제주 홍법정사	(064)758-1133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언어로 배우지만 언어 넘어서야 견성

37 선과 언어 (1)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올초에 교계언론에서 선어록의 해설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문제삼아 몇몇 분들이 왈가왈부한 적이 있었다. 필자도 이 논쟁을 보면서 나름으로 생각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선과 언어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밝혀야겠다.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선에서는 왜 그토록 언어를 문제삼는가 하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선에서 언어가 문제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방편으로서의 언어가 문제되는 것이고, 선을 이미 체득한 사람에게는 언어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선의 체득은 자성을 깨달아 온갖 장애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언어의 장애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언어가 방편으로서 문제되는 것은 이미 부처님에게서 범천권청의 설화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법을 깨달은 부처님은 그 법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미묘법을 설명할 방법을 두고 고심했던 것이다. 중국 당나라 육조혜능의 문하에서 성립되고 현재 우리나라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계승되어 있는 조사선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조사선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어가 교외별전·이심전심·불립문자·직지인심·견성성불인데, 여기서도 분명 언어를 문제삼고 있으며, 또 이들은 모두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을 전하고 받는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언급이다.

그러면 가르침과 배움에서는 언어가 왜 문제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는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면서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은 언어를 넘어서고자 하기 때문이다. 언어를 넘어선다는 것은 견성하여 해탈하는 것을 말한다. 견성이란 우리가 상(相)으로 경험하는 세계의 성(性)을 바로 아는 것이고, 세계의 성을 바로 알게 되면 세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즉 범부는 세계에 구속되어 있지만 부처는 세계로부터 해탈한다. 세계로부터의 해탈이란 곧 언어로부터의 해탈이기도 하다.

선에서 가르침과 배움이란 위의 표어에 나타나 있듯이, 마음을 바로 지적해주는 스승의 행위와 그것을 계기로 한 제자의 견성 체험이다. 마음을 바로 지적해주는 스승의 행위가 반드시 언어를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의 만남과 의사소통에서 주요한 수단은 역시 언어이므로 스승과 제자의 만남에 언어는 반드시 개입되는 것이다. 더구나 제자는 아직 언어의 성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스승이 비록 언어[相]를 넘어 마음[性]을 바로 지적해주어도 제자는 여전히 언어의 테두리 속에서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언어가 문제되는 것이다. 스승은 언어의 자성을 바로 보아 언어에서 해탈하기를 가르치지만, 상(相)으로서의 언어만을 익혀온 제자가 상의 벽을 넘어서 성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요컨대 선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목적은 스승에 의한 성의 직지(直指)와 제자의 견성체험으로 달성되는 것이지만, 성은 상을 통하여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만을 익혀온 제자가 언어의 상을 통하여 언어의 성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바로 이 점에 선의 실천에서 언어가 문제되는 까닭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언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범부는 세계를 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직지의 방편으로 무엇을 이용하든(' '할 '이든 '방'이든 어떤 무언(無言)의 행위이든) 범부로서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선에서 언어의 문제란 결국 견성 체험에서 부닥치는 보편적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고 언어만이 가진 특수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인간의 가르침과 배움에서는 언어를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하므로 언어를 더욱 문제시하는 것이며, 더구나 문자로써 선을 설명하려는 경우 문자라는 상을 가지고 어떻게 선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더욱 문제시되는 것이다.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11개 공공부문 노조가 공기업 민영화 철회,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노사관계에 다시 먹구름이 일기 시작했다. 한국전력 노조도 파업을 유보하긴 했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민은 노사와 정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제는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합심해서 21세기의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노사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들었다

노사협력

"화합은 공동체 지탱 근원"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서는 그 구성원 모두를 묶어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하는 것이 보통이다. 진실로 화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나 조직체를 지탱해 나가는 근원이다. 〈대반열반경〉

▨고용주는 고용인을 대하되 다섯 가지 일에 힘써 존경하며 부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첫째 힘에 알맞게 부리며, 둘째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해야 하며, 셋째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넷째 때때로 휴가를 주고, 다섯째 병이 나면 치료해 주도록 한다. 〈선생지경〉

▨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하여 다섯 가지에 힘써야 한다.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주인의 물건을 아껴서 버리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출입할 때 항상 예절로서 대해야 하며, 주인의 착한 점을 말할지언정 나쁜 점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가라월육방예경〉

▨주인은 노비나 종들을 다섯 가지로 대우해야 한다. 마땅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야 하며, 병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의사를 불러 치료해 준다. 함부로 때리지 않으며, 노비의 사유 재물을 빼앗지 말고, 물건을 나누어주되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시가라월육방예경〉

▨곧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툼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거친 말을 멀리함으로써, 나를 해치고 남을 해쳐 서로가 함께 해 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보살은 길을 가면서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 대우 더울 때와 비가 올 때에는 나무 그늘이나 집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앉으라고 양보해야 한다. 또 우물이나 샘물이 있거나 타인이 물을 가진 것을 보았을 때에는 남에게 먼저 마시라고 양보하는 것이다. 〈보살내계경〉

▨부처님께서는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말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라. 넷째 스승을 받들어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장아함경〉

물자 세상보기

일년에 단 한번만이라도

"한해 마무리 하며 이웃 돌봄은 뜻있다"

자선에서 인간애로 서구 이웃돕기 새흐름



김징자 본지 논설위원

집없이 떠돌며 구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걸인이나 거지라 한다. 요즘은 미국식으로 홈리스(Homeless)라 부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집도, 마음을 다독거려줄 가족도 없이 거리를 떠돌며 추위와 주림에 시달리는 입장이야 다를 바 없겠지만 그래도 '걸인'과 '홈리스' 사이에는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다.

'걸인'이라면 전통사회 구성의 한 구색으로 그림 그려지고 그들의 다양한 역할 또한 떠올릴 수 있는 반면, '홈리스'라면 서구의 왜곡된 산업화 사회가 낳은 도시의 무기력한 부랑인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옛 초가집과 걸인들의 움막에 비한다면 최대의 편의와 안락을 고려해 지어진 현대 도시주택, 그 담장밖 거리에 내팽개쳐진 홈리스들과의 안과 밖 대비는 너무나 극명하다. 초가와 움막 사이의 담장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쉽게 열렸겠지만 현대 도시주택의 문은 비정하게도 타인 앞에 좀체 열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IMF 이후, 그리고 최근 또 다시 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부랑인들은 '홈리스'라 불려야 할 것 같다.

받이면 지하철 공간이 비좁을 정도로 모여든다는 '홈리스'들은 우리들의 불우이웃이 지금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는 실직으로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아버지도 있을 것이다. 고아원과 양로원의 수용인구도 자연 늘어날 수밖에 없다.

12월에 접어들면서 연례행사처럼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불교에서 이웃을 돕는 일은 보시에 해당할 것이다. 삼륜청정(三輪淸淨)의 보시는 보시의 세 가지 요소, 즉 주는 쪽과 받는 쪽 그리고 '주는' 그 무엇이 깨끗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데 만약 '내가 주었으니 내게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보시가 될 수 없다. 주는 이나 받는 이 모두 나와 남의 경계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리라.

다음, 자신에게 소용없는 물건이 아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건을 아깝다는 생각없이 줄 때 그것을 보시라 할 만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웃돕기는 보시라기보다 자선이란 단어가 더 합당하다. 다소 빠기면서 매스컴에 이름을 내며 부자가 큰 돈을 내도 좋고, 필요없는 물건이나 넘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요긴히 쓸 수 있는 사람에게 한시 빨리 넘겨주는 것이 좋다. 그런 자선이 차츰 승화되면 보시정신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

자선이란 체리티(Charity), 이른바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지금껏 서구사회를 지탱해 온 단어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맘때 쯤이면 서구사회 곳곳에서 체리티 파티가 열린다. 하지만 요즘은 필랜드로피(Philanthropy)란 단어를 많이 쓴다. 이는 그리스어의 인간애란 뜻으로 박애에 가깝다. 자선이란 단어에는 시혜(施惠)라는 의미가 있어 어딘가 위선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서구사회에서도 이웃돕기가 자선에서 인간애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애가 좀더 발전한다면 아마 보시정신이 될 것이다.

구세군의 자선냄비 종소리로 시작되는 연말의 자선행사들을 의례적인 일회성이라 하여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선이란 일년, 아니 평생을 두고 자기가 가진 것을 '없는 이웃'과 나누는 일이라는 뜻에서 나온 비판인 것이다.

하지만 한해를 마감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어려운 이웃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일 또한 의미 없지는 않다. 일년에 단 한 번의 자선을 시작으로 언젠가 '보시정신'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니까.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노숙자 시설 재정난 자비문중 외면 말라

불교계 노숙자 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보았다.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찰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만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비문중임을 자처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과도 어긋난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큰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단위별로 몇몇의 사찰들이 노숙자 시설 한 곳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사찰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종단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종단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금만 마음을 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의 후원금 모금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모금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경숙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다른종교 존중하자' 불자부터 먼저 반성

얼마 전에 귀가하는 길에 택시를 탔다가 택시운전사와 얘기를 나누게 됐다. 그 택시 운전사는 자신을 교회 집사라고 소개하면서 나라가 어려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다. 그러면서 "혹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정중하게 "절에 다닌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운전사는 반가운 표정으로 잠시 뒤를 돌아보며 "아이구, 그러십니까. 좋은 곳엘 다니시네요" 하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처럼 걱정이 많으시죠?"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훼불이다 뭐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분노가지 치밀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 운전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다른 종교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

10여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택시 운전사는 몇몇 기독교인이 잘못을 한다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본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다.

〈박영길 · 경기 안산시 중앙동〉

월정사 등산로 전화 관리 못할바엔 철거

3주전쯤 강원도 월정사에 오르다가 너구리가 앉아 있는 모습의 '효'전화를 보았다. '효'전화를 보면서 현대인들이 잊고 사는 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케 해 마음이 뿌듯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화기는 간 데 없고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었다. 어떤 이유로 월정사 오르는 길에 이 전화가 설치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찰에 오르는 산뜻한 기분이 반감됐다.

그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설치했는지, 아니면 월정사에서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바에는 철거하는 것이 낫다. 이런 흉물스런 광경은 사찰과 어울리지 않는다.

〈김경연 ·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자다운 신행생활 초심자 · 일반인 '감화'

며칠전 포교사고시에 응시한 동산불교대학과 무불선원에 나가는 불자다. 포교사 고시를 준비하던 중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지난달 봉은사의 대학입시생을 위한 3천배 철야정진에 동참했었다. 신도들이 많아 겨우 자리를 잡고 자정까지 1800배를 하고 나서 잠깐 쉬고 있자니 추위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회사일로 과로를 한 탓인지 몸을 주체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때 자식의 합격을 기원하며 열심히 정진하던 한 보살님이 음료수와 과일을 챙겨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그 보살님의 자비스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지난 여름 수덕사에서 3천배 정진했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정진을 하다 자정이 다 됐을 무렵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이 혼자였다. 그때 경내를 살피시던 한 스님이 난감해하는 내 표정을 보고는 아무말없이 부처님께 절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예불시간까지 나는 스님과 함께 정진을 했다.

불교의 겉모습만 알고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던 내 자신에게 그 스님과 보살님은 참불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김시우 · 시우통상주식회사 대표〉

기고

"'옴마니반메훔' 깨달음의 경지 함축한 진언"



무외정사 (진각종 포교부장)

얼마전 드라마 '왕건'에서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이 잘못 표현된 데 대해 종단 홈페이지나 KBS 게시판에 비판의 의견이 뜨겁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잘 모르는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진언이 드라마에서 궁예가 혹세무민할 때 사용하는 요사스러운 주문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드라마 '왕건' 제작진은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은 불교에서 가장 수승한 진언으로 인식하고 있음(제67회 방영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원래 '옴마니반메훔'은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이라고 하여, '여섯 자로 된 최고의 진언으로 불리고 있다. 이것은 깨달음의 심경을 즉시적으로 표현한 진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으뜸이 되는 진언이라는 것이다.

육자진언은 "온 우주(Om)에 충만하여 있는 지혜(mani)와 자비(padme)가 지상의 모든 존재(Hum)에게 그대로 실현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육자진언은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수행자들이 지속적으로 체험하여 축적된 깨달음의 경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소리이며, 이로 인해 육자진언 염송의 공덕이 수승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연구로는 육자진언은 10세기 경에 현존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고려중기(1157)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자진언이 가장 널리 신앙이 되고 있는 곳은 티베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법종, 향완, 단청 등에 새겨 넣었으며, 일상의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행해진 진언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본질이 드라마 제작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왜곡되게 전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어떤 형태로든지 드라마 속에서 자연스럽게 육자진언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연출력을 기대한다.

행운의 벽조목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가장 신비한 나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의 보물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이 벽조목은 수 百年 묵은 大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년 7월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베어서 지금까지 보관해오던 귀중한 진품으로 인연 있는 분들이 평생동안 소장하실 수 있도록 목걸이,도장,낙관,염주,단주 등으로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점안이 필요하신경우 점안도 가능)

벽조목은 각종 질병, 사업의 경제난을 겪고 있으신 분,입시,승진시험과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 하여 국어 사전과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품만이 그 효능을 발휘하는 이 행운의 벽조목은 항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인연 되는 분에 한해서 공급합니다.

홍련암 공덕하법사 02)909-1360 011-9778-2803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회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회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튠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가격 인하 단행!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편리하고 利(LI) 기쁨주는 喜(HL)'S LIHIS양말이 여러분앞에 인사드립니다.

■ LIHIS 건강 지압 양말
- 건피부 (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지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숯 양말
- 원적외선 차단
- 음이온 발생
- 당뇨 · 혈압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함

건강숯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제조원 (주)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4~5
전남북 대리점 062)956-7676~7
동대구 대리점 053)982-4976
대 구 대리점 053)252-6966
인천 · 경기대리점 032)765-4445

입방안내

금강선원 선문장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 · 출소가 자유롭고,

남 · 녀 구분 없이 누구나 수행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혜거스님의 법문과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수련원 禪門莊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 1리
전화 033) 433-5845~6

사·부·대·중

수행자가 된다는 것



홍승
대구 부도암

결제철이 되면 공부가 시작되기 전 대중 소임을 짠다. 누구나 한 가지씩의 소임을 맡아서 한철을 별 탈 없이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한다.

대중처소에서 철을 나본 스님들은 누구나 경험을 한 것이겠지만 힘든 소임은 피하고 싶은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그래서인지 중소임(重所任)이라고 하는 큰방 부전이라든지 후원의 공양주나 별좌 소임을 맡겠다고 자원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 대중공사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소임이 정해지면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대중의 결정에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이 우리 승가가 갖는 대중공사의 장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은 화합대중인 승가의 전통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스님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면 미리 힘든 스임을 피하기 위해 힘든 소임을 살리지 않는 선방을 골라가며 방부를 들인다던가, 만약에 자신에게 힘든 소임이 주어지면 못하겠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스님들도 있다.

이쯤 되면 구참 납자들이 설득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막무가내로 힘든 소임을 맡기면 짐을 싸서 가겠다고 하는 스님들도 간혹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더불어 승가의 세속화가 그 원인이 아닐까 한다. 지나친 개발위주의 정책에 편승한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되어, '오로지 나만이 잘먹고 잘살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사회풍토, 이런 사회 속에서 항상 경쟁하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들의 사고방식이 나만 출세해서 잘살면 된다는 개인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바로 이런 사회풍토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수행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속세에서의 삶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뼈아픈 인내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행자라면 누구나 걸어가야만 하는 피할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수행자들 스스로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는지, 편안함만을 추구하려는 나태심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경책하는 마음이 아닐까.

목탁소리

군법사와 종교편향

김 두 식 〈취재1부 기자〉

국방부 군종실이 펴낸 군장병 선도 책자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백과〉가 기독교 편향 내용으로 기술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15일 군종장교의 상담업무 보조자료로 편찬된 이 책은 '신앙공동체', '하나님', '영적 성장', '신 안에서' 등의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며 성경읽기를 권장하는 선도지침을 제시하는 등 기독교를 교묘하게 선전하고 있다. 교계는 이에 대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책의 편집위원 10명 전원이 군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종장교들에게 편집위원 선발 공문을 하달했고 상담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군종장교를 우선 선발하다보니 군법사나 군신부는 해당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군종장교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담활동이다. 특히 장기복무를 한 군법사들은 상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성직자라는 점에서 굳이 석사학위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 경험 많은 3개 종교 군종장교들이 실무를 맡고 대학교수나 종교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어도 충분한 일이었다.

책자에 대한 물의가 빚어지자 국방부는 종교편향적인 내용들을 인정하고 군법사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해 내용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더 실망스러운 것은 군법사들이 이같은 종교편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불교정책을 대변하는 국방부 군종실의 한 법사는 편집위원이 전면 군목사로 선임된 문제는 물론 이 책자를 감수하는 과정에서조차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모 법사는 "종교편향이 아니니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라"는 요구까지 했다.

국방부 군종실의 편향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군법사들의 상황인식이 이 정도라면 불교계에서 '종교편향'을 운운할 명분이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거대한 둑도 작은 구멍이 원인이 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 군포교를 저해하는 주요인이 종교편향이 아닌 '스스로의 태만'임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환경 살리는 '대안화폐' 아시나요"

봉사·물품교환등 '품앗이 운동'
· 지역공동체 30여곳 제도운영



◇불교환경교육원은 10월22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지역통화 운영단체들과 함께 지역통화를 소개하고 직접 거래를 해보는 홍보장터를 열었다.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대안화폐(노동력 또는 물품)를 수단으로 공동체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통화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통화운동이란 현대적 의미의 '다자간(多者間) 품앗이' 제도로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신 그 대가로 자기자신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타인의 기술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통화 창출운동이다.

1980년대 중반 캐나다에서 지역통화 운동이 생겨난 뒤 98년 시민단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과 불교환경교육원이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했다. 현재 지역통화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공동체는 전국적으로 30여곳에 이른다.

지난 11월 2일에는 지역통화를 운영하는 30여 단체들이 처음으로 모여 지역통화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지역화폐 운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풀뿌리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요즘처럼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역통화 운동이 사회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고,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외 지역통화 운동 현주소

지역통화 연구자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1000여개의 지역통화체계에 1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지역통화에 녹색달러, 아워즈(시간), 미래통화, 생태화폐 따위 다양한 이름을 붙여 쓰고 있다.

영국에서는 92년 5개의 지역통화체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350여개로 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년 34개이던 것이 지금은 200개가 넘는다. 영국에서 1년 동안 이뤄지는 거래활동 규모도 210만파운드(약 36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전세계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거래 물품과 서비스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어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가사서비스에서부터 물품 제공, 각종 교육프로그램까지 지역통화로 거래되고 있다. 소매점은 물론 지방기업이 지역통화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거래 안정성 확보

지역화폐 운동은 아직 초기 단계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득연박사는 "지역교환 거래망이 결성되고 나서 오래지 않아 해체되는 예도 있고, 해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환거래 자체가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예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내사' 곽형모 간사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지역통화가 거래되려면 회원 규모에 집착하기 보다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역통화운동 관계자들은 회원들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래품목을 확보하는 것, 단순히 자원봉사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번 만큼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지역화폐와 법정화폐를 호환하는 것 등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불교적 의미

지역통화운동은 돈을 갖지 않고도 물품과 노동력(서비스)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사람 누구에게나 잠재된 기술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 특히 공동체 운동이자 대안환경운동으로서 사부대중 공동체를 지향해 온 승가(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공동체의 친환경적인 생명공동체에 부합된다.

83년 캐나다 코목스밸리에서 마이클 린튼에 의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이 운동은 물질주의의 폐해를 극복해 온 불교사상과도 맞닿아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자본에 종속되는 사람의 비인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소유와 소욕지족,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운동은 하나의 실험적 불교사회운동이 되기에 충분하다. 최근 중중무진의 인드라망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어, 불교계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사찰 신도 등 불자를 회원으로 시작하는 이 지역통화운동이 성공할 경우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추구하는 불교도농공동체 처럼 사찰이 생명살림 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통화운동의 마지막 목표는 돈에 의한 소외와 단절의 고리를 끊고 공동체를 회복해 자연에 순응해 사는 소박한 자립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지구촌 10만여명 회원
'나눔의 공동체' 지향

지역통화 운영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불교환경교육원	(02)587-8997
서초 품앗이은행	(02)570-6315
송파 품앗이	(02)2202-2351
대구 중구청	(053)429-1381
대구동구청 봉사 품앗이	(053)986-1365
인천정보통신연대	(032)868-8566
작아장터	(02)744-9074
구리 녹색가게	(031)565-6351
열린사회시민연합	(02)708-4096
관악지역화폐	(02)867-8219
전주 품앗이	(063)245-2778
민들레	(02)322-1603
아름다운지역공동체 나눔	(032)423-9708
기술도구은행	(02)872-5802
감리교 통합 품앗이	(043)872-8979
인천 생협	(032)220-6229
청주시청	(043)220-6229
안양시청	(031)389-2487
제주여성민우회	(064)756-7261
성남 참사랑복지회	(031)747-6177
미내사클럽	(02)747-2261
대전 한밭 레츠	(042)256-2465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031)492-8785
대전 빈들교회	(042)621-8891
성북청년회	(02)909-2816
영강살림은행	(033)765-3216
의정부 YMCA	(031)878-9898
청주 생태연구소	(043)234-3429
참여복지 시민연합	(02)2299-1436

불교환경교육원 '두레 시스템'

참선-청소-정보검색 등 다양한 교환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은 지난 98년 9월 지역통화 '두레' 통화소(通貨所)를 출범시켜 각종 서비스와 물품의 교환거래를 하고 있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을 등록받아 청소·우편물 발송 등 단순노동과 행사(법회) 사회자 및 안내자, 한문·외국어 번역 업무, 인터넷 정보검색, 컴퓨터 기술자문, 비디오 촬영편집 등 다양한 서비스들 거래중이다. 참선·요가·선무도·불화 지도, 경전 번역 및 지도, 사찰 건물 보수, 공양주 일, 사찰주변 청소 등 거래가 가능한 불교관련 서비스와 물품(불화, 불상, 불서, 다기 등)은 무궁무진해 회원 기반이 넓어지면 교환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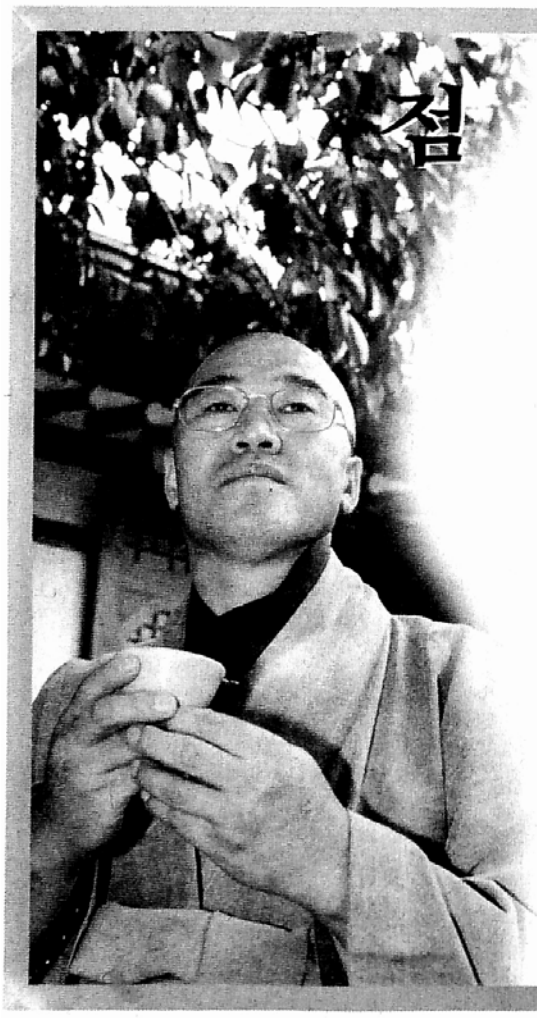
두레시스템은 이렇게 운영된다

예를 들면, 고2 학생을 둔 A보살이 B사찰의 법당을 청소하면, 대학생 C불자가 A보살의 자녀에게 과외공부를 무료로 지도한다. A사찰의 주지스님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 C불자에게 불화를 가르친다.

등록비는 전액 '두레' 화폐로 계산되므로 현금은 전혀 들지 않는다. 회원 가입을 원하는 불자는 먼저 지역통화 두레 등록소에 계정을 가져야 하며, 계정등록 비용은 5,000두레이다.

거래시 먼저 등록소에 상대방의 신뢰도를 문의한 후 거래하면 효과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 후 구매자는 반드시 운영자에게 거래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모든 거래는 '두레 시스템은 계정을 개설한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체'임을 규정한 거래 기본 동의서에 합의한 뒤에 진행된다.

두레화폐와 현금의 비율은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며, 거래 후에는 현금을 제외한 두레 액수만 등록소에 전화로 알려주면 된다.



찰 대 법 회 占察大法會

어둡고 고통스런 현실을 점찰 기도로 밝게 살아갑시다

사람은 누구나 개개인의 개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그것은 무형 세계(無形世界)와 유형 세계(有形世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밝힌 사상이 점찰 사상으로서 『점찰업보경(占察業報經)』에 담겨져 있다. 점찰 사상은 지나온 세상을,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이 점찰 사상은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 중기까지 찬란하게 꽃 피어 이어져 내려왔다. 조선 중기부터 사라진 점찰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20여 년 간 은거하며 수행을 하고 확철대오하여 세상에 나오신 설선당 무산(蕓禪堂 撫山) 스님께서 기도 법회를 열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앞날에 전개된 운명을 알고 가야 할 것이다. 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참 불법을 깨닫고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갑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운명의 업(業)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은 어떤 것인가?
· 왜 못 사는가? / ·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 · 왜 계속하여 아픈가? / · 왜 불구가 되는가?
· 왜 단명하는가? / · 왜 남녀가 부부로 만났다가 쓰라린 이별을 하는가? / · 왜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가?
본인의 운명(業)이 나쁘다면, 자식의 운명이 잘못되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의 운명(業)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점찰기도 수행이다.

3일 기도, 7일 기도로 앞날의 운명이 훤하게 보일 것이다.

기도법회 문의 : 경덕사 종무소 (054)745-0527
大韓佛敎曹溪宗 景德寺 海會禪院
경북 경주시 인왕동 129번지

會主 蕓禪堂 撫山

다담선(茶湛禪)을 알고 다도(茶道)를 하는가

다담선이란 차를 마시면서 선수행을 하는 것으로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9백여 년 전 우리 나라에 들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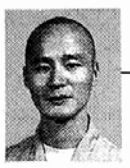
- 고승들이 중생에 전하는 찻잔 속 깨달음의 향기들 – 조선일보
- 우리나라 다담선의 맥을 처음으로 정리해낸 보고서이자 다담선의 부흥을 알리는 선언문 – 연합뉴스
- 찻잔 속에 詩가 있고 詩 속엔 禪이 있다 – 문화일보
- 끊어졌던 다담선의 선맥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책 – 국제신문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선국판 양장/272쪽/값15,000원

한국 역대 고승高僧의 茶詩

"다담선의 선맥(禪脈)을 밝힌다"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 B/D 503호
TEL. 733-4277(代) FAX. 733-4279 (주) 명상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유마경 ②

수행에는 출·재가 구분 있을 수 없지만, 왜 출가한 비구(比丘)가 아닌 거사(居士)를 표면에 내세웠을까? 이 물음이 〈유마경〉을 읽는 열쇠다. 유마거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아이 다루듯 하였고, 10대 제자들은 유마거사를 두려워하였다. 유마거사의 문병을 가라는 부처님의 당부를 듣고도 모두가 난색을 표할 정도였다. 〈유마경〉은 그 시대적 배경을 부처님 재세시대로 설정하고 있지만, 유마거사가 당시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유마거사와 10대 제자를 대립항으로 설정해 대승과 소승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마경〉이 중국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던 이유는, 중국 선승(禪僧)의 생활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유마거사의 재래(再來)라고 일컬어지던 선자(禪者)인 방거사(龐居士)가 있다. 재가자로서 자기를 완전하게 하는 것을 지향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듯 유마거사와 선종(禪宗)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유마경〉의 내용에 들어가 보자. 바이샬리시의 자산가였던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워 있었다. 부처님도 유마거사의 소식을 듣고, 사리불을 비롯한 10대 제자들과 미륵보살 등 여러 보살들에게 그를 문안하라고 일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그 소임을 맡을 ㅅ 없다고 사절하게 된다. 과거에 유마거사로부터 수행과 관련하여 잘못된 것을 엄하게 지적당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일을 당할까 염려하여 병문안을 갈 마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에게 그 일을 시킨다. 문수보살은 "유마거사의 상대가 될만한 주변이 되지 못하는 줄 알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문안을 가겠습니다"하고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의 당부를 받아들이게 된다. 대중은 문수보살과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섰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마음을 자세히 전하고, 유마거사의 병세와 병의 원인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은 무명(無明)과 삶에 대한 욕망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며, 나도 또한 그렇습니다. 만일 일체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어가는 것이요,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습니다. 만일 중생이 병을 여의면 보살도 병이 없을 것입니다."

유마의 병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병을 굉계로 하여 위대한 불이(不二)의 법문을 열고자 했던 것이다. 문수보살과 함께 보살 32명에게 차례로 "불이법문(不二法門, 상대와 차별을 뛰어넘은 절대평등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뜻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보살들이 자신의 체험과 체득한 견지(見地)에서 생각을 밝히는 심포지움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고, 이야기하려 해도 할 수 없고, 알려 해도 알 수 없으며, 모든 물음과 답변을 초월하는 것이 불이의 법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문수보살은 유마거사에게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되물었다. 유마거사는 눈만 멀뚱거릴 뿐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주위에 정적이 감돌았다. 이때 문수보살이 "멋지십니다. 정말로 멋지십니다. 문자도 없고 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불이의 법문에 들어가는 길이로다"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곧 〈유마경〉의 핵심이요, 골수이다. 유마거사는 우리에게 대승불교는 출가전문(出家專門)만이 아니고 출가든 재가든 수행에 따른 증득(證得)은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승속 초월 '不二법문' 압권

중생이 병을 여의면 보살도 병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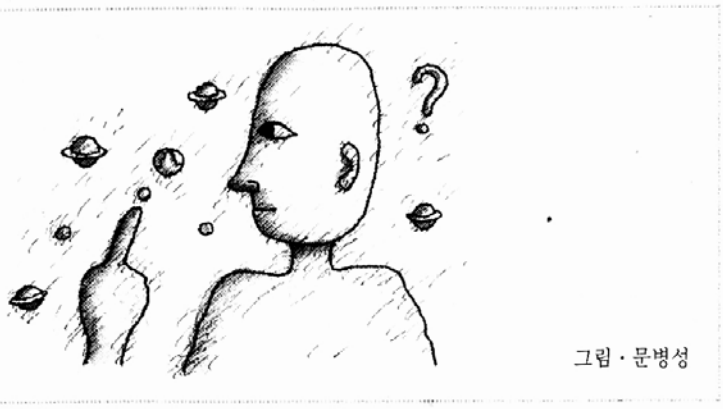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불교와 과학 〈9〉

우주는 무한하다고 한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같은 것이 4000억 개 이상이 모여 우리 은하계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 지평선 내에서만 1조(1012) 이상 있다고 한다. 그렇게 헤아리기 어려운 숫자 이상으로 우주는 무한하다. 그런데 우주는 원래 그렇게 무한한 것이었는지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우주의 시작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정도 된다고 말한다. 중간쯤 잡아서 150억 년이라고 말해도 좋다. 150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 초기 10-12초 동안은 원자핵이 형성되기 이전인 스프 상태의 우주의 모습이었다. 그 후 100초 동안 현재 우주의 많은 규모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머지 150억 년 동안 생명이 존재하는 오늘에 우주에까지 진화하였다.

오늘의 우리는 '진화의 처음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진화가 아니라 최초의 창조라면 그 창조의 처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고 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들른 영국의 휠체어 물리학자인 호킹은 이미 60년대 말에 특이점의 정리를 내놓아, 특이점이 작동하는 대폭발의 시간과 함께 우주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면 특이점 이전의 시간은 무엇일까? 그 답으로서 시작 이전의 시간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보면 신의 창조 이전에 시간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덴동산에 있는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의 나이테가 있는지 혹은 아담은 배꼽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펜로즈-호킹의 특이점 이전의 시간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 이전의 시간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호킹의 대폭발 이전 시간은 지금과 같이 앞으로만 가는 화살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창조론에서 말하는 창조 이전의 시간은 아예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처음 이전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은 현상 속의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사물과 함께 한다. 사물의 흐름이 무상이듯이 시간도 역시 상대적이다. 그런 의미의 시간이라면 불교에서는 시간의 시작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시간의 끝도 없다. 우주가 무한하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뜻과 같다. 그 반대로 그 어디라도 우주의 중심이 된다고 말해도 된다. 중심이 없으면서 동시에 그 어디라도 중심이 될 수 있는 우주가 곧 화엄경이 말하는 우주와 같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우주의 한 티끌에 지나지 않지만, 동시에 그 작은 티끌 속에도 모든 우주가 포함되어 있듯이 내 안에 중심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에도 중심이 없다. 그래서 그 끝과 시작이란 없다. 언제부터인지 언제까지인지 원래부터 모를 일이다. 단지 그 무엇이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날 뿐이다. 윤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윤회는 윤회의 멈춤을 희망하고 있으며, 윤회의 시간사슬이 끊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윤회의 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윤회의 끝은 다시 열반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열반에는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 우리는 무심(無心)의 초발심 속에서 아니면 부처 세계의 일상성 속에서 우리가 아직 그 시간의 시작도 해보지 못한 그런 열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윤회에는 시간의 끝이 있었고 열반에는 시간의 시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본다. 윤회와 열반이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회의 그늘 속에서도 열반을 보는 사람은 시간의 시작 이전의 무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열반의 연꽃 위에 앉아 있는 사람도 윤회의 사슬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시간의 끝 이후의 무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광창우주의 시간의 끝이 축소우주의 시간의 처음이 되듯이 원래는 하나의 우주적 진화이거늘 그것을 둘로 보는 사람의 두 가지 시간일 뿐이다. 하나의 우주를 찾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진여(眞如)일 뿐이다. 윤회의 끝과 열반의 시작이 맺어지는 곳이 바로 진여의 우주이다. 그래서 진여의 우주 속에는 시간의 시작도 그 끝도 없다. 그 안에서 시간은 무시이래(無始以來:anadikalam)와 무종(無終)이지만, 시간의 얽매임이 없다면 시간의 처음과 끝이 한 찰나 속에서 되살아 날 수 있다. 작은 꽃잎 끝에 맺혀 있는 작은 이슬 방울 방울마다 비추어진 반짝이는 태양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하늘의 태양을 모두 머금고 있듯이 말이다.

※ 최종덕 / 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과학 최초 우주 대폭발과 함께 시간존재

불교 사물 발생·소멸 따라 시간도 생멸

마약·폭력 들끓는 거리 사찰 세워 청소년 선도

지구촌 불교 / 美 슬럼가 포교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톤 시에서 상좌부 불교계 스님 5명이 마약과 알콜 중독과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삶의 도리와 여유를 심어주고 있어 화제다.

스님들은 지난해 5월 16일 폭력조직과 마약·알콜 중독자들의 거리로 악명 높은 헌터 가(街)에 찬시사마끼담(Chansisamd kidham) 사원을 개원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리의 폭력으로부터 아시아계 청소년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솜분 아시타노(Sombun Athitano · 주지) 스님은 "우리는 이 사원을, 헌터 가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세웠다"며 "이 곳의 청소년들은 총, 마약, 매춘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헌터 가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과 같이 전쟁으로 조국을 떠난 아시아계 난민들이 대거 유입해 살고 있는 거리로, 스톡톤 시에서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치안 상태가 좋지 못한 대표적인 곳으로 꼽힐 정도다.



◇솜분 아시타노 스님과 아시아계 청소년들.

최근에는 캄보디아계 몹 패밀리(Mob Family), 라오스계 투르 클립스(True Crips) 등 종족을 중심으로 한 폭력조직이 하나 둘 결성되고 있어, 헌터 가의 상황은 예전보다 더 비관적이었다. 더욱이 각 조직에서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고 있는 실정이었다.

아시아 난민 거주지 문화·놀이공간 제공

솜분 아시타노 스님은 "대부분의 조직은 청소년들에게 심부름과 같은 비교적 쉬운 일을 시키고 많은 돈을 주고 있다"며 "여기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알콜에 중독되고 매춘을 일삼는 등 탈선의 길로 들어서고 결국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다"고 헌터 가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솜분 아시타노 스님 등은 유력한 지역 인사들에게 지원을 받아 사원을 세웠고, 사원의 모든 곳을 청소년 문화·놀이 공간으로 공개하고, 주변 폭력배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현재 4백여 평 남짓한 사원은 모래나 접시, 공 등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들과 라오스계 록그룹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청소년들로 연일 가득 메워지고 있다. 조니 감만호(Johnny Kammanh · 14)는 "무서운 형들을 만나지 않아서 좋다"며 "지난해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항상 이 곳에서 논다"고 말했다.

그런데 요즘 찬시사마끼담 사원의 스님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사원을 청소년의 보호처로 삼겠다는 당초 생각은 실현되었지만, 이 곳에서 마음을 닦고 싶은 어른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시금도 줄고 있어, 가볍게 넘어갈 일도 아니다.

이에 대해 솜분 아시타노 스님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상징인 연꽃은 가장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난다"며 "불만을 털어놓는 어른들에게, 비록 깨끗하고 조용한 사원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미소와 불법이 가득한 사원임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기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

초기에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초기불교 교단생활

부처님 제세시와 열반 직후의 초기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거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출가 및 구족계 제도, 안거와 포살 및 자자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조,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3,000원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 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종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중 하나인 다라니와 탄트라의 의미, 밀교의 교판론 및 핵심 교리,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키고 있다.



종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왼쪽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법수사지 3층석탑의 축대가 무너진 모습, 길가에 방치된 전북 남원시 만복사지 불두, 심하게 훼손된 전북 완주군 송광사 벽화

성주 법수사지 3층석탑 축대 무너져 붕괴위기 | 남원 만복사지 불두 도로 바로 옆 '아슬아슬' | 완주 송광사 대웅전 벽화 떨어지고 망가져 엉망

성보 훼손-도난 '계속 손 놓고 있을건가'



◇회암사지 약수터 안내판으로 전락한 비석 조각.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 마애보살입상(향토유적 제14호).

석가탑으로 잘 알려진 경북 경주시 불국사 삼층석탑(국보 제14호)은 지대석이 갈라져 있어 보는 이의 눈을 아리게 하고, 경기도 시흥시의 명물인 소래산 마애보살입상(향토유적 제14호)은 흰색 화학 약품으로 뒤범벅이 된 채 방치되어 있다.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지 인근 약수터에는 이름 모를 선승의 비석 파편이 약수터 안내판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훼손에는 기본적으로 불교문화재가 세워진 지 짧게는 수백 년에서 길게는 수천 년이란 시간이 빚어낸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불교문화재 전반에 걸쳐있고, 보존 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선다.

10여 년 간 불교 문화재를 소재로 사진을 찍어 온 사진가 이병윤(불교사진연합회 회장) 씨에 따르면, 사찰과 폐사지가 있는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석가탑이나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회암사지 약수터의 비석 파편과 같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거나 이미 훼손된 불교문화재들과 마주칠 수 있다.

경북 성주군 법수사지의 삼층석탑(도지정문화재 제86호)의 경우, 지대석 주변을 광평히 닦기 위해 지표면을 고르는 과정에서 쌓은 축대가 무너지고 있어, 자칫 석탑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막곡동에 있는 삼층석탑(도지정문화재 제110호)은 지대석의 아래에 평평한 돌을 밀어 넣어, 석탑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데, 역시 제대로 한 보수라고 볼 수 없다. 경북 안동시 안기동 삼층석탑은 보수가 잘못돼 석탑의 좌우가 불균형하고 여기 저기 덧칠된 시멘트가 흉물스럽다. 경북 경산시 불굴사의 삼층석탑(보물 제429호), 경북 의성군 삼층석탑(보물 188호)은 육안으로도 풍화로 인한 훼손을 짐작할 수 있다. 경북 영천군 팔공산 동쪽 기슭에 있는 거조암의 나한 4구와 경북 안동시 안기동 석불좌상(보물 제58호)은 문화재 전문가의 고증 없이 흰색 안료로 덧칠되어 예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전북 남원시 만복사지 옆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불두'가 있는데, 도로변에 방치해 놓은 상태다. 보호난간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와의 거리가 불과 30여 센티미터에 불과하다. 전북 완주군 송광사의 경우, 보물 제1243호로 지정된 대웅전의 외벽 벽화는 떨어져 나갔고, 뒤편 야산에는 탑비로 추정되는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다. 전남 곡성군 태안사 역시 탑비로 보이는 파편이 경내에 방치되어 있다. 전남 화순군 쌍봉사의 철감선사탑(국보 제57호)은 풍화로 인한 훼손을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들 불교문화재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문화재는 훼손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도난으로 인하여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화재 도난'은 '문화재 훼손'에 대한 근심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심각하다. 조계종에서 발행한 〈도난백서〉(1999년 7월 간행)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 간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는 316건에 총 453점. 문화재 전문가들은 "국가·지방지정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있는 마당에 비지정문화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큰 사찰이야 총무·재무·교무 등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있다지만, 작은 사찰의 경우 종무소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에는 신경 쓸 여력도 없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정기 순찰은 해당 문화재의 존재 여부 확인이 전부인 정도다.



인터뷰

불교사진련 이병윤회장

"사진찍고 돌아서면 항상 발걸음 무겁죠"

"사찰과 절터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설 때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변변한 보호 대책 없이 성보들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21일 50여 장의 슬라이드 필름을 들고 본사를 방문한 이병윤(불교사진연합회 회장) 씨. 그가 본사를 찾은 것은, 보호 조치 한 번 받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는 불교문화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9월 경주 보문동사지에 답사 갔을 때, 도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낮인데도 말이죠. 도굴범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있던 곳에서 7~8개의 구덩이를 발견했어요."

이 씨가 가지고 온 슬라이드 필름에는 최근 답사를 다녔던 문경, 안동, 경주, 광주 지역과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불교문화재의 실상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는 사찰 아산에서 나뒹구는 이름 모를 선승의 비석 파편에서부터 석가탑 지대석의 중앙 부위에 갈라진 틈새에 이르기까지, 전국 사찰이나 폐사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재 훼손의 전형들이 담겨 있다.

이병윤 씨는 "처음에는 인사동에서 문화재 훼손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시회보다는 언론에 통해 알린다면, 사람들의 경각심이 더 높아질 것 같았다"며 "이 보도를 계기로 불교 문화재에 대한 사부대중의 인식이 한 단계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군 태안사 경내에 방치된 비석조각.



◇기단부의 모퉁이가 벌어진 경북 의성군 삼층석탑(보물 제429호).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감자뭉생이



일제 시대 말기의 일이다.

일본 천황도 경배한다는 조동종의 명승인 사또가 조선불교와 일본불교의 통합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 고승들을 한사람씩 만나며 회유하고 있었다.

사또는 총독과 함께 마지막으로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고 있는 한암 스님을 찾았다. 한암 스님은 총독과 사또가 도착하였다는 기별을 받고도 참선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총독과 사또의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그러나 총독과 사또는 한암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태산같이 무겁게 느껴지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스님의 모습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윽고 사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한암 스님은 날아다니는 파리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다. 사또가 다시 물었다. "스님께서는 대장경과 조사들의 어록을 보며 어느 것에 가장 깊이 가명받았습니까?" 한암 스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적멸보궁에 참배나 갔다 오시지요." 사또가 다시 물었다. "입산 초년과 만년의 경계가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때, 사자가 차와 감자뭉생이(떡의 일종)를 손님 앞에 내놓았다. 한암 스님이 말씀하시길, "조선의 감자뭉생이는 한암을 만들고 일본의 덴류라는 사또 당신을 만들뿐이오." 사또는 그 후 감자뭉생이를 화두로 삼았다고 한다.

절에서는 사발하고 목욕하는 날이면, 으레 별식을 만들어 먹는데, 감자전이 인기가 있고, 한암 스님은 절의 행사 때나 명절에 올라오는 감자뭉생이를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콜레스테롤 저하 성인병 예방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감자 4개, 밤 5개, 콩 한줌, 대추 10개, 잣 1큰술, 볶은 소금, 참기름, 황설탕 2큰술

요리법 ① 밤은 껍질을 까서 2~3쪽으로 나누고 대추는 돌려 깎아 말아둔다.

②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건더기와 즙을 분리하고 즙에서 가라앉은 녹말을 분리한다.

③ 밤, 콩, 대추, 잣, 감자건더기, 소금, 황설탕, 녹말을 섞어 반죽하여 30분 정도를 찌낸다.

④ 찐 떡을 틀에 담아 식힌 후 썰어낸다.

효능 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성인병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껍질에는 항암성분이 있어 함께 먹으면 좋다.

② 비만인 경우엔 감자찜이 좋다.

③ 단, 신장염이나 신부전증 환자는 감자를 피할 것(재래종 자주감자는 무방).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⑩

翼眞記云 定慧二字 乃三學之分稱
익진기운 정혜이자 내삼학지분칭
具云戒定慧 戒以防非止惡爲義
구운계정혜 계이방비지악위의
免墮三途 定以稱理攝散爲義
면타삼도 정이칭리섭산위의
能超六欲 慧以擇法觀空爲義
능초육욕 혜이택법관공위의
妙出生死 無漏聖人 因中修行
묘출생사 무루성인 인중수행
皆須學此 又此三學 有隨相稱性之別
개수학차 우차삼학 유수상칭성지별
隨相如上說 稱性者 理本無我戒也
수사여상설 칭성자 이본무아계자
理本無亂定也 理本無迷慧也
이본무란정야 이본무미혜야
但悟此理 卽眞三學耳
단오차리 즉진삼학이

〈익진기〉에 보면 '선정과 지혜라는 두 말은 바로 삼학(三學:계, 정, 혜)의 준말로서 갖추어 말하면 계율과 선정과 지혜이다. 계율은 잘못을 막고 악을 고친다는 뜻이니, 삼악도에 떨어짐을 면하게 함이요, 선정은 진

心地無亂自性定 心地無痴自性慧
심지무란자성정 심지무치자성혜
此之是也
차지시야

또 옛 스님은 '내 법문은 과거 부처님이 전해주신 것이지만 선정과 정진을 논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통달하게 할 뿐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상(相)으로 따지는 이들의 삼학을 깨뜨린 것이지 성품으로 따지는 삼학을 부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계 스님이 '마음에 잘못이 없음이 자성(自性)의 계율이요,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지혜이다'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지혜는 법으로 空을 觀하니

생사를 벗어나게 하는 것

리에 부합하여 산란한 마음을 수습한다는 뜻이니, 여섯 가지 욕망을 뛰어넘게 함이요, 지혜는 법으로 공(空)을 관(觀)한다는 뜻이니 이는 생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뇌가 없는 성인은 처음 수행할때 다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삼학이라 한다' 하였다. 또 이 삼학은 상(相)으로 따지는 것과 성품으로 따지는 구별이 있다. 상으로 따지는 것은 위에 말한 것과 같고, 성품으로 따진다면 '진리에는 본래 '나'가 없다는 것이 계율'이고, '진리에는 본래 어지러움이 없다는 것이 선정'이며, '진리에는 본래 미혹됨이 없다는 것이 지혜'이다.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삼학이다.

先德曰 吾之法門 先佛傳授
선덕왈 오지법문 선불전수
不論禪定精進 唯達佛之知見
불론선정정진 유달불지지견
此卽旣破隨相對治之名
차즉기파수상대치지명
不壞稱性三學
불괴칭성삼학
故曹溪云 心地無非自性戒
고조계운 심지무비자성계

론심성본정 번뇌본공지의
是當最上乘禪 然於用功門中
시당최상승선 연어용공문중
初心之人 不無權乘對治之義
초심지인 불무권승대치지의
故此勸修
고차권수
文內 權實幷陳 不可不知也
문내 권실병진 불가부지야

또 말한 선에도 얕고 깊음이 있다. 말하자면 외도선, 범부선, 이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선원제전집〉에 실려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말한 '심성은 본래 깨끗하고, 번뇌란 본래 없다'고 하는 이 이치는 바로 최상승선(가장 근기가 뛰어난 선, 즉 조사선을 뜻함)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차츰 공덕을 쌓아가는 수행의 문이 있어야 하겠기에 권승(權乘:근기가 얕은 이를 위해 방편으로 가르침)과 대치(對治:서로 대칭되는 것을 나타내어 가르침)의 뜻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권수문(勸修文)에는 방편과 절대의 진리를 아울러 말했으니 그렇게 알라.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법인스님

천안 각원사 주지

"우러러 뵈오니 칠십년 풍설(風雪)을 헤쳐오신 얼굴, 수련꽃 흰빛이 깊어 은은하옵니다. 보현의 옥합에 가득히 담긴 알알의 보석은 영롱하고, 문수의 발우에 넘치는 물은 맑습니다. 스님께서는 분명, 높은 하늘 날아와 앉은 푸른 솔 위의 백학(白鶴)이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청화스님이 지난 10월3일 은사인 법인스님의 고희(古稀)를 맞아 이러한 헌시(獻詩)를 올렸다. 청화스님의 표현처럼 법인스님은 청년같은 동안(童顔)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백학의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다. 26일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마무리했다는 천안 태조산에 자리한 웅장한 호국대찰 각원사 경내 경해원(鏡海院)에서 법인스님은 "중생苦와 시대고의 해결이 이 시대 수행과 포교의 중요한 논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땀 흘린만큼' 이 삶의 인과법



· 1931년 경남 충무 生
· 46년 해인사에서 포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 마산 해인대학, 동국대, 성균관대 졸업
· 87년 일본 대동문화대학 문학박사학위 취득
· 現 천안 각원사, 동경 명월사 주지
·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연구〉 〈불교입문〉 등 논 · 저서 20여권

—스님께서는 54년간 '참선하고 역경하며 포교하면서 불사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출가자의 본분'이라는 신념으로 수행과 포교, 교육에 매진해 오시면서 항상 시대를 이끄는 불교가 돼야한다고 평소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도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도 동남아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가 시대적으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며 발전했듯이,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사는 한국불교 역시 새 시대에 맞는 이념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율원의 경우 전통계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대에 맞는 계율을 제정해 불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가장 복잡한 계율을 가진 나라가 한국불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계율은 부처님 당시의 계율정신에 맞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독일식, 미국식, 일본식 헌법이 나라와 시대마다 달리 취사선택되고 시대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왔듯이 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칙만 잘 지킨다고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칙도 잘 지키고 공부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학생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불교는 '상구보리'와 함께 '하화중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개인적인 수행의 공덕을 사회로 회향하는 실천에 무게를 두자는 말씀이지요.

▲불교의 깨달음도 요 임금, 순 임금이 추구한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도를 닦았으면, 백성을 위해 치산치수(治山治水) 해야한다는 얘깁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데 깨달은 성인이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던 이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실천 없는 깨달음은 사물을 아우르지 못하는 허무한 이념과 다를바 없어요.

스님들은 많은 중생들의 카운셀러 역할을 해야합니다. 중생들은 고해(苦海) 속에서 숱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본분이 깨달음에도 있지만 중생과 부처님과의 가교역할을 통해 불교와의 인연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스님께서 이곳 태조산에 호국통일기원 도량인 각원사를 창건한 연유도 민족苦를 해탈시키고자 한 실천의 방편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시대苦인 동족상잔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통일을 서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제가 한반도의 중심인 천안 태조산에 통일기원 대불(아미타부처님)을 모신 것도 이런 원력때문입니다. 대동강변에 대세지보살을, 영호남 중간지점에 관세음보살을 모시려 한 것도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마음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1950년 11월, 6.25전쟁의 피난길에서 경주를 지나치다가 석굴암을 참배했습니다. 전쟁의 비참함,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비극, 국민들이 받는 이 극심한 고통, 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답을 달라고 기원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주시는 계시처럼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3국이 갈려 지금처럼 동족끼리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었던 때, 신라는 3국을 통일했고, 김대성은 통일된 국가의 번영을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우지 않았던가. 나 역시 우리나라와 고통받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힘을 키워 남북통일을 기원할 수 있는 대도량을 세워야겠다. 역시 부처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펴야겠다."

이것이 제가 그이후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모든 힘을 다해 앞만 내다보면서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전통불교교육은 물론 현대교육을 두루 경험하시고, 동국대 교수인 호진스님과 김용택 교수를 비롯해 많은 상좌들의 교육을 적극 후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현대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해방이후 이승만 조병욱 장면 백승욱 박사 처럼 '박사'가 되어야만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웃음). 교육은 승속을 불문하고 가장 기초적인 관문입니다. 교육이라는 과정 없이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정립되기가 힘듭니다. 특히 현대인들을 교화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과정입니다.

참선도 마찬가집니다. 교학이 바탕이 되어야만 화두 염불 주력 기도가 여법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시생은 고시를 합격한 후 판 ·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가 된 후에도 육법전서를 옆에 끼고 공부를 계속합니다. 평생 교육은 수행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성한 스님네들이 경전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제자는 선교쌍수(禪敎雙修) 즉, 선과 교를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선 · 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가 수행자 가운데 선 · 교를 다르게 생각하는 이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석가세존께서 세 곳에 마음을 전한 것(三處傳心)이 선지(禪旨)가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귄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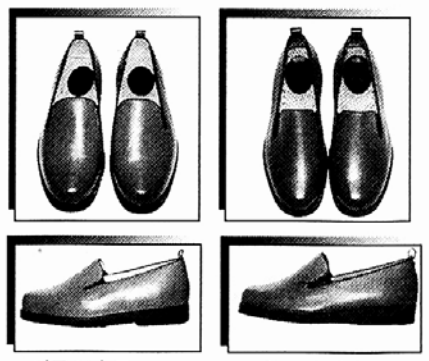
귄行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코르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건강신발 귄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펑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귄行대표 박동진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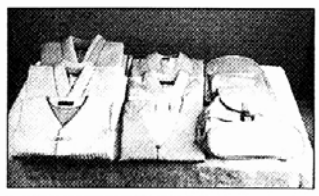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福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30,000
누비 (上,下)	남여	180,000
방한복 (上)	남여	130,000
바랑	大中	30,000 25,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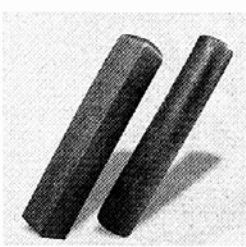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벼락 맞은 대추나무 벽조목 도장

벽조목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신비의 마력을 지닌 영물로 각종 패물 부적인장, 호신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벽조목을 지니면 살아가는데에 야기되는 모든재앙과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며, 액운을 물리치고 운명을 길하게 하며 재물운이 강해 사업하시는 분의 성공을 지켜드립니다.

이 벽조목은 우연히도 1999년 추석에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수령은 300여년이 된 벽조목이 발견된 것을 구입 제재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도장 및 공예품으로 만들어 다양한 제품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 벽조목은 하늘이 주신 귀한 보물이므로 인연이 되시는 분께만 공급코저하오니 귀하의 출세와 부귀를 얻고 가정과 사업이 발전하여 소원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氣 印 當

031-315-7316(팩스겸용)
016-305-7316

되고, 일생(成佛에서 涅槃까지)에 걸쳐 설법한 것은 교문(敎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佛心)이요, 교는 부처님의 설법(佛語)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선·교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선가귀감〉의 선교문(禪敎門)에 보면 선과 교의 근원은 세존이며 선과 교를 나누어 전한 이는 가섭(迦葉)과 아난(阿難)이라 했습니다. 무언(無言)으로서 무언에 이르는 것이 '선'이며, 유언(有言)으로서 무언에 이르는 것이 '교'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과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불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납자들은 흔히 사교입선(捨敎入禪)을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얘깁니다. 일본 황실의 황태자가 삭발염의하고 후지산 초암에서 납의를 걸치고 앉아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영국 옥스포드대학을 졸업하고 일거수일투족 교육을 통해 황실 예절을 익힌 황태자가 스님이 된다면 아마 일본의 전국민과 세계인이 존경하는 분이 될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와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왕실에서 받은 믄무를 겸비한 교육을 바탕으로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역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음을 상기하고, 참선을 위해 교학을 버린다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법인스님(오른쪽 끝)은 수시로 상좌 스님들에게 "신도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카운셀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실천없는 깨달음 허무한 이념"

"출·재가 막론 평생공부 해야"

—일본 동경 명월사에서 30여년간 16만여명의 재일동포를 교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위엄만 갖추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해요. 일본 불교의 경우는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 사찰은 대부분 유치원과 보육원을 갖고 있어요. 또 일본 국민의 90%는 조상의 유골을 사찰에 모십니다. 조상님과 자녀들이 사찰과 인연을 맺다보니 자연히 온가족이 불자가 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불교가 되어 있지요. 사찰에 유골을 안치한 것이 벌써 400여년전부터이니 이런 전통은 뿌리가 깊어요. 물론 일본 사찰의 스님들은 대부분 부자지간으로 이어져 정년회 회원들도 스님들이 많아요. 대부분 비구 스님이 아니지만 이런 점은 본받을 만하지요.

—일본불교의 수행전통은 한국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일본에는 5,000여개의 임제종 사찰이 있으며, 1만5천여개의 조동종 사찰이 있습니다. 나머지 500여개 사찰은 황벽종 사찰입니다. 임제종 사찰은 한국처럼 간화선을 공부하고, 조동종은 묵조선을 합니다. 일본의 불교는 대체로 교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마자와(駒澤)대학을 운영하는 조동종은 본사가 영평사와 총지사인데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법화종 계열은 신도가 3000여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스님들이 한국불교는 활구선(活句禪)이며, 일본불교는 형식선(形式禪)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나친 아만과 교만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웃 나라의 불교를 너무 쉽게 깔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어떻게 볼까요. 그들은 '한국 스님들은 왜 절에서 몽둥이 들고 싸우냐'고 이상해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견성한 도인이 많다는 한국에서 불교가 국내·외 불자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의 실천화'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불 후 깨침의 내용을 법문과 실천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오늘날 불교가 살아 있을까요. 실천없는 깨달음은 중생에게 아무런 자비심도 발하지 못하는 공허한 관념 속의 깨달음일 뿐입니다. 납자에게 깨침의 계기가 되는 주장자만이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세 번 두드리는 방망이가 중생들에게는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스님은 물론 재가불자의 사회적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가불자의 수행과 실천은 어떠해야 할까요.

▲선종에서 부처님은 '똥막대기'라느니, 경전을 읽지 않고서도 자신의 본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립문자 견성성불(不立文字 見性成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후 45년간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법하신 가르침은 그저 조용하게 앉아 지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여법하게 된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은 각자가 행(行)·주(住)·좌(坐)·와(臥)·어(語)·묵(默)·동(動)·정(靜)의 일상생활에서 노력하여 땀을 흘린 것 만큼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학문적 탐구를 계속하다보면 입시생들은 입시생 나름대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불의 길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근본되는 교리의 골격으로 삼학(三學)이 있습니다. 계(戒)·정(定)·혜(慧)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삼학은 불교를 배워 도를 이루려는 사람이 반드시 닦아야 할 필수의 과정입니다.

정신을 맑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늘 성찰하고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戒, 마음의 잡된 물결이 고요히 잠들고 번뇌의 거친 파도가 침잠되어 잃어버린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도록 하는 定, 계를 지켜 고요함의 율타리를 두루고 그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 참된 슬기가 생겨나게 하는 慧, 부처님의 절대자유하고 평등무애한 세계로 나아가는 바른 방편은 이것을 빼고나면 없습니다.

다시말해 경·율·론 삼장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여 계·정·혜 삼학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가지 경과 만가지 이론을 모조리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고 밥을 먹는 행위 즉 실천이 없으면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완성이 곧 사회 국가 나아가 중생계의 완성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불·보살님들이 여러분의 서원을 들어주기 위한 서원을 세우시고 지켜보고 있으니, 자신있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웃위해 봉사하는 참다운 삶 사세요"

—끝으로 독자들과 국민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여 정사를 올바르게 관별할 수 있고 이웃의 어려운 사정에도 눈을 돌리게 되어 자비도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불자님들은 60세까지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그 후 20년 동안은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걸림없는 자세로 불교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홍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은 통일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당당하고 정의롭게 거짓없이 대처해야 합니다. 순간의 인기나 개인적인 업적을 위해 서둘러서도 안됩니다. 온국민이 염원하는 평화통일을 위해 사심없이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또 스님들은 좀더 많은 사회활동을 해서 중생을 이익케 해야 합니다. 아울러 10년~20년 후를 생각해서 조계사를 정비하고 총무원 청사를 20층 규모의 고층건물로 새로 지어, 한국불교의 포교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담=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 대공스님

"견공스님, 견공스님 없습니까?"

" 아니, 웬 견공?"

"견공? 견공이라니?"

" 비구계 받는 자리에 견공(犬公)이 왜 있어?"

" 누가 지었는지 법명 한번 요상하게 지어 놓았네"

모두가 킥킥거리며 술렁이고 있었다. 습의사 스님께서 한참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건만 견공(?)스님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착오가 있어서 대공스님이 견공스님으로 둔갑한 것임을. 교육기간 중에는 부르는 순서가 있으므로 순번을 따져 보니 분명 대공스님을 호명하는 것임이 분명했다. 대공스님 순번다음이 나인데 대공스님은 부르지 않고 나를 호명하는 것만 봐도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출가후 사년동안의 사미생활을 마치고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비구계첩에 불명(佛名)을 적는 사무직원의 실수로 큰 대(大) 옆에 실수로 점 하나를 더 찍어 놓는 바람에 생긴 해프닝이었지만 정작 나를 웃긴 건 잘못 적힌 불명 때문이 아니라 분명 자신의 법명이 잘못 호명되고 있음을 뻔히 알고도 그저 무덤덤히 두 눈을 감은 채 가부좌를 틀고 끝내 외면해 버리는 대공스님의 표정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타협을 않는 성품의 대공스님이었으니 어쩌면 대답없이 초연해 버리는 그의 모습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쉼없이 절하며 사분정근

지금은 어디서 수행할까

대공스님과 나는 사미계 도반이요, 비구계 도반이다. 속탑이 나보다 대 여섯살 위였으므로 형처럼 따랐으나 대공스님은 이제 같이 수행하는 길의 첫걸음에 섰으니 그저 허물없는 친구처럼 지내자며 오히려 깍듯이 대해 주곤 했었다. 그러나 내가 대공스님과 처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

대공스님은 사미계를 받은 후 기도와 만행으로 수행을 하였고 나는 바로 강원에 입방하였으니 서로 친해질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겨우 안면만 튼 사이였을 뿐이었다. 그러다 치문반 해제철 만행 때 남해 보리암에서 기도중이던 대공스님을 만났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친해 질 수 있었으니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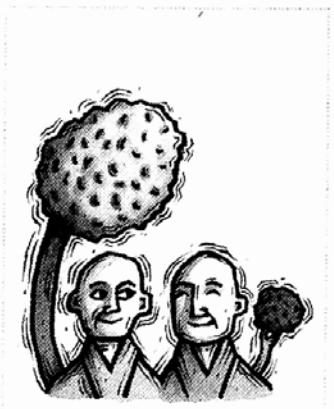
보리암에서 의기투합한 우리는 방학기간 내내 보궁을 참배하며 만행을 다녔다. 비록 보름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으나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서로가 격려하며 이제 각자의 길에서 더욱 열심히 수행하자며 기약없이 헤어 진 후 서로를 잊고 살았다.

그리고 삼, 사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연히 보궁 참배길에 사자산 법흥사에서 대공스님을 만났다. 예고 없는 만남이라야 더욱 기쁜 법. 우리들은 그 동안의 공부이야기에 밤 늦은줄 모르고 담소를 나누었다. 대공스님은 천일기도 중이라 했고 이제 칠백일쯤 지났다고 했다.

그동안 많은 도량을 찾아보았지만 법흥사 도량이 자신에게 꼭 맞다고 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삼천일기도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튿날 새벽기도때 그의 기도 모습을 보고 또 한번 놀랐다. 목탁을 치고 정근만 하는게 아니라 절까지 빠른 속도로 쉼없이 했다. 매일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였더니 이제는 별로 힘들지 않다고 했다. 기도만 하는 것도 힘들텐데 절까지 하며 사분정근을 하니 그 근성이 놀라울 뿐이었다. 법흥사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기도시간 짬짬이 시간을 내어 산행을 즐겼다.

이제는 말이 필요없는 산과의 대화시간이었지만 서로의 뜻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어제 내린 비로 송이가 많겠다며 씨익 웃어보이던스님. 하산길의 허기를 송이버섯으로 채우다가 넌즈시 강원에 가 공부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더니 부처님 법이 다 한가지로 통하는데 어디서 공부한들 대수냐고 말한다.

자신은 늦깎이라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기도로 대신하겠다며 자신의 공부까지 다해 달라며 너털웃음을 짓고는 훠이 훠이 등 방자락을 흩날리며 저만치 앞서가는 그의 등이 무척 커 보였음은 내 눈의 착각이었을까?

송이버섯 몇 송이를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싸서 길 가다 먹으라며 주고는 환한 웃음으로 배웅해 주던 대공스님을 어제 본 듯 한데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지금은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도 모르지만, 어느 곳 어느 도량에서라도 열심히 정진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한 생각을 쉬어 불현듯 길 떠나 보면 언제나처럼 우연히 만날 수 있으리라. 그때를 대비하여 차 한 통을 준비해 두어야 겠다.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識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조선일보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 기격 :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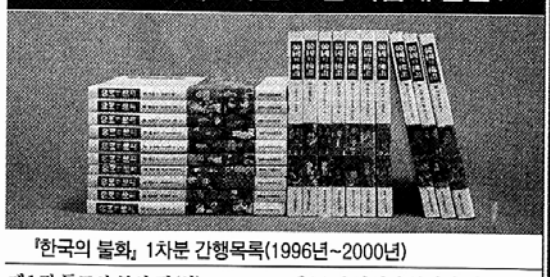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8권 직지사 본말사 편(상)
제9권 직지사 본말사 편(하)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12권 선암사 편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14편 선운사 본말사 편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특별가 200질 한정보급
기간 : 2000년 11월 2일 ~12월 31일
보급가 :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

불교연하장 '눈에 띄네'



새 천년의 설레임도 잠시, 어느 듯 200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자칫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카드를 주고받으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통신수단의 발달로 갈수록 잊혀져 가지만, 글쓴이의 숨결과 마음이 묻어나는 편지는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진심을 전하는 수단이다. 더구나 경기 한파로 사람들의 마음마저 얼어붙은 연말,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장의 편지는 힘을 준다.

동자승·연꽃 등 소재
전통-현대 조화 디자인

아직 본격적으로 팔리고 있진 않지만 불교용품전문점에서는 벌써 불교 연하장과 카드를 선보이며 불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선보인 카드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목탁을 든 동자승 캐릭터. '목탁이' 시리즈는 동자인 '목탁이'가 경전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 목탁을 안고 있는 모습, 광이치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전통 한지를 이용한 수공예제품도 선보였다. 한지의 멋을 살려 우리 들꽃과 별띠 해를 맞아 별을 친근하게 표현했다. 이밖에 연꽃, 불보살, 스님, 탑 등의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그려놓은 카드들도 불교관련업체에서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 연하장과 카드에는 부처님 말씀이나 경구 등을 한켠에 옮겨 놓은 것도 있어 문서포교에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카드나 편지지를 이용하지 않고 좀 특이한 새해 인사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인터넷을 이용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하다. 약간의 전화료만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와 카드를 보낼 수 있다.

경구 적어 문서포교
인터넷카드도 선보여

불교정보센터에서는 이달 중순경에 인터넷을 이용한 이메일 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하고 싶은 내용에 걸맞는 그림을 선택한 후 받을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개인적 사연도 쓸 수 있다. 부처님 오신날 캐릭터를 비롯해 원성스님의 동승 그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그림 등이 담긴 카드는 이미 나와 있다.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불교 연하장과 카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불교포교의 새로운 분야로 계속 발전할 전망이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우리 전통 서사무가 '바리데기' 설화와 서양 고전 '리어왕'이 만나 '생명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총체극 '우루왕'의 한 장면.

총체극 '우루왕' 14~17일 국립극장 공연

"갈등 끝내자" 해원굿

지난 10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에 초청받아 반월성터에서 야외극으로 공연된 총체극 '우루왕'이 실내극으로 다듬어져 공연된다.

국립극장은 14일부터 1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특별기획 공연으로 '우루왕'을 무대에 올린다. '우루왕'은 한국의 전통 서사무가 바리데기 설화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생명과 상생'을 화두로 삼아 재구성한 총체극으로, 김명곤 국립극장장이 대본을 쓰고 총감독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작품이다.

'생명과 상생의 환타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연극은 선사시대 한민족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우루왕과 3명의 공주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인간의 아집과 욕망을 정교한 서사로 풀어낸 '리어왕'의 비극은 이 작품에서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생명수를 구하러 다니는 '바리데기' 설화와 만나 원작과 전혀 다른 상생의 메시지로 결말을 맺는다.

극적 구조도 그러하지만 한국의 전통·현대 예술과 서양식 무대예술이 만나 펼치는 음악적 환타지도 빼놓을 수 없는 '우루왕'의 매력이다. 판소리·굿 등 우리소리가 뮤지컬과 어우러지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쎌로 선율이 함께 만난다.

국립극단, 창극단, 무용단, 국립관현악단 등 국립극장 산하단체가 모두 참여했고, 연극계의 산 증인인 장민호 씨가 고룡승지 역, 명창 안숙선 씨가 길대부인 역을 맡는 등 최고의 출연진이 뭉쳤다.

국립극장측은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세기의 역사를 한 판의 해원굿으로 풀어내고 '생명과 상생'의 메시지를 온 인류를 향해 띄우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02)2274-1172

권형진 기자

사이버 문화

'선객'
선사들 구도송 따라읽기

마음과 경계를 잊은 자리 무어라 말할건가
/갈대꽃과 눈빛은 같은 듯 같지 않네/사방으로 통한 길은 묘하기 그지없어/—千江을 다 다녀도 달 그림자 남지 않네

-태고보우 송 중에서-

그윽한 선시의 향내 속에 묻혀 선사들의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을 따라가 보자.

선시를 접할 수 있는 얼마 안되는 홈페이지 가운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객'(http://sungag.buddhism.org/seon.html)이다. 선객에서는 다양한 선문화를 접할 수 있다. 선시에 빠져 구도송을 읊조려 볼 수도 있고, 선화를 통해서는 붓끝에서 피어난 선의 정수를 맛볼 수도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선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화두참구법 등 다양한 선관련 정보를 제공해, 일반인들에게 어렵기만 한 선시를 쉽게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게송과 선시, 십우도, 선림보전, 선화, 선사 어록에 이르기까지 선과 관련된 다양한 불교문화를 선보인다. 조계종의 소의어록인 〈선림보전〉 7권 중 〈신심명〉 〈증도가〉등에 대한 해설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불교창작무 '무애'
만해 詩정신 춤으로 만난다

불교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창작무용이 모처럼 무대에 오른다.

정혜진 무용단의 단장 정혜진씨는 13~14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인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의 주요작품은 불교 창작무 '무애'.

'무애'는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나룻배와 행인' 등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에 담긴 정신세계를 춤으로 표현한 창작무용으로 지난 11월 열린 제22회 서울 무용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안무상(정혜진)과 연기상(채명신)까지 휩쓸어 명실공히 올해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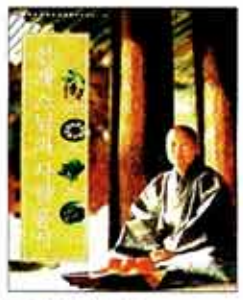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탐구의 과정을 한국의 전통 춤사위를 바탕으로 형상화했다. 그러면서도 자칫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내용을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행위 위주로 잘 풀어갔다는 평이다.

신선한 창작무용의 경연장인 서울 무용제에는 올해 21개 팀이 참가, 예선을 거쳐 8개 팀이 경쟁 부문에 올랐다. (02)752-7739

권형진 기자

선재스님 '약이 되는 사찰음식전'

8·9일 동국대 상록원



불교TV '푸른 맛 푸른 요리' 진행자로 널리 알려진 사찰음식연구가 선재스님이 '제1회 약이 되는 사찰음식전'을 8~9일 동국대 상록원 3층 교직원 식당에서 연다.

사찰의, 나무와 풀로 만든 음식 15가지, 약초 장아찌 30가지, 김치 14가지, 약차 20가지, 계절식 10가지, 재활용음식 14가지 등 총 1백여 가지의 전통사찰음식이 전시된다.

스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식과 사찰음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서 "사찰음식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여주 보리사에서 사찰음식 연구와 보급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스님은 "앞으로 경전에 나타난 음식문화 연구를 비롯, SBS TV에서 추진중인 사찰음식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님은 최근 〈선재스님의 사찰음식〉(디자인하우스 刊)을 펴냈다. 칼라화보와 함께 사계절 무공해 사찰음식 229가지의 조리법을 실었다. (02)2260-3056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문화소식

세계 불교서화 대전

아세아서화협회는 불교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해 20일까지 '2000년 세계불교서화대상전'을 개최한다. 국내는 물론 일본, 대만, 중국 등 세계 각국의 불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작품 내용이나 형식은 자유다. 성인부와 학생부로 나눠 성인부는 화선지 반절 또는 전지 규격으로, 학생부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1/4절지, 5학년부터 대학생은 반절지 규격으로 작품을 내야한다. (02)313-0756

전통사찰김치 대축제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17일 오전 10시~오후 6시 대강당에서 '전통사찰김치 대축제'를 연다. 연구소 개원 8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청도 운문사의 과일김치, 예산 수덕사의 가지소박이, 양산 통도사의 풋감김치 등 지역별 특색이 드러나는 전통사찰김치 60여 가지가 선보인다. 전통사찰 죽 50여 가지도 전시되며 무료시식도 할 수 있다. (02)555-5961~3



음력 문화달력 출시

문화기획단 가배가 2001년 문화상품으로 음력문화달력(사진)을 내놨다. 음력 설인 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이 달력은 보통 달력과는 달리 음력 날짜가 크게 나와 있고, 양력 날짜는 옆에 작게 쓰여있는 게 특징이다. 각 달이 4면으로 돼 있으며 그 달을 상징하는 삽화와 24절기·명절에 대한 설명, 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일정을 덧붙였다. (031)919-9941

소아암 환자돕기 디너쇼

반야연예인포교단은 21일 오후 6시 부산 동래 허심청 대청홀에서 불자 소아암 환자돕기 디너쇼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원로국악인 공옥진씨의 곱추춤과 병신춤, 가수 김태곤씨와 '머루와 다래'의 찬불가 음성공양 등이 펼쳐진다. 또 탤런트 이미영씨를 비롯해 10여명의 불자연예인이 찬조 출연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전액 조계종 포교원에 기탁되어 소아암 환자 및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mahamall mahamall.co.kr

연옥 합장주



최상급의 연옥만을 엄선하여 만든 보석합장주는 14K 금자석에 부처님 또는 귀자가 양각으로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 상품 설명
금자석과 연옥을 함께 함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여 늘 긴장하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든 불자 분들, 직장인 특히 수험생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 고급케이스에 대한 보석감정연구원의 감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연옥 합장주 : 90,000원
- 금자석 연옥합장주 : 150,000원

연꽃 불자시계



증정품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 남성용·여성용 각각 119,000원
특별 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 108염주)

◆ 입금 계좌번호
국 민 023-21-0559-095 예금주 : 이동격
농 협 053-01-232495 예금주 : 김학표
우체국 010041-02-127274 예금주 : 김학표

Tel : 732-1522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인증업체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플라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팔모주름등



(빨강) (연두) (노랑)

공단등



(빨강) (노랑) (오색)

팔모조립등



팔모조립등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육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마음 맑히는 '깨침의 향기' 그윽

명정스님 펴냄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

"너무 과한 칭찬은 오히려 욕이 되네. 아직도 극락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나. 바로 자네가 극락이며 지옥이네. 바라보는 양쪽 눈의 무게가 다르다니 어서 안경을 끼게. 안경은 비싸 사지 못하니 마음의 안경을 사서 끼게."

한국 근대 불교의 선지식 중 한 명인 경봉스님(1892~1982)이 '극락은 어디입니까'라는 내용의 종묵 스님 편지를 받고 쓴 화답이다.

근대 한국불교 1백년사를 이끌어 온 역대 선사와 강백들이 선문답 형식으로 주고받은 한문 서한이 명정 스님(통도사 극락선원)에 의해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좋은날)로 나왔다. 이 책은 엮은이 명정 스님의 스승인 경봉 스님이 간직하고 있었던 라면상자 다섯 개가 넘는 고승 서한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경봉스님은 매일 수행일지를 남길 정도로 기록에 철저했다.

스님이 남긴 편지 하나하나에 담긴 선문답,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 주는 촌철살인 같은 구절들은 읽는 이의 가슴을 광활한 대지로 향하게 해준다. 편지지 또한 재미있다. 죽순을 펼쳐 말린 것이 있는가 하면 나뭇껍질, 그리고 찢어진 베옷자락 쓴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쓰여진 편지들은 대부분 해독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하지만 쥐똥이 묻고 색이 바랜 채 전해오는 종이 편지들은 고승들의 삶과 수행을 고스란히 전해 준다.

그 편지의 주인공들은 경허, 만해, 용성, 한암, 탄허, 효봉, 청담, 성철, 일타 스님 등 당대의 대표적인 스님과 재가신도 등 119명

경허·용성·한암 스님 등 고승·거사와 주고받은 주옥같은 선문답 서한집

에 이른다. 내용 또한 다채롭기 그지없다. 만해 스님의 옥중 편지, 용성 스님의 친필 서한, 을사보호조약 때 한일합방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발표했던 장지연 씨의 편지, 성철 스님이 불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외국인 교수에게 보낸 편지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 득도를 위해 끊임없이 만행을 떠나는 스님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 등 수행의 방법과 경지를 묻고 답하는 편지들은 문학적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다.

"생(生)과 사(死)가 다 부처님의 뜻인데, 아직도 무(無)자 화두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십니까"라는 효봉 스님의 질문에 경봉 스님은 "한번 화두를 꺼내면 접을 수 없는 그대에게 어찌 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직도 생과 사의 화두 속에 파묻혀 있는가. 이젠 벗어나 시냇물에 발이나 담구어 보게"라고 답한다. 또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선문답들도 있다. "옛 사람이 '조사의 뜻과 경의 가르침이 같은가, 다른가'를 묻는데 이에 답하기를 '닭이 추우면 나무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로 들어간다'하시니 무엇입니까"라는 후배의 질문에 경봉 스님은 "당나귀가 마르면 털이 덥수룩합니다"라고 답한다.

이러한 편지들은 구절 구절이 하나의 화두이며 시다. 하지만 독자들의 마음을 확 잡아채는 것은 이러한 선문답 속에서 가슴 뭉클하게 풍겨 나오는 고승들의 인간미다.

어린 자신을 절에 맡기고 간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산을 내려가야겠다는 제자의 고민에 대해 경봉 스님은 "피안의 세계는 늘 그리움의 대상을 만들고 지우는 길"이라며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잘 갈무리해라"고 다독인다. 반면 출가를 결심했으나 세상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는 불자에게 "어서 돌아가서 어머님을 공양하거라"며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래도 이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당대의 대표적 수행자인 만큼 수행의 경지를 묻고 답하는 편지가 가장 많다.

첨단 컴퓨터 전송망을 통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보내는 이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를 받아본 지가 오래일 것이다. 이런 시대에 이른 새벽 감로수에 먹을 갈아 한 소식, 한 소식 툭툭 던지듯이 오가는 선문답을 풍경소리와 대웅전 뒤 대숲을 스치는 바람소리 등과 버무려 적은 고승들의 편지 한 장은, 마음을 맑히는 법등으로, 오늘 이곳의 우리를 밝혀준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한암 스님


◇설봉스님이 경봉스님에게 보낸 편지


◇경봉 스님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허공의 몸을 찾아서

간혹 불자들의 집에 가면 큰 서가에 깨끗하게 진열된 경전을 보게 된다. 그 때마다 나는 그 서가를 애써 외면하려고 애쓴다. 그 사람의 정신적 허영을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나부터 포함된 말이지만, 불자들은 경전 읽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불자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할 '부처님 말씀'을 멀리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가 방대함이 아닐까.

불교는 다경전 다방편의 종교라고 한다. 경전의 종류도 많고 중생을 깨우치게 하는 방편 또한 다양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왜 경의 종류와 방편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취미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간단하다. 불교에는 근기(根機)라는 말이 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



경전바다 항해 초심자·일반인 든든한 길잡이

에 그 근기에 맞는 여러 종류의 경전과 방편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놓고도 경전마다 여러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초심자의 경우 이러한 방편 설법을 잘못 접근하면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맥을 짚는 것이다. 하지만 초심자나 일반인의 경우 맥을 짚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불자들에게 지명 스님이 엮은 경전 이해의 지침서 〈허공의 몸을 찾아서〉(불교시대사)를 권해본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요 경전의 핵심부분만을 찾아 알기쉽게 풀이해 놓았다. 많은 경전을 다 읽을 수 없는 불자들에게는 훌륭한 다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철저하게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게 엮었다는 점이다. 불교를 전공하는 학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불교입문서다. 그래서 복합적인 교리가 담긴 것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간추려 엮은 것이다.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속에 담고 생활의 지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다. 우리 사회에는 불자들은 많지만 불법을 올곧게 배우고 실천하는 참 불자는 드물다. 지금 '부처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여 참나를 찾아보자.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동양서법 정수 '조상제기'



이봉준 지음

'위비의 서법예술'

중국 남북조시대의 주요 비문을 모두 집성한 〈위비의 서법예술〉(이화문화)이 나왔다.

위비서법(魏碑書法)의 탄생에서부터 특징, 근현대 위비 서가 및 작품소개, 서법 학습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돼 있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용문석굴의 조상제기(造像題記) 도판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고대에는 흔히 암벽이나 돌에 감실을 만들어 불상이나 경을 새겼다. 이처럼 부처님 상을 조성해 놓고 옆에 쓴 비문이 바로 조상제기이다. 이 책에는 동양의 서법 가운데 정수로 꼽히는 위비서법을 알 수 있는 용문석굴 조상제기 가운데 '시평공조상기(始平公造像記)', '원상조상기(元詳造像記)' 등 대표적 도판 20품이 실려 있다.

엮은이 이봉준 씨는 "위비의 서법은 서법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해서의 진수인 위나라 해서, 즉 남북조 시대의 각종 비문 묘지명 등을 바로 이해하자는 데 이 책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값 5만원.

김중근 기자

청견스님 지음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절하는 법을 가르치는 청견스님.

부처님과 하나되는 절 수행

절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절 수행 지침서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붓다의 마을)이 나왔다. 글쓴이는 현재 양평에 재가불자 전문수행도량 법왕정사를 개원, 매주 토요일마다 수행법을 지도하고 있는 청견스님. 스님이 책을 내놓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불자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절을 하다 노년에는 관절염 등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부터다. 그 후 스님은 효과적인 절법을 터득하기 위해 절수행 3년 결사를 시작했다. 이책이 그 결과물이다.

불교수행의 길잡이 첫 번째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글쓴이가 터득한 비법인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으로 호흡에 의한 수행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어 2장에서는 절 수행을 해온 불자들의 체험담을 통해 독자들에게 절 수행의 의미와 효과를 깨우쳐 준다.

한편 글쓴이는 〈염불 독경 수행법〉, 〈참선 수행법〉, 〈와선 행선 수행법〉, 〈도인 체조법〉 등 불교수행의 길잡이 시리즈를 계속해 내놓을 계획이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친근한 해탈의 가르침

정찬주 지음 '날마다 가슴에…'

우리 삶의 본질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동떨어지지 않다. 껍데기를 벗고 나면 하나다. 우리는 종종 삶과 죽음, 인간관계, 행복 등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지금 이러한 문제에 부딪쳐 있다면 신간 〈날마다 가슴에 새겨듣는 붓다의 말씀〉(양문)을 통해 해답을 찾으면 어떨까.

이 책을 읽다보면 누구라도 부처님의 핵심사상인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깨달음', '사랑', '육체와 마음', '명상', '자신과 사회'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접하고 있는 친숙한 주제들로 갈래를 나눴다. 이를 다시 달과 주로 나누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음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내용들은 모두 〈아함경〉, 〈법구경〉, 〈반야심경〉, 〈금강경〉 등 낯익은 경전에서 가려 뽑은 것들이다. 하지만 그 문장은 한역 경전과 다르다. 인도 고대언어인 산스크리트 문장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비교종교학자인 앤 밴크로프트가 영역된 불경들 가운데 엄선한 구절들을 모은 〈The Buddha Speaks〉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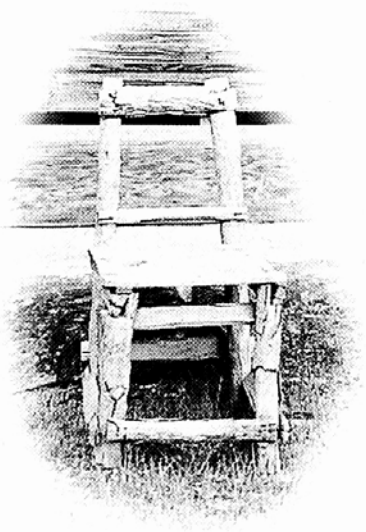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은 정 희	일 지 사
3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4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5	이른 아침에 나를 기억하라	틱 낫 한	지혜의 나무
6	산사에서 부치는 마음의 편지	명 정	좋 은 날
7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 상 섭	컬처라인
8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9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10	한국 역대 고승의 다시	무 산	명 상

도서 안내:(02)737-0695

누구라도 붓다를 닮아 해탈에 이른다



가슴에 다가오는 친근한 붓다!

붓다의 바탕이 되는 가르침은 가능한 한 남을 돕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붓다는 자비와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한 마음과 깨인 마음이 곧 해탈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

이 책을 작업하는 동안 내내 붓다의 참모습에 감동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나는 내 눈에 들어와 있던 붓다라는 흐릿한 피사체가 이 책을 통하여 아주 선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실체를 모호하게 했던 결막이 사라지고 생생한 모습이 망막에 투사됐을 때의 기쁨이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엮은이의 말〉 중에서

날마다
가슴에 새겨듣는
붓다의 말씀

정찬주 엮음



4×6 양장, 값 7,500원

정찬주

불교소설 전문작가로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만해 한용운 님의 전기소설 《만행》,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집필한 《그곳에 부처가 있다》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는 《암자로 가는 길》,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암자에는 물 흐르고 꽃이 피네》가 있으며, 현재 '암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로 있다.

이 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다

혼란스럽고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늘 맑고 새로운 정신을 솟아나게 해주는 책!

달라이라마, 틱낫한, 잭 캔필드, 게리 스나이더, 조애나 메이시 같은 불교계의 위대한 스승들이 선방이나 명상센터에 국한된 불교가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하는 불교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평범한 사람들도 불교의 관점과 지혜를 일터와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신국판 | 틱낫한 외 지음 | 값 9,2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7층
전화 02-722-7182 팩스 02-738-6167
yang

'진심직설' 지눌 저술맞나? 서지·사상 논쟁 뜨겁다

한국 선서(禪書)의 백미 〈진심직설(眞心直說)〉이 보조국사 지눌(1158~1210) 스님의 저술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식(서울대 강사) 박사는 11월 25일 보조사상연구원의 제4차 선전연구발표회에서 "〈진심직설〉의 저자는 12세기 금나라 정언(政言) 스님"이라고 주장했다. 최 박사의 주장은 학계의 통설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진심직설〉의 새로운 판본(1598년 중국 개원사 편찬)을 발견하고, 판본 비교와 같은 서지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발표회에 참가한 최연식(서울대 강사) 박사, 김방룡(영산원불교대) 교수, 이덕진(고려대 강사) 박사, 김종명(서강대) 교수의 입장을 정리했다.



中 금나라 정언선사 저술 가능성

최연식 박사 〈진심직설〉은 18세기 이전의 한국 문헌에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이 책이 처음 발견되는 명나라의 대장경에서는 저자를 '고덕선사진심직설(古德禪師眞心直說)'로 기록하고 있어 지눌의 저술로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새롭게 찾은 중국 개원사 판본(1598년·도서번호 古M1798-17)에서는 〈진심직설〉과 함께 부록으로 〈계초심학인문〉을 수록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심결〉 앞에 〈진심직설〉을 놓는 등 명나라 대장경과 편찬체계마저 다르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헌을 토대로 〈진심직설〉의 진짜 저자를 추론하면, 북경 근처 담자산 용천사 주지를 지낸 금나라 때의 정언 선사로 볼 수 있다. '진(眞)'과 '직(直)'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옛 판본의 특성상 그의 저술목록에 보이는 〈진심진설(眞心眞說)〉이 〈진심직설〉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심결' 등 다른 저술과 사상 일치"

김방룡 교수 〈진심직설〉을 보조의 저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책은 11개의 판본이 있는데, 명나라 지욱이 찬한 〈열장지진〉에는 조계산 노납 지눌이라 표기됐다.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진심직설〉은 강건기(전북대) 교수가 밝힌 바(보조상연구원 학술발표회, 10월 28일)와 같이 보조의 돈오점수 사상체계를 따르고 있다. 마음이 부처임을 확인한 후 닦음의 길을 가야한다는 '해오(解悟) 후 점수(漸修)'의 과정이 표현돼 있다. 또한 이타행을 강조하고 있는 면은 지눌의 다른 저서 〈수심결〉과 〈절요〉에 나타난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심직설〉에 수록된 많은 인용 구절들이 보조의 다른 저술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진심직설〉의 서문에 나오는 '道不屬知不屬不知(도는 앎에 속하지 않으며 알지 못함에도 속하지 않으니)'는 〈수심결〉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실재론적 표현 지눌의 사유 설명 어렵다

이덕진 박사 지눌의 마음 이해는 전적으로 반실재론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진심직설〉에는 진심의 본체는 인과를 초월한다' 등 실재론적인 표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지눌 사유체계 내에서 설명되기 힘들다. 또한 다른 저작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승조가 5회나 인용되고 있다. 7천128자 정도의 〈진심직설〉에 '승조'라는 법명이 5회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지눌이 승조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눌의 다른 저작에서 본다면 이 정도 빈도의 인물로는 규봉종밀, 대혜종고, 영명연수 정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면 지눌은 승조를 왜 다른 곳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지눌 사유체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진심직설〉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눌 사유체계는 〈직심직설〉을 빼버리면 더 명료해진다.



'점수' 강조 지눌 사상 그대로 담겨

김종명 교수 지눌 사상의 핵심은 돈오점수이며, 〈진심직설〉은 '점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 '무심(無心)'을 실천하는 열 가지 방법을 설명하면서 '행(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눌 사상의 정점인 '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열 가지 방법' 중에는 주관과 객관에 대한 바른 관찰을 통해 존재에 대한 분별심을 없애는 방법과 근기별 수행 방법을 제시하면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할 것을 강조한 데서는 지눌의 사상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진심직설〉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지눌의 다른 저술과 일치하고 있으며, 인용된 구절에 있어서도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진심직설〉의 저자를 지눌로 간주하고 있는 김방룡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㉚ 홍경의 선암사·은하사 편액



◇부산 선암사 종무소의 〈선암사〉편액.



◇김해 은하사 선정당의 〈서림사〉편액.

선 암 사

민판에 글씨만 음양각

서 림 사

액판 흰색 글씨 검은색

홍경 장륙(弘經藏六·1899~1971)은 경기도 양주군 출생으로 24세에 건봉사(乾鳳寺)에서 철우 대후(鐵牛大吼)를 은사로 득도하였고, 27세에 동선 정의(東宣 淨義)를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이후 그는 건봉사에 머물다가 35세 되던 해에는 예산 정혜사(定慧寺) 만공 월면(滿空 月面)의 문하에서 처음 안거를 시작하여, 각지의 선방을 돌며 선리 참구에 전념하였다. 그는 조계종 경남종무원장과 통도사 주지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노경에 이르러는 김해 청량사에 머물렀다.

홍경은 본시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유학에 능통하였다고 하는데, 그가 즐겨 썼던 청(淸) 하소기(何紹基) 풍의 글씨도 서법을 익히던 그 즈음부터 배워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통도사에 세워진 그의 비갈에도 그의 서풍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담백한 생애만큼이나 맑은 기품을 지닌 글씨를 썼던 홍경은 김해 영구암(靈龜庵)에 전하는 해서 금강경판목을 비롯하여 부산 선암사 종무소 〈선암사〉, 김해 은하사 선정당 〈서림사〉 편액과 양산 내원사 정려헌, 심우당 주련, 산청 대원사 대웅전 주련 등을 남겼다.

부산 선암사 종무소에 걸린 〈선암사〉 편액은 관지나 도서는 없으나 맥문관주인(麥門館主人) 홍경의 선필(禪筆)이다. 변죽 없는 민판에 글씨만 음양각한 이 편액은 홍경이 김해 청량사에 머물던 시기쯤, 젊을 중수하면서 글씨를 받아 건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운필(運筆)의 절제(節制)와 법도(法度)가 느껴지는 아윤(雅潤)한 품격을 지닌 해서이다.

김해 은하사 선정당 한쪽에 걸린 〈서림사〉 편액은 장식 없는 좁은 변죽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액판을 흰색으로, 글씨를 검은색으로 칠한 것이 특이하다. 이 편액은 인도로부터 온 절의 창건주 장유(長遊)와 관련되어 한 때 절 이름을 서림사(西林寺)라고 불렀던 것에 비롯된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관지와 도서는 없지만 〈선암사〉 편액과 필체와 서풍이 동일한 홍경의 해서로, 당(唐)의 안진경(顔眞卿) 체에서 나온 글씨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송광사 '성보보수 교습원' 연다

재일동포 고주영 씨 보수기술 고국 회향

내년 3월 개원

목조문화재의 보존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원이 들어선다. 전남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는 내년 3월 2일 '불교 성보 보수 교습원'을 개원한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존처리를 담당하곤 있지만 보존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원이 생기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성보 보수 교습원을 통해 불상 등 각종 목조문화재의 보존수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훼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보문화재 보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광사 경내에 들어서게 될 교습원은 3년 과정으로 보존처리 이론과 함께 철저한 실기 위주의 교육을 하게 된다. 처음 1년 동안 불상 데생을 통해 질감을 배우는 과정을 거쳐 점토로 자기 손을 본뜨는 과정을 통해 굴곡과 양감을 습득한다. 마지막으로 불상 등을 직접 조각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시 보수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한다.

교습원 설립은 국보 42호인 송광사 보조국사 목조삼존불을 보존수리하기 위해 지난 5월과 9, 11월 세 차례 송광사를 찾은 재일동포 문화재 보존수리 전문가 고준영(80)씨에 의해 이뤄졌다.

고씨는 "일본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미술원을 설치, 중요문화재의 보존수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물려주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갈고 닦은 문화재 보존과학 이론과 실무를 고국의 후학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은 고씨가 직접 맡는다. 고씨는 30년 넘게 동경 국립박물관내 미술원 국보수리소에서 국보급 문화재 보존수리를 해 왔으며 일본에서도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주지 현봉 스님은 "조금만 신경쓰면 수리를 통해 보존할 수 있는 성보문화재가 그 동안 무관심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성보까지 수리할 있는 교습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습원생 모집 접수는 내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며 불상 데생과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061)755-0107

순천=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선어록 연구 현장체험부터 시작"

한국 온 中사회과학원 왕즈위엔 교수

"중국의 선학 연구는 화두 연구에 집중되어 있지만, 언어적 해석 차원을 넘어 체험적이고 실증적인 게 특징입니다."

11월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대토론회에 참석한 중국사회과학원 왕즈위엔(王志遠·52) 교수는, 중국 불교학계의 선어록에 대한 연구 경향이 '실증적'임을 강조했다.

왕 교수에 따르면, 과거 중국 불교학계는 선어록에 담겨있는 '돈오'에 대한 언어적 해석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결론을 낼 수 없는 '논쟁'만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 불교학계의 연구방법론은 기존의 해석학적 연구와 함께 달마, 승찬, 혜능, 마조, 대혜 등 중국의 대표적인 선사들이 화두를 깨친 곳을 방문해, 그 곳의 환경을 체험하고 '돈오'의 계기를 찾는 것으로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왕 교수는 "중국 불교학은 역사와 철학 연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체험적 연구 풍토에서 비롯됐다"며 "중국불교학을 이끌고 있는 150여 명의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적잖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불교학계는 북경대, 남경대, 북단대 등 10여 개 대학에서 배출하고 있는 국내파 학자와 일본과 스리랑카 등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파 학자 그리고 80년대 말



부터 개원하기 시작한 불학원 출신 스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禪)과 천태(天台)를 연구하면서 〈송초천태불학규표〉를 비롯해 〈불교철학백문〉, 〈선문공안백편〉 등 10여 권의 저술과 6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해 온 왕 교수는 중국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와 중국종교학회에서 중책을 맡을 정도로 중국 불교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왕 교수는 "중국종교학회에서 11월 초 '한국불교문화센터'와 '선문화예술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등 한국불교와 선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두 센터를 통해 한·중 불교학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양국의 불교학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문화의 지역성과 세계성'을 주제로 11월 23~24일 열린 한·중·일 문화대토론회에는 3개국 3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해 '지역문화', '종교문화', '생활문화', '문화산업', '정보문화' 등 5개 소주제별로 토론회를 열고 아시아의 정신문화와 전통적 가치가 21세기 인류와 세계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오종욱 기자

"불교개혁-대중화 이 시대 화두"

회당학회 학술대회

회당학회가 11월 25일 '21C 한국불교의 방향'을 주제로 마련한 학술대회는 "불교계가 시급히 풀어야 할 화두는 개혁과 대중화"라는 것을 일깨우는 자리였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혜정(진각종 종학연구실장) 정사는 "건물 불사와 같이 가시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불교의 미래는 없다"며 "불법으로써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봉춘(동국대) 교수는 "해방 이후 불교계는 개혁과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전통불교의 가치관과 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난제로 남겨두고 있다"며 불교계의 현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원철(서울대) 교수는 "불교의 관용적 태도는, 불교가 여러 종교 속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리와 의례 및 제반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난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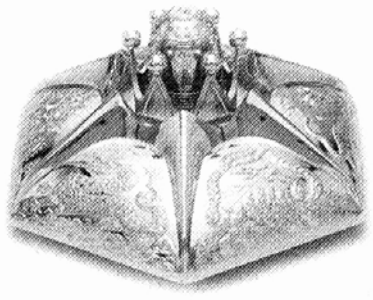
또한 법현(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스님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통일, 환경, 복지 등에 불교계가 더욱 관심을 가지는 한편 세계 불교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 등이 개혁과 대중화를 실현할 지름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기(氣)란 : 현실이다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 방이라 한다.

◀기(氣)의 중요성▶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 육기방에 효험은 좋다는 분들이 많다.

◆ 사용처 ◆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 구입처 ◆ 사찰, 암자, 철악관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 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육기방 수호신장(六氣方 守護神將)◆

좌청룡(靑龍) :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풍수의 학설에 따르면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 천하 4방주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作) : 천하 4방주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북현무(玄武) : 천화 4방주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찬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원컨대 조사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⑩

(9) 육종문(六宗門)을 귀일(歸一)시키다

살바라가 보리달마의 말꼬리를 잡아 퍼부은 공격은 얼핏 보아 논리정연한 듯 싶었다.

"정해짐이 없는 것을 실상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곧 정해지는 것이니 그것은 실상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조사의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해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두 실상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조사께 심가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일러 실상이라고 하는지요?"

보리달마는 점잖게 응수했다.

"빈승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실상은 불변(不變)하는 것입니다. 변한다면 실상이라고 할 수 없지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그런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살바라는 눈이 번쩍 떠지는 것 같았다. 비로소 보리달마가 말한 바의 참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몸을 급혀 큰절을 올렸다.

"조사께 여쭙겠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깨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보리달마는 나직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일렀다.

"실상을 알아야만 비상(非相)을 보게 되고, 비상을 알아야만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매우 현묘한 도리입니다. 이를 현상 가운데서 행해 나가면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살바라는 마음 속까지 환해옴을 느꼈다. 얼른 땅에 엎드려 거듭 큰절을 올렸다.

"조사께서 가르쳐 주신 법을 마음깊이 새겨 두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보리달마 점잖게 응수

살바라는 밖으로 나가 문도들을 모두 불러모았다. 그리고 문도들에게 종문(宗門)을 해산하고 보리달마에게 귀의할 뜻을 밝혔다. 문도들 또한 일제히 보리달마에게 예를 올리고 그 뜻에 따르기로 다짐했다.

보리달마가 온 목적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합장했다. 잠시 후 보리달마의 몸이 한 길이나 솟구쳤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살바라와 문도들은 놀라움의 정도를 넘어 할 말을 잊은 채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그러나 이런 일은 보리달마의 공력에 비추어 아무 것도 아니다. 숨을 모아 족기(足氣)를 움직이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살바라는 즉시 문도들에게 종문(宗門)을 해산한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보리달마에게 귀의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보리달마는 무상종 선관(禪觀)의 산문에 나타났다. 무상종의 승려들은 그가 28대 조사임을 알고 예의를 갖추어 불전으로 모시고 인사를 올렸다.

보리달마는 불전 중앙에 앉아 사방 가득히 들어차 있는 무상종의 승려들을 향해 합장하며 예를 표했다. 그리고 한바퀴 대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은 모두 무상(無相)을 신봉하신다구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무상'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 승려들은 평소에 입으로 무상을 외워 왔지만 그저 그렇다고 여겼을 뿐 그러함의 연유는 알지 못했다. 얼른 대답하며 나서는 이가 하나도 없음은 당연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바라제(波羅提)라는 승려가 나서서 감히 대답했다.

"우리가 말하는 무상은 마음 속에 나타나지 않는 연고(緣故)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리달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웃었다.

"물겠는데, 그대의 마음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상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라제는 서둘러 변론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무상은 결코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것이 있을 때는 있다고 여기고, 마땅히 없을 때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보리달마가 반문했다.

"이미 유(有)와 무(無)가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가 말한 두 개의 '마땅히'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되지 않겠소이까?"

여러 승려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보리달마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했다. 바라제도 자기가 말한 두 개의 '마땅히'라는 말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체면치레는 해야겠기에 억지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무지가 당연한 것인양 강변했다.

"조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불학(佛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삼매(三昧)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 몇 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삼매의 진체(眞諦)에 들어갔습니까? 하물며 우리처럼 무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조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소!"

보리달마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외람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상(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유와 무를 이야기할 수 있겠소. 또한 유와 무를 분명히 모르면서 어찌 삼매를 알 수 있단 말이오."

이 말을 듣자 바라제는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었다. 황급히 땅에 엎드려 몇 번이나 절을 하며 말했다.

"조사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알겠습니다. 원컨대 조사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다른 승려들도 다투어 몰려와 일제히 큰절을 올렸다.

"원컨대 조사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어리석은 저희들을 가르쳐 주소서!"

구름에 몸을 싣고

보리달마는 깊이 생각한 뒤 말문을 열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곳은 오래지 않아 큰 재난을 입게 될 것이오. 여러분은 널리 교화를 행하여 하루빨리 보리를 증득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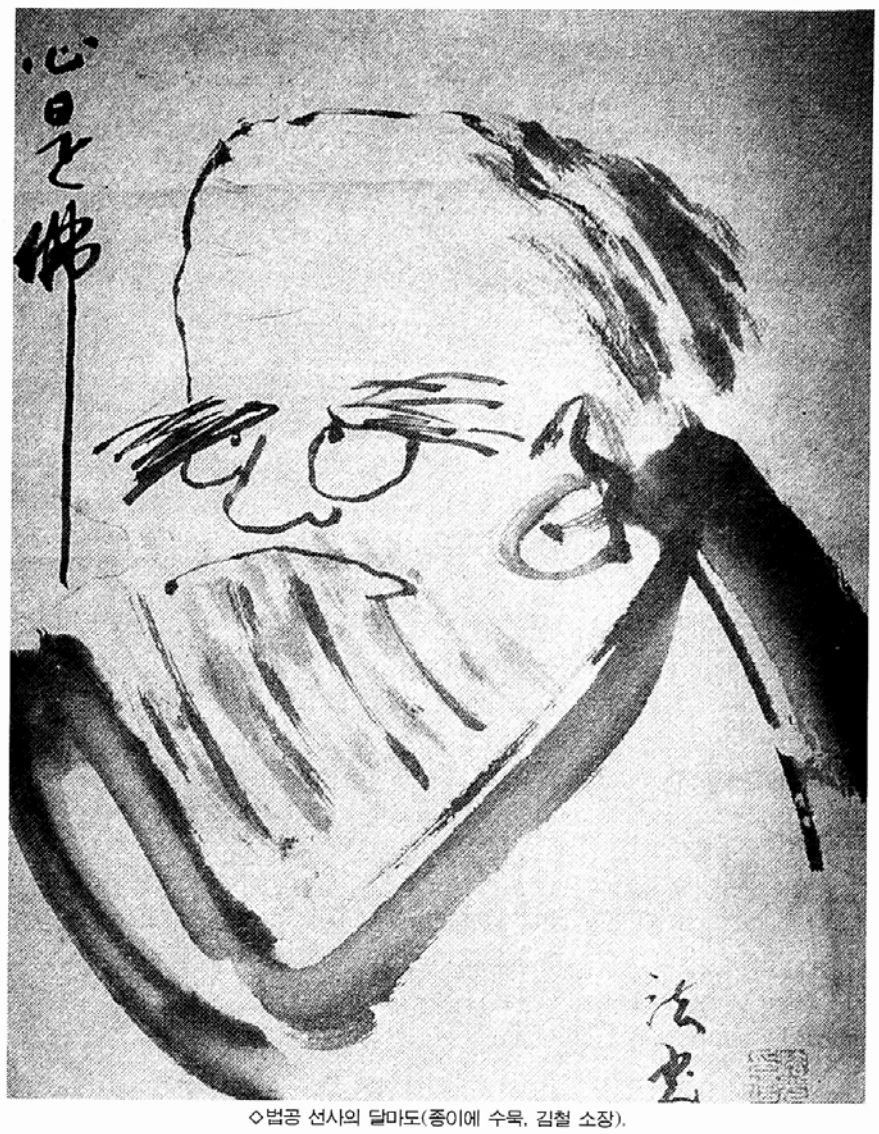
말을 마치자 선관 밖을 감돌던 한 조각의 상서로운 구름이 갑자기 바람에 날려오듯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보리달마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에 몸을 싣고 사라졌다.

모두가 놀라서 기절초풍할 지경이었다.

"정말로 성조(聖祖)이시다!"

법당 안에 있던 승려들은 일제히 엎드려 오랫동안 일어날 줄을 몰랐다.

이런 행적으로 보리달마는 정혜종의 바란타(婆闌陀), 계행종의 현자(賢者), 무소득종의 보정법사(寶靜法師), 정적종의 존자 등 나머지 사대 종문의 수령들을 설복시키니, 마침내 육대 종문 모두가 보리달마의 문하로 귀의했다.



◇법공 선사의 달마도(종이에 수묵, 김철 소장).

> **"이곳은 오래지 않아 큰 재난을 입게 될 것이오 하루빨리 보리를 증득하시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리달마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무상종이 자리잡고 있던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보리달마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갔다. 이로써 남천축의 교화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세월은 흘러 60년이 훌쩍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보리달마는 청봉산의 작은 절에 머물고 있었다. 이 곳은 반야다라를 스승으로 모신 최초의 절일 뿐 아니라 산수가 그 어느 곳보다 빼어났기 때문이다. 중생들을 선공(禪功)과 불법(佛法)으로 교화시키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이미 보리달마에게 귀의한 여섯 종파의 문도들이 모두 이 곳에 와 조사를 모시면서 하늘같이 따랐다.

이 날도 전과 다름없이 장중하게 저녁예불을 올렸다. 본당 안의 보리달마는 방석 위에서 눈을 감고 입정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다. 그 앞엔 여섯 종파의 문도들이 모두 엎드려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입정 상태는 침묵의 교향악을 연주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자아냈다.

감실 위에 켜진 한 쌍의 초에서 갑자기 불꽃이 탁 튀었다.

보리달마가 입정에서 깨어났다. 불꽃 튀는 소리에 놀라기라도 한 듯 탄식하며 소리쳤다.

"도견왕(導見王),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 승려들은 고요함을 깨면서 보리달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도견왕을 부르는 소리에 놀랐다. 모두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혹스러워했다. 일찍이 전혀 그런 일이 없던 조사께서 무슨 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도견왕의 사찰폐쇄

그 동안 남천축의 향지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향지국왕이 서거한 뒤 60여 년 사이에 왕위는 3대째 바뀌었다. 현재의 도견왕은 보리달마의 조카다. 한데 이 도견왕은 비록 이름은 도(導)견(見)이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와는 전혀 달랐다. 조상이 숭상하던 전통을 반대하고 나아가 불(佛)법(法)승(僧) 삼보를 비방하고 훼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신하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했다.

"우리 조상들은 그대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두 불교를 믿어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수명은 모두 길지 않아서 재위한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다. 불교가 아무 위력도 없음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흔히 선악은 반드시 응보가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것은 중들이 마음 속에서 멋대로 지어 낸 것일 뿐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도견왕은 명령을 내려 전국의 사찰을 폐쇄시키도록 했다. 심지어는 선왕의 위패를 모신 절까지도 문을 닫으려고 들먹거렸다.

보리달마에게 이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그는 향지국으로 직접 가서 도견왕을 교화시키고 왕명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조금 전 그가 입정에서 깨어나면서 지른 고함은 바로 그런 내심을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뜻이었다.

보리달마 앞에 엎드려 있던 승려 가운데 바라제와 종승(宗勝)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몸을 일으켜 절을 하며 말했다.

"불법에 재난이 닥친 이 마당에 조사께서는 어떤 결단이 있으신지요? 저희에게 가르침을 열어 보여 주십시오."

보리달마는 지긋이 바라제와 종승을 쳐다보았다. 눈길이 바라제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바라제가 도견왕과 서로 인연이 있음을 알았다. 그를 보내면 도견왕을 설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견왕이 삼보를 비방하고 사찰을 폐쇄하려는 것은 마치 잎사귀 하나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생각을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한다!"

보리달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라제보다도 종승이 먼저 나서서 고했다.

"도견왕을 설복시키는 것은 자질구레한 일입니다. 조사께서 직접 수고하실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불법은 얕으나 제가 가서 설복시키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건강을 사겠습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핀드기, 연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내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원적외선이 하는 일 : 혈류를 촉진하고 효소생성을 부활 시키고 세포를 다시 젊게 하고 지방 분을 배설하여 건강한 젊음을 유지시킵니다.
옥단 902
원앙 202
화조
101 싱글보료
옥스톤
침대의 名家 氣 리빙스톤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아침건강 - 베게가 좌우합니다!
뇌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옥숯베게
▶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깨가 버근 합니까? 베게를 바꾸십시요.
▶ 통풍이 잘되고 세탁도 간편한 옥숯 베게
35,000→12,000원 【택배비는 별도 소박스 3500원】
서두르십시오 부담없는 가격~
※단체 주문 환영※ 침대 3대이상 단체 구입시 특별 할인 가격 우대!! ☎ 02)424-9427 / 2203-7821

"따뜻하게 입고 새벽예불 보세요"

노인불자 겨울철 질환 예방대책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 불자들에게 겨울은 특히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다. 새벽에 찬 바람을 만나면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 심장병과 뇌출혈, 동맥 경화 등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울을 흔히들 '심장 질환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찬공기 쐬면 혈압 급상승
고혈압·심장병 환자 요주의

영재한의원 이만성 원장은 "노인들이 날씨가 추워져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급상승돼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며 "심장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은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이 원장은 "불자들이 새벽 예불에 나설 때면 따뜻하게 보온이 잘되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서야 한다"며 "법당에 들어가서도 금방 옷을 벗고 절하지 말고 체온이 올라가 땀이 날때까지 방한복을 입고 절 하는 것이 심장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해월 스님(공주 불광한의원장)은 "추운 겨울에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기도나 참선 보다는 108배 등 적당히 몸을 움직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건강에 효과적인 기도법"이라고 권한다.

적절한 영양 관리와 운동 및 스트레스 해소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겨울철 질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사찰음식 연구소 이여영 소장은 "고혈압, 협심증, 당뇨와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노인들은 육류를 피하고 담백한 사찰 음식을 먹는 것이 제격"이라며 "두부, 버섯, 채소류, 콩류 등 기름기가 적으면서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게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겨울철 건강에 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변화를 알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만성 원장이 제시하고 있는 겨울철 추위로 인한 신체 변화와 질병 예방 대책을 소개한다.

● 호흡기
△증상: 차고 건조한 공기가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거나 바이러스 등 세균의 침입을 쉽게 한다.
△예방 및 대책: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게 열량 섭취를 충분히 하고 휴식을 취한다. 또 감기에 걸리면 외출시 호흡기내에 찬 공기의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것이 좋다.

● 심장
△증상: 말초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피의 흐름이 방해된다. 또 혈액이 진해지고 지방의 함량이 높아져 혈관 수축이 촉진된다.
△예방 및 대책: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술담배를 멀리한다. 음식에 첨가하는 소금과 간장의 양을 반 이하로 줄이고 빨리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30~40분 정도 주 2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아침보다는 오후 1~3시가 적당하다.

● 관절과 근육
△증상: 근육이 뭉치기 쉬우며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져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방 및 대책: 관절이 뻣뻣하고 아프면 뜨거운 물찜질이나 사우나, 한증막 등이 도움이 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전북불교대 사이버강의
불교인터넷TV와 제휴

내년 신학기부터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수강 할 수 있게 됐다. 전북불교대학과 불교인터넷텔레비젼(www.buddhtv.com)은 11월 24일부터 인터넷 불교 원격강의를 제휴하고 2001학년도 부터 전북불교대학 강의를 온라인상에 개설키로 합의 했다. 이로써 전북불교대학의 불교학과 강좌를 불교인터넷TV와 전북불교대학 부설 사이버불교대학(www.ebuddhism.co.kr)에서 동시에 수강할 수 있다.

이에앞서 불교인터넷TV는 〈선가구감〉-(신원사 벽수선원장 묘봉스님)와 〈승만경〉-(지묵스님) 강의를 4일부터 시험방송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불교강좌는 미국등 해외에서 수강중인 통신반 학생들도 인터넷을 통해 강의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교리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에서는 내년 3월부터 1년과정으로 △〈부처님생애〉〈근본불교〉〈대승불교〉-강건기 학장, △〈불교와의 만남〉-한광수 교수, △〈금강경〉-한탑스님 등의 강의가 동영상과 함께 펼쳐진다. 김주일 기자

주부 신행담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만은 순탄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한낱 오만과 아상에 빠진 나의 짧은 위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로서 15년전 결혼해 별 걱정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오던 나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지기 시작한 것은 97년 10월이었다. 경제한파로 인해 회사가 부도 나자 남편은 다니던 건설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맞벌이 부부도 아니었고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더 큰 현실로 다가왔다. 아가는 아이들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는 자책감에 마음을 접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남편이 실직된지 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져 나라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급기야는 식당에 나가 주방일을 하게 되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식당 문을 열기 전에 꼭 사찰에 나가 새벽기도를 하고 나올 정도로 신심이 깊은 불자였다. 손님이 없을 때 불서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사경을 하거나 독송을 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이런 모습은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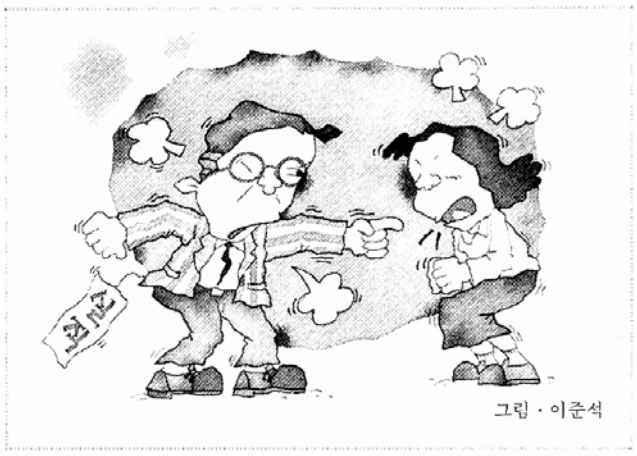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남편 실직 가정불화 잦고…

남편도 20여년간 다니던 회사를 졸지에 잃어버린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매일 술에 빠져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굴었다.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으로 인해 가정 불화도 잦아졌고 몇 년간 저축해 놓은 여유 자금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남편과의 갈등이었다. 평소 착하고 이해심이 많았던 남편은 술만 먹으면 욕설을 해대고 신세타령을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직장을 잃은 충격으로 한두번 그러고 말겠지 하는 마음에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위로를 해주었다. 하지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도 차츰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만 갔다.

6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의 행동은 변하질 않았다. 이혼을 할까도 여러번 생각해 보았지만 나를 의지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는 자책감에 마음을 접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남편이 실직된지 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져 나라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급기야는 식당에 나가 주방일을 하게 되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식당 문을 열기 전에 꼭 사찰에 나가 새벽기도를 하고 나올 정도로 신심이 깊은 불자였다. 손님이 없을 때 불서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사경을 하거나 독송을 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이런 모습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나에게는 무척 생소하게 느껴졌다.

6개월이 지나자 주인 아주머니와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해졌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 자신도 고부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항상 우울하게 살았는데 사찰에 나가 기도를 하고부터는 마음이 편해지고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절에 나가 기도를 하거나 독송 할 것을 권했다.

하루종일 식당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아이들과 시부모님 뒷바라지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 기도를 할 여력이 없었다. 그때가지만 해도 사찰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먹고살만한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계속〉

이민자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⑧

■ 손씻기

'장수의 비결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다'는 말이 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 건강에도 '이것' 만이 단 하나이면서 최고인 비법 같은 건 없다는 말이겠다. 또 그 말의 속내에는, 치료법의 개발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질병에 대한 속수무책의 심정이 담겨 있기도 하다. 심한 과장이긴 해도 진실의 한 끄트머리는



안고 있는 말이다.

지난 호의 이 지면에서도 과장된 어투로 말했었다. 손만 잘 씻어도 오래 사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둥.

그런데 이 쉽고도 쉬워 보이는 '손씻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그것도 자주, 잘 씻기란. 오죽했으면 술이나 도박처럼 재미나면서도 중독성이 질긴 것들과의 결별을 '손 씻기'로 표현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손을 씻는 것이 제대로 된 손씻기일까. 의사들이 말하는 손씻는 요령을 귀동냥해 보자.

▷물로만 씻으면 손 구석구석의 병균들이 다 씻겨나가지 않으므로 가급적 비누를 사용하라. ▷찬물에는 비누가 잘 풀리지 않고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하는 지방을 많이 앗아가므로 미지근한 물

병균 잘 씻어 내려면
미지근한 물 비누 사용

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세게 마찰하면서 씻어라. 손가락 사이는 양 손가락을 깍지끼듯 한 상태에서 비비기를 반복하라. 마사지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손톱 주위는 더 공을 들여 씻어라. 그래야만 정성들인 손씻기의 보람에 때가 끼지 않는다. ▷비눗기를 뺀 후에는 흐르는 물로 행구되, 손가락을 아래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손가락 끝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라.



◇27일 열린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식에서 이인자 원장이 창립취지문을 낭독하고 있다.

여성불자 지위향상 기대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식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7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창립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원택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스님,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여성개발원이사장 정련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 불자의 신행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여성불자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성 불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연구하는 구심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기조 연설을 통해 "여성 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화 시켜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주는 조직이 없어 항상 아쉬웠었다"며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불교 여성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여성 불자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백도수 연구교육 위원장의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발표와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의 창립취지문 낭독, 이우정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장의 축사 등도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생명식의 으뜸은 生 - 선식이다

물없이 씹어 먹을 수 있는 자연식 식사 - 생선식이 으뜸


生 - 선식 연구원
원장 : 김 영 생

【선식을 먹으면 몸이 변하는 현상들】

특허상표 출원번호 2000-40253 특허상호 출원번호 2000-21890

· 제 품 명 : 生 - 선식
· 원 산 지 : 강원 화천
· 영업허가 : 화천 제1-17호
· 성분 및 배합 :
곡류 80%, 꿀 20% , 빨간팥 1, 흑쌀 5, 검정깨 2, 조 5, 율무 5, 찰현미 5, 쑥 1, 수수 5, 땅콩 1, 홍화씨 2, 흰콩 1, 송화가루 2, 호도 1, 보리 5, 파란콩 1, 얼룩팥 1, 찰흑쌀 5, 기장 5, 흰깨 2, 찰옥수수 5, 잣 1, 호밀 5등

1. 빠지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줄어들지 않은 신체 각 부분들이 확실하게 변합니다.
2. 몸에 막히고 쌓이고 뭉친 노폐물들이 뚫어지고, 빠지고, 풀어집니다.
3. 세포들을 젊게 재생하여 곱고 깨끗한 피부와 얼굴을 만들어 주며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4. 무거운 몸과 머리가 가벼워 지고 맑아집니다.
5.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차기운 몸과 손과 발 등이 따뜻해집니다.
6. 알레르기로 인한 거칠고 가려운 피부와 코막힘 등이 호전됩니다.
7. 새로운 기운과 힘을 만들어 피로함이 없어집니다.
8. 성장기의 두뇌활동이 좋아지고 건강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 포장단위 : 한달분 450개 (1.8Kg)(1개-4g) · 유효기간 : 6개월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 혹시 환에서 벌레가 생겨도 이상이 없으나 환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제 조 원 : 상기원/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350-2
· 보관방법 :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무료전화 : 080-737-0044 · 소비자상담실 : 02) 723-4463~4
· 서울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 소비자가격 : 490,000원



휴대용 식사대용

비만쏙쏙 ↓ 체력쏙쏙 ↑ 체질싹싹

上氣元

※ 맞춤선식 - 몸(체질)에 맞는 선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天蓬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9114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둘 아니게 보는 사람은 누구도 손 못대

오늘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또 하셨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만 한자리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급하면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열도 되고 스물도 되고 백도 되고 하면서, 그 백이 하나로 이룹니다. 그것을 똑바로 아셔야만이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걸림이 없고 급하게 문제가 생길 듯 해도 그거를 해체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스님네들이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집안에 일들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고 또 선조들도 그렇고 영령들도 그렇고 타의의 영령들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 소관을 잡아 나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영령들도 산사람 잘못 생각하듯이 잘못 생각하면 남의 집을 망쳐놓고 남의 회사를 망쳐놓는 수가 많거든요. 산 사람속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겉탕 산 사람이 그냥 다니며 한다고 그러지만 때로는 다른 분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관하라 관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색색가지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랴 이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색색가지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안되겠는데...' 하고 생각이 되고 어떤 때는 감이 잡히고 안될 징조가 보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모르는 이치를 알게 하는 거고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려고만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알고 먹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부처가 될 수 없는 이치가 있듯이, 부처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도 행을 그대로 해 나가면 보살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니까 그대로 부처님이십니다.

관하면 걸림없이 살아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가정이 편안치 않으면 사람이 기가 뛰고 혈관이 막힙니다. 잘 생각하셔서 편히 살고 아무 일이 없어야 편하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하지 않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지 않더라도 중간에서 해체를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구석구석 알지 못해서 딱 닥치면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닥치면 무슨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유없이 걸림없이 해결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써야 합니다. 우리가 컵 하나를 누구에게 줬으면 컵이 꼭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불씽한 사람을 줬는데 그 돈이 어느 틈으로 길을 찾아서 자기한테 다시 그 돈의 몇 배가 오더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렵게 되고 못살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움죽거리게 되니까요. 마음뿐이 아니라 몸까지 움죽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하라고 하면 진짜로 믿고 관했다. 큰일이 날 일인데 주인공에 관하면은 될까 하는 믿지 못하는 생각도 없이 급하니까 그냥 관한단 말입니다. 관할 때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즉시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즉시 해체할 분들이 나서서 여자가 가야만 될 일이라면 여자로 화해서 가시고 남자가 가야 된다 하면은 남자로 화하시고 노인네로 가야 된다 하면은 노인네로 화하시고 또 물에 광인이 있다 이런다면은 용신이 돼서 거기 끼여서 가시고 지신도 끼여서 가시고 풍신도 끼여서 가십니다.

여러 가지가지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아주 복잡하지 않고 그냥 놀이 가듯 가서 척척 그냥 하시면서 생각을 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에 관하면, 여기서 더 말을 하게 되면은 헷갈릴까봐 지금 내가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을 타고 가시나, 보이지 않게 축지법으로 가시나, 보이지 않게 정신계에서 가시나 하지 마시고, 진짜로 믿고 결정을 지었으면 떨어지자마자 벌써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승이 문밖이라 한 발자죽입니다. 한 발자죽. 해결의 정책이 완벽하게 섰다 하면은 벌써 그것도 한 발자죽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해결하시는 문제까지 삼세를 같이 볼 때에 삼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하다가 보면은 그 일은 해결을 못하고 망쳐버리는 거죠.

누가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을 제가 합니다.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없고 대신 아파주는 사람도 없고 죽어주는 사람도 없고 먹어주는 사람도 없고 변소에 가주는 사람도 없고 잠을 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걷는 것입니다. 이걸 절실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렁더렁 어렁더렁 인연 따라 만나서 한 식구라고 살다가 보면은 못할 말도 못하고 할 말은 할 말대로 못하고 또 할말이라도 좀 안될 일이 있으면은 하지 못하고 누구나가 다 자식한테도 할 말 다 못하고 부모한테도 다 못하고 부부한테도 다 못하고 이렇게 어렁더렁 살다가 그냥 보이지 않는 신 아닌 신 한짝 남기고 그냥 다 없어집니다.

달마 대사가 왜 주장자에 신 한짝을 걸아 봤느냐. 신이라는 것은 방편이지만은 배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요다음에 또 다시 태어날 때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정신계에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자불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 주장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곳간에, 그 주장자가 어떠한 일로 쓰였는지 또 뭐를 했는지, 누구를 줬는지, 해결을 했는지, 또는 딴 사람한테서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 이유가 다 걸림없이 써 있거든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아주 쉽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항상 공식으로 하는 문제를 공으로 얘기합니다. 공을 던지면 공은 튀어오게 돼 있다고요. 공을 던지면 반드시 그 공은 튀어오게 돼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깐 모두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도 둘이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는 그냥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생시에는 몰랐다가 죽어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때버리는 사람, 즉 말하자면 갈라놓는 사람이라면 싸움이 되고 잘못했으면 걸리고 문제가 되지만 한데 합쳐놓는 사람 앞에는 누구도 손 못댑니다. 그거는 조상들뿐만 아니라 귀신도 그렇고 영령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볼 때 남의 자식 내 자식 따로 생각하죠? 그런데 어머니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때 어머니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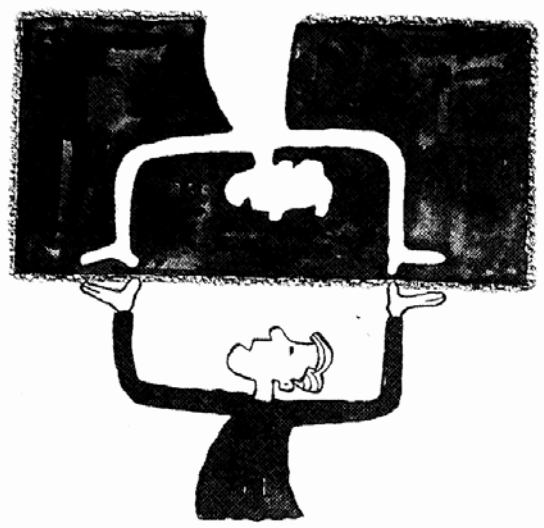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로 인해 생긴 문제 남탓 말고 모든 걸 자기 주인공에 놓으세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애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부모들도 똑같고 자식들도 똑같애요. 네 자식·내 자식이 따로 없단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마는 그렇게 많이 계셔도 실천을 하는 분이 몇 분 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실천은 하려고 무척 애쓰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한 두 분이 아니겠죠. 그것을 여러분 자신만 아시는 줄 알지 마세요. 하다 못해 댓돌에 내려가면 나무도 '우리집 보살님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시지'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목신이 되시고, 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석신이 되시고, 어느 거 하나 생명 없는 게 없고 움죽거리지 않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보살이 시아버지가 나라 일 때문에 죽게 됐는데 어떻게 건질 수가 없더랍니다.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묻혀 있는 돌 있죠. 돌을 서너 개 생각을 하고 화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생각을 하니까 화해지는 거죠. 화해서 사람이 보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보는데 들어가서 문을 열고 건져내 왔더랍니다. 그리고 문은 그대로 잠궈 봤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나중에 그 일이 해명이 돼서 숨었다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 살렸답니다. 그런 며느리도 있어요. 그러니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지만 그걸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좀 다만 얼마라도 있을 때 길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든가 다니면서 부모가 없어서 얻어먹는 애들에게 돈을 주고 지켜보니까 돈을 가서 다 뺏기고 난 뒤에 저녁 한끼니 우동 한 그릇 사 먹입디다. 왕초가 있더군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줘서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든지 그 길을 빠져나오게 해서 저절로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람노릇을 하고 살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탁 털어서 줘야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고 언제 쓸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못 줍니다. 절대로 못 줍니다. 돈 쓸데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다 없앱니다. 지금 이 일이 더 급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건 남의 일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급하니깐 빼줬다. 그런데 주머니가 비었으니깐 그 이튿날 저녁에 쓸 돈이 또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믿지 않을런지 모르시겠지만 자불이 알고 있으니깐 다 갖다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앨 쓰지 않는, 돈 때문에 앨 쓰지 않는 사람이 갖다 주게끔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금방 자식들하고 죽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 또 줄 수 있는 겁니다.

가르지 말고 합쳐라

우리는 여러분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는 다 받지만 주는 거는 몰래 하는 일이 많습니다. 몰래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많죠. 내가 만약에 가난해서 그 돈을 좀 받아 가는데 그걸 전부 알려 놓으면은 미안해서 어떻게 또 발을 댑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깐 여러분도 그렇게 하든 못하든 마음은 좀 더 넓고 둥글게 쓰시라 이겁니다. 마음을 둥글게 쓰시면 자식들에게도 내려가고 그냥 대대로 물결 흘러서 내려가듯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뭐 받아라 안 받아라 이걸 떠나서 그냥 받게끔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좀 새겨서 더 크게도 만들고 더 길게도 만들고 둥글게도 만들고 아주 딴판하게도 만들고 푸석하게도 만들고 다 씀씀이에 걸림없이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드세요. 그렇게 되면 아주 대대손손 아마 걸림없이 잘 사시게 될 겁니다. 죽어서 눈감지 못하거나 자식들 때문에 눈 감지 못하거나 죽어서도 피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점은 없을 겁니다.

질문1: 관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여섯가지 감관으로 인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들을 원래의 맑은 마음에 귀의하고 그 문제의 본질 즉 진실을 알아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관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나가다보면 마음은 편안한데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고, 생각은 나는데 행은 따르지 않고, 또 작은 것은 돼도 큰 것은 안되는 그런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것마저 모두 녹이고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여섯가지라고 해서 몸 하나를 놓고 가짓수를 따진다면, 어떻게 다 이루종차 따지겠습니까? 그건 찰나찰나하는 일들에 맞지 않아. 그리고 몸 속에서 고치는 거지 바깥에서 고치는 게 아니야. 바깥에서는 좀 근력을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게 먹는 음식을 대 주는 거지. 그 병에 그 음식이 필요하니 그것을 해 줘야 좋은데 그렇게 잘 맞게 끔 하는 사람도 없어요. 눈만 뜨고 살았으면 그냥 줄창 사는 줄 알고 그러다 죽으면 고생을 하다 죽었다고 이러거든. 고생을 하다가 죽은 것을 알면은 고생을 할 때에 고생없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될 거 아니냐 이거야. 여섯가지를 숫자로만 알려고 하면 벌써 그건 껍데기만 풀럭거리는 소리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현상이야. 단 한 발짝을 떼어놓더라도 떼어놔야 발자죽이지.

질문2: 일체 모든 것은 나로부터였고 모든 현상은 제 탓이었습니다. 제 발로 갔고 제 손으로 찍었고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나가고 나니 드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하면서도 일순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었고 또 제 자신도 많이 힘겨웠고 고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된것은 너무 뜻밖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저는 작년에 부동산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타의의 돈과 저의 일부의 돈 몇억을 길거리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제가 잘못된 일이라면 분명히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건대 법작으로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얽혀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제가 한 거였기 때문에 누굴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 크신 한마음 내 주십시오.

스님: 그런데 그렇게 참회를 하고 살고 이해가 되고 그런다면 조그만 거와 큰 거와 바꿔놓으면 되잖아. 한 번 생각해 봐요. 바꿔놓고 보면은 바꾸기 전에 사람들이 서너 사람이 동원되겠지. 바꿔지면은 몇 푼 안 들어가고 찾을 수 있잖아.

하여튼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량은 바로 본인이 얘기했듯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각자 모두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을 남의 탓을 해서 되나?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거를 놓도록 해요.

질문3: 저는 힘들 때 이 절 저 절 다니면서 스님들께 길도 많이 묻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다보니 백일기도 회향에 더불어 모든 것을 제자리 잡아갔습니다. 제가 이 선원에 온지 얼마 안되는 초심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당시에 경계를 겪었을 때 지극하게 관음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과 지금 내면으로 주인공을 관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부디 하근기의 중생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이 중생으로 하여금 주인공 자리를 잡고 마음공부를 끈기있게 끝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스님: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맨 끄트머리에는 공생인 거를 알게 돼, 공심인 것도 알게 되고 공체라는 것도 알게 되죠. 사람뿐이 아니라, 전부 알게 돼. 공용이라는 거를 전부 알게 되고요. 내가 움죽거림으로써 네가 움죽거리고 네가 움죽거려 주는 게 있으면 내가 너를 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살고 있다는 사실. 전부 공용으로 살게 되고 공식으로서 사는데 일체만법을 내가 어찌 들이고 내는 거를 알았으리까 하는 이치나 같애. 그래 일체만법을 들이고 내도 조금도 걸림없이 들이고 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찾았는데 관세음보살 다르고 주인공 다르냐 이거죠? 그런데 지장하고도 둘이 아니고 관세음하고도 둘이 아니고 용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허공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지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석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생명이 있다 하면 둘이 아니야. 그래서 모두가 공체고 공심이라는 겁니다.

마음 넓고 둥글게 쓰라

그러니까 그 뜻을 알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자불, 자성불을 불렀다. 자성불이 있으니깐 관세음이라는 이름도 알았지 내가 없다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벌어진 거고 다 알게된 거고 또 아는 도중에도 이름이 많다 하더라도 일불이라는 거를 알게 되죠. 이름은 수없이 많으나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부분이 따로따로 돼 있다. 부엌일 따로 있고 마루 훔치는 거 따로 있고 방 훔치는 거 따로 있듯이 말입니다. 따로 있기는 하나 치우는 것은 한 사람이 다 치우듯이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은 부처님의 이차적인 이름이야. 방편엔. 그래서 부처님 대리로서 응신으로서 응해주시는 것이 보살의 응신이야. 그러니 자기의 자성불하고도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자성의 모습도 이 모습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하죠. 이렇게 되면 정말 도인 되겠네. 허허허.

열심히 하시면은 정말 도인 아닌 도인이 되죠. 그럼으로써 편안하게 웃고 살 수 있고 한번 쳐다보고 농을 한번 할 수도 있고 한번 내려다보고 빙긋이 웃고 즐거워할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옆으로 보니 굴러가고, 모로 보니 모로 가도 굴러가고, 뭐 굴러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고 찰나찰나 떼어놓지 않는 게 하나도 없으니 자기 자체도 그냥 모가 져서 있는 아니고 말이야. 따지고 보면은 이걸 못 봐서 그렇지 퍼뜩퍼뜩 찰나찰나 뛰는 거나 같애요.

질문3: 스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부자라는 게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야. 공식(共食)으로서 다 알 수 있어야 진짜 부자지. 열심히 노력하세요.

질문4: 저는 조상님과 주인공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너무나 많은 감로법을 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6살 먹은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두 누나들처럼 말도 하고 잘 해줄 것이라 믿고 살았는데 다른 아이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요즘에 현대병이라고 할까요? 자폐쪽이라고 했습니다.

☞ 20면으로 계속

가족도 언덕을 넘지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共食으로 만법 들이고 내는게 불법

☞ 19면에서 계속

그런데 가능성이 반반이래요. 그러는 와중에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집안에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더불어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엄마지만 어떻게 해줘야 할 줄도 몰랐었고 한생각을 어떻게 낼 지 몰랐습니다. 그럴 때 그냥 내가 이거야 저거야 하면 문제가 너무 많이 제게 다가와 저를 살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이들하고 그냥 땅 끝으로 가고 있더라구요. 다 비우고서 사는 게 뭔가 하면서. 그러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아주 희망의 빛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서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그냥 놓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는데 '봉탑을 해야지. 조상님과 주인공이 둘이 아니잖니.' 이러면서 아, 갑자기 너무나 강하게 저에게 왔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준비된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원에 올라가 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막내거든요. 위에 형님이 천주교를 다니시니까 사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고 그냥 무심히 다니고 했었는데 너무 강하게 와서 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성불과 둘 아닌 도리

숙제를 내 주시더군요. 그 동안 법당으로 날이면 날마다 그냥 아침에 올라가는 게 어느 순간 제 생활이 돼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그냥 한번 인연이 됐던 분들은 다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또 스님을 찾아뵈었더니 그 자리에다 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저희 집에 밑도 끝도 없이 스님 두 분께서 오시겠대요. 저는 아무 준비도 없는데 꼭 오셔서 공양을 하신다고 하기에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여자 네 사람에게 시키더라고요 제가. 밥을 하라고 그러는데 밥 두 그릇만 달랑 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갓 쓰는 남자 어르신들이 한 네명 정도가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밥을 먹고 가야 되겠대요. 그런데 밥이 두 그릇밖에 없거든요. 그러는 찰나에 그냥 상이 여지없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데 스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서 다시 다른 교자상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그것을 다 드시고 숭늉까지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꼭 드시고 가신다고 하기에 제가 옛날 아궁이에 불때는 데다 밥을 해서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할머니가 오셔 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밥을 해 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한번은 아이들이 밥을 해 달래요. 그래서 또 밥을 해 주고 옷까지 해서 주고 나니까 저에게 막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서 동시에 아이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앉을 자리 설 자리 배워가면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찰나찰나 스님께서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법당에도 다녀가고 .

스님: 그래 공부하는 사람은 보살님뿐만 아니라 법당에 오면은 부처님 모습과 자기 모습과 둘 아니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노래도 만들어 놨죠? 둘 아니게 하세요. 둥글게 하시면 그냥 그냥. 절을 일배를 한다 하더래도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 아닙니까. 부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둘이 아닌 까닭에 공용으로 할 수 있다.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할 수 있다. 공식이라는 것은 세상만사 다 겸해서 말하는 겁니다. 요만한 거 하나 버림없이. 그래서 공식으로서 만법을 들이고 내고 하는 도리가 바로 우리들의 법이며 또 보살의 법이며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다고 해서 누구한테나 바깥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말고 내면에다 묻고 내면으로 배우세요. 바깥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4: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해 나가면은 전자에, 형님들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그랬나요?

질문4: 네.

스님: 천주교를 믿어도 주처를 안에다 놓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그렇죠.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을 믿든지 간에 내면으로 진짜로 믿으면서 하셔야 되죠. 그러고 걱정 근심으로 하지 마시고 금방 내일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오늘 웃으면서 사세요.

질문4: 영탑에 조상님을 모실려고 합니다.

스님: 보살님 마음 탑에 먼저 해요.

질문4: 예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니깐 스님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가톨릭을 믿는 사람도 밥 먹여서, 바깥으로 믿기 때문에 그 상을 치워버리지 않았어요? 상을 치워 버렸거든. 그래서 상을 치워버리지 않게 하는 도리가 바로 봉탑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둘 아니게 하는 것이 봉탑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실천을 옮길 수 있어야만이 조상들도 다 봉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거죠.

질문4: 그리고 여섯 살 먹은 아이가 요 엄마, 잘 다녀오래요.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말고 애를 데리고 절에 한 번씩 다녀 가시고 그러세요. 보면 보는 대로 배울 게 많을 테니까요.

질문5: 저는 서울여대 불교 학생회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전에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언제나 밝으신 아버지셨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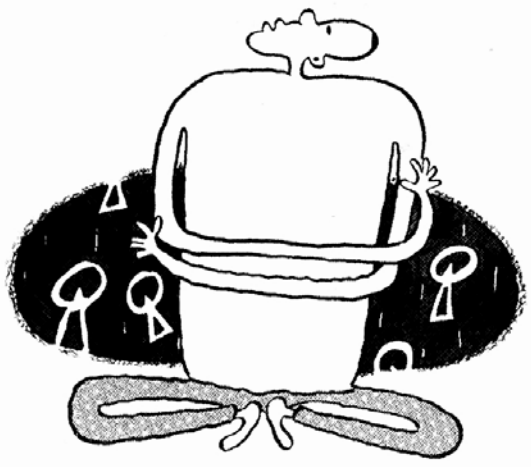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도 우리와 둘 아니고
道의 이름도 둘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에 道 있어요

저에게는 그 사실이 좀 믿기지 않았거든요.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집에 가는데 그 때마다 많이 마르시고 복수가 차서 아버지를 뵙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못살아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요즘에 아버지가 마음공부 하는데 약간의 회의를 가지신 것 같애요. 동생이 요번에 수능을 봤는데 아버지가 관을 많이 하시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많이 마음을 내셨는데 점수가 아버지가 바라시던 만큼 좋지 않아서 요즘에 많이 마음공부에 회의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을 해야 하며 아버지를 위해 저나 저희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관을 해야 아버지의 병이 빨리 쾌유될 수 있는지요.

스님: 아버지가 마음공부에 회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듯이,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살지 뿌리가 없으면 못살아. 우리 사람도 같은 거야. 그래서 달마대사도 모두 알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도 신 한짝은 거기 두고 한짝만 주장자에 걸고 나오셨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와 같이 신 한짝은 항상. 자기 생명력이 붙어 있어서 살 듯이 항상 있어. 죽어도 그건 있는 거고 살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진짜로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그냥 나를 패대기치고 믿으시라고 그래. 나란 모습은 누구나가 다 공했어. 생명의 원소는 영원히 살지만 이 모습은 공해서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습을 살게 하려면 바로 자기 주인공의 심부름꾼이 되면서 진짜로 다 놔야 되지.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법당에 와도 둘 아니게 생각할 수 있겠니? 둥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가진다면 법당에 와서 절을 한번 해도 삼배가 돼. 둥그렇게 하고 절을 하게 되면 일배가 삼배가 되는 거야. 세 번만 해도 구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삼배를 올린다면 공체로써 전부 정성을 들이는 거나 한가지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 얘기해 드리고. 심심하시니까 생각을 딴 데다 두는 거니까 딴 데다 두지 않게 마음이 좀 편안하게 계시게끔 말씀 드려.

질문5: 여기 오셨어요.

스님: 여기 계시거든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거를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믿음이 희박해지는 게 아니고 되든 안되든 뿌리는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냥 다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아드님도 한쪽이 부족해서 그렇지 괜찮게 돼요. 그렇게 한다면 자라는 아이도 그렇고 아버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내가 말을 예전같이 재빠르게 못하더라도 의미깊게 생각하고 뜻으로 하신다면 열배 백배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진짜로 자기를 못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누구를 믿고 발을 떼 놔요? 자기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았습니까. 오늘 잘 듣고 가셔서 깨어있는 소리를 내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넓히고 둥글려서 잘 해 보세요. 그러면 하는 대로 차원이 높아지면서 집안이 편안해지면서 웃음이 생길 겁니다.

질문5: 저희가 공부를 해 나가는 중에 지금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마음에 부합이 돼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은 나의 생각으로만 하는 행동인지를 저희가 실제 모르고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견성을 하지는 못하였잖아요. 그런데 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주인공에 대한 간절하고 확고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함이 없는 행을 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스님: 그렇죠. 우리 생활이 그대로도예요. 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을 떠나서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니까 부처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도라는 이름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그냥 평전한 생활에 다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도를 깨우쳤다 깨우치지 못했다를 뛰어넘으세요. 그 생각을 버리고 뛰어넘으세요. 버리라니까 그냥 아예 개천에다 꿀아 박지 마시고 자기 원소 주인공에 그냥 놔 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도예요. 무슨 별다르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원망 안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여러 말 할 거 없이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존경하고, 알든지 모르든지 존경하시란 말입니다. 나쁘든지 좋든지 존경하라는 겁니다. 무슨 좋은 사람만 존경하고 나쁜 사람은 존경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이 있다 하면은 존경하라는 얘깁니다. 존경하게 되면 사람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화할테고 또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화할테니까요. 찰나찰나 바뀌지니까요.

그렇게 한번 응용해 보시면 사람이 모습은 그냥 놔두고도 마음이 한 찰나에 다른 호성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을 한번 지어서 잘해 보세요. 진짜로 믿고요. 그러면 자기 주인공이 때로는 보디가드가 되고 때로는 지장이 되고 때로는 칠성이 되고 때로는 허공신이 되고 때로는 용신이 되어서 필요한대로 화해서 돌아갑니다. 이 소리를 모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들 이 소리를 잘 들어서 행하신다면 우리가 도인 아닌 도인으로, 도인의 행으로서 살고 있다. 그런다면 요다음에도 그렇고 그냥 도인이 되는 거죠, 도인이죠 뭐.

스님들이 입산할 때에 머리를 깎는데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덧없이 그냥, 자라는 풀들 깍듯이 깎아버리고 원 하나만 남기려고 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고 나면 또 자랍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깎고 나면은 또 자란다. 또 자라면 마찬가지가 되는데 또 자라도 나지 않는, 나지 않고도 남이 있다면 함이 없이 하고, 또 깎지 않으면서도 깎고, 깎으면서도 깎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선사들이 산에서 수염 깎을래야 도구도 없고 머리 깎을래야 볕로 깎을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른 겁니다. 멋으로 기른 게 아니라.

생명있으면 모두 존중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를 다 이해 할 수 있고 남에게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되면 요만한 것 하나 이해 안가는 게 없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남을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 차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은 공신(共身)이다. 부처님이 만분이 계신다 해도 일불인 거죠. 그럼 열심히 하셔서 재미있는 얘기 요 다음에 들려주세요.

꽃 핀 거 보면은 좋죠? 보기 좋죠? 우담바라라고 하고 연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였느냐?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도 아름답기 때문에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꽃입니다. 마음의 꽃. 그래서 우리가 행을 잘 하면 꽃이 허공을 날라 다니면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꽃이 뭡니까. 보살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허공으로 다니면서 찰나찰나 행하신다. 함이 없이 하신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신도님들만 보면 정말 입이 이만큼 벌어지고 좋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모두 생각들 깊이 하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2000년 1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고침 제296호 19면 기사중 첫번째 질문의 답변중 13째줄 '자유스럽게 살아가려면' 다음에 '모든'이, 두번째 질문답변중 6째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다음에 '합니다'가 빠졌기에 바로잡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실명 구도소설
해인의 비밀
1 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512쪽 /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 3권 / 2권, 3권은 곧 출간됩니다.



海印 《화엄경》의 '능인해인삼매중能人海印三昧中'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우주의 참모습이 그대로 물 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그렸다는 〈해인도〉는 '십바라밀도'라고도 불리는데, 호풍환우呼風喚雨와 이산초해移山超海 —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담긴 신비의 그림이라 전해진다. 《격암유록》에는 '하늘 해인을 구하면 모두 극락에 들어간다求天海印 皆入極樂'는 구절이 있다.

큰스승 이 책속의 실존인물로, 소년 시절 해인의 수수께끼에 의문을 품어 평생의 탐구와 수련 끝에 마침내 해인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신비를 꿰뚫는 氣의 회로를 열어 놀라운 도력으로써 세상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큰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종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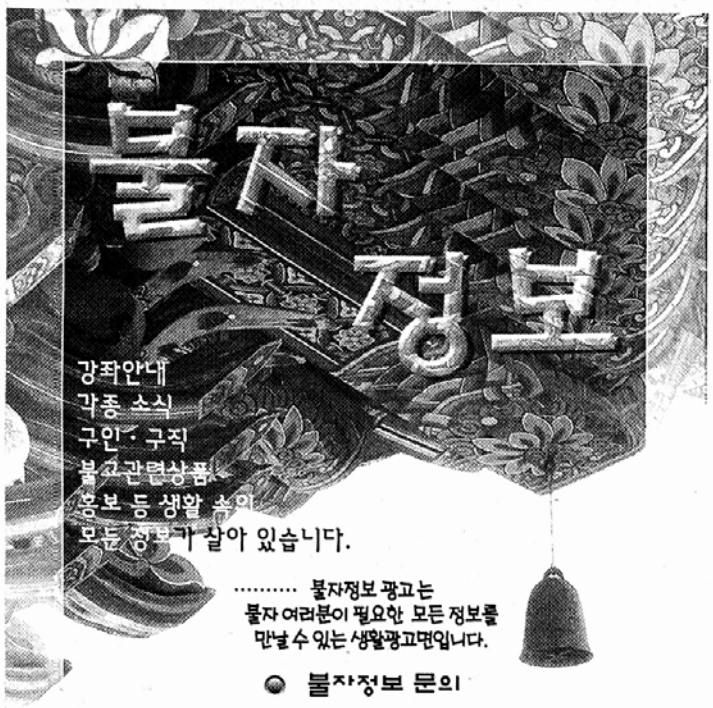
氣회로 해인의 깨달음, 강력한 힘으로 작게는 한 인간의 운명과 질병, 크게는 현실세계와 역사마저 좌우하는 氣의 '지도'. 氣회로의 놀라운 실체를 밝힌 이 책은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현상 등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해답을 공개한다.

호풍환우呼風喚雨 '비를 오게 했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주와 하나가 된 자신을 믿으세요.' 큰스승의 말에 오춘실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오므라지고 있었다. 주먹을 쥐자 비가 거짓말처럼 멈춰져 있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책의 마력 앞에서 당신은 삶이 통째로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큰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체험,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 책방 정신세계 광화문점(02)737-8115
안양점(0343)466-2208,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943-4824, 부산점(051)294-8545, 마산점(055)248-5599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과거(科擧)시험 합격 비법(秘法)

◎ 사법고시 · 행정고시 · 각종국가고시 · 자격시험
◎ 주소, 성명, 생, 월, 일, 시 전화를 접수하시면
신척법(神尺法)비전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卍 지장 禪院 053)982-6778
011)813-3679

수맥(水脈)강의 안내
- 과정 : 기초부터 강의 • 강사 : 유준혁(수맥전문가)
- 과목 : 수맥 양택 음택(수강료 6개월 5만원)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
- 본회연혁 : 1983년 국내 최초로 설립
2000년 9월 현재 3,500여명 수강
- 위치 : 지하철 7호선 상도역 1번 출구 30m
직전 기아 자동차 옆 순천학회 세종수맥학회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서 잠을 자거나 공부하면 건강이 정히 악화되며 정신력이 약해지고 무기력해 집니다.

문의 : 02)817-9996
www.suyo.co.kr



벼락맞은 양류목
(精灵 기거하는 나무)
○ 규격 : 130cm×60cm
○ 수령 : 약 300년 인동 수물 지구 ○ 양도기 : 180만원
◆ 벼락맞은 양류목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성취는 물론 무소불성(無所不成)이요
◆ 능히 미래 과거 길흉(吉凶) 화복(禍福)을 판한하여 선견지명을 통달 함이요
◆ 앉아서 천리보고 서서 만리를 볼 수있음 알지라.
그외 기문 장신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알지라.
Tel : 053)985-4675 018)512-5544

영가 천도
대한불교 조계종
성거사
041) 567-6820

♣보 리 수♣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벽 조 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108염주 스님 = 12만원 · 신도용 = 6만원
■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600년된 진품이 여기 뜻있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인을 만납니다
053)982-4976/011)813-3679

배우자 구함
신체건강하고 마음이 넉넉한 여성으로 35세-40세미만인 여성을 원하며 물질공양과 남은생애를 함께 할 동반자 원함
▷현 42세 건강한 남성으로 포교원 운영 중
016)710-853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40세 - 60세)
▷ 울산 ◁
052)288-452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법당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9611-8242

기도, 수양, 공부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67번지
청 강 사
055)932-5706

조용한 사찰에서 같이 기도하실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011)562-5556
052)254-2427



『선문염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방대한 양의 본 공안 한 칙 한 칙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과 송이 딸려 있다.
『바로보인 선문염송』을 역지한 대원 문재현 선사는 세계최초로 선문염송 전 공안에 대해
첫째, 글자 해석에 의한 번역이 아닌 일체종지를 통달한 지혜로 의로를 따라 번역하였다
둘째, 법문의 이디에 선사님들의 참 의중인 공안이 숨어있는가를 밝혀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셋째, 매 칙마다 도움말로 취모검을 휘둘러 보였다 http //www.zenparadise.com
선30권중 1권 ☎ 02-597-2460 도서출판 바른불교

안 내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신도 중 보살님)
· 법패를 가르키는 강사 입니다. 연락바랍니다.
031)865-4893
011)661-9119

배우자 구함
◎ 女 51세 (자녀 없음)
◎ 대구, 경북 거주자 원함
◎ 전직 공무원, 미모 겸비
– 불자의 만남
불연 결혼 연구원 –
053)982-6778
011)9353-6006

공양주 보살님을 구합니다.
031)592-7211

사주 초명학특강 30
· 실제 체험 경력으로 속성지도
· 기간 : 3개월 · 수강료 : 월 10만원
· 강사 : 자원 삼장법사
· 스님 불자 출가 상담 환영
· 강사 : 자원 삼장법사
· 위치 :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로타리 조흥은행 후문
051) 818-7863

영가천도 발원합니다.
지금 혹시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돌아가셔도 가정형편상 영가들을 위해 극락왕생을 발원하지 못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무 보시로 엄법하게 마지막 가는 영가들께 극락왕생을 발원해 드립니다.
011)764-3912
031)407-0298
마 연 사

탈종공고
본인은 본종에서
탈종함을 공고 함
대한불교 보문종 방정옥, 고숙자
전북 정읍시 쌍암동 463번지 성불암
063-536-4247

탈종공고
경남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3번지 무량사
귀 종단의 (일봉 선교종)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일봉 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2000. 12. 6. 수요일

구들 뜨끈 뜨끈 지글 지글
- 하루밤 자고나면 온돌이 확 풀립니다.
- 방하나를 구들로! 연료비 절감
- 수명 연장! 일석이조!
- 사찰 암자 주말주택, 농가 환영

"표준적 인화로 구들 시공으로 최고의 열효율 유지"
≪구들돌 납품 할 사람 연락요 ≫
한국표준구들 054)335-6708
011)533-7389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먹점
- 부지 : 587평 (답사후 결정)
- 특징 : 경관수려(섬진강이 한눈에 보임) 산속 맑은 계곡, 기도처로 최고임
- 가액 : 4천만원 (절충가능)

055)884-0162
018)533-7172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480평 • 건물 : 35평
- 가액 : 2억 3천
- 청평 800평 1억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립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지장,관음(동불조성),후불,신중, 칠성탱화,대북,범종,(불단조각,단집)경탁,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 구조 : 3층 건물 2층 40평 (법당, 방3, 주방)
- 시설 : 삼존불, 원불 108, 신중, 칠성 탱화
- 가액 : 보증금 5백,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2)489-5465 / 011)258-1147

사 찰 안 내
- 위 치 : 원주시 문막소재
- 부 지 : 5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50평
- 주차장 있음
- 신세총은 기도 정진 도량임
- 양도가 : 1억 8천 (분할가능)
- 위 치 : 전남 여수시내 소재
- 대 지 : 40평
- 법 당 : 25평 (2층)
- 요사채 : 30평 (1층)
- 양도가 : 1억 7천 (융자 가능)
- 15년 역사의 도심포교당 임
신도수 많음, 비구니스님 환영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임지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법당 : 19평
- 요사 : 70평
- 부지 : 39,000평
- 가액 : 4억

- 위치 : 경북 군위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설악산 유명 관광지
- 법당 : 10평 (목조)
- 요사 : 20평
- 부지 : 1500평
- 가액 : 1억 9천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약 600평, 대웅전 16평 삼성각 4평, 요사체 35평 현대식
- 특징 : 교통 편리하고 맑은 계곡 산세 수려함
- 가액 : 1억

043)832-4785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영천 신령에서 15분거리
○ 물좋은 계곡접 토굴, 기도터, 적지
○ 밭 724평 2500만원
○ 토목공사 50%진척



○ 경남 합천 대양면 소재지
○ 대지 69평 현대식 올수리
○ 금양도가 1600만원 (전세 가능)
○ 휴양, 기도, 공부 적합

주인 011) 506-1254
사찰, 칠건 지도 봅시.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광안리해수욕장 바닷가 부근
- 구조 : 법당, 공양간,주지실 (총 53평)
- 특징 : 최고의 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절충
011)868-599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요지)
- 평수 : 55평, 3층, 법당, 스님방, 공양실, 거실, 주방 [모든시설 완비]
- 가액 : 전세 4,500 만원
월세 : 2,000-40만원 1,000-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9790-1779
051)581-8652

사찰 안내
- 평수 : 3층 50평, 4층 5평
- 위치 : 안양 박달 1동 內 주택은행 4거리
- 법당 : 삼존불, 약사여래불
- 특징 : 시설일체 제공
- 가액 : 4천만원 (보증금 포함)

031)469-1562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주시내에서 20분 거리
- 대지 : 법당 10평, 산신각 6평, 주방(2), 방(4), 목욕탕시설 일체 완비
- 특징 : 교통이 편리하면서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좋아 기도정진 하시기 적합.
- 가액 : 5,200만원

052)292-3297

사찰(급)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 : 60평
- 건물 : 1층 36평 (요사) 2층 25평 (법당)

※ 주택가 뒤산밑 위치, 차량진입 가능
교통 편리, 50여년의 연혁으로 특히 법당 잘 모셔져 있음. 급한 개인사정에 속히 양도코저 함
011)234-5967

사찰 안내
- 위 치 : 충남 예산
- 부 지 : 700평 조립식 건물, 45평
- 가 액 : 4,700만원

041)333-116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보문산 옆
- 가액 : 6천 - 답사 후 절충 (보증금 3천 2백, 월 30포함)
- 시설완비
1층 - 공양간 20평 방 1칸
2층 - 법당, 산신각, 방 2칸, 37평

011)430-3344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서구청 4거리 (한빛은행 맞은 편)
- 평수 : 4층 건물 3층 46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천만원
- 특징 : 시설 A급 위치 최고

(법당 시설 일체, 방3개)천수천안 관자재보살 2자 반 칠성 부처님 3자반 후불탱화 53부처님 지장전 문수보살
053)565-0430/016-875-0934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명일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3층 30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1,500 월 50만원
- 시설비 : 절충

02)481-4483

사찰(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층 목채48평)기름보일러
- 구조 : 법당1, 방2, 부엌, 현관, 화장실, 사워장

[보증금(시설비포함) - 총 2천6백 월 45만원]
※ 3층목채 48평 - 기름보일러, 큰방2, 현관, 넓은마당, 3층 1년선세 150만원
「3층은 별도 희망에 한함」
053)255-6628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시 연무동 274-14
- 법당 (25평) 요사 총 45평
- 가액 :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포함)
011)9760-3520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시내중심지 법당, 삼성각, 강당, 대중방, 요사채, 종각, 차고, 누각(등), 주차시설(약 70대)
- 특징 : 시내 중심지며, 경관이 수려하고, 산속이며 및 대중 포교지로써 최고 임
- 사유 : 건강관계로 외국에 감
- 가액 : 전세 2억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832-0780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함양 용추 계곡 옛날집 1채, 화장실, 전기, 전화 약 5,100평 도로에서 7분거리
- 특징 : 물좋고 폭포 산세좋고 함양 남도규산, 거창 가마산 한천 지리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앞과 뒤가 한일자형 교통편리 함. 거창에서 안의 용추사까지 하루 13번 운행.

055)962-0082/963-3399

토굴(급)안내
주위 환경 경관 수려
모든 물품 양호
충남 홍성 수덕사 부근
041)634-4286
성불암 스님 합장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송상현 동상옆 진경경찰서 입구
- 건평 130평 법당 70평 방 5개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특징 : 시설 일체 완비 양도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 법회가능
055)326-0671
011)843-5672

폐사지 '돌부처' 도굴꾼 표적

서산·원주등 한달새 4구 사라져

비지정 성보문화재 보호대책 시급

문화재 도굴꾼들이 이제 폐사지나 마을 어귀의 '돌 부처님'에게까지 손길을 뻗쳐 비지정 성보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사찰의 불상과 탱화를 훔쳐오던 문화재 도굴꾼들이 사찰과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관리자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석불을 훔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1월27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 신장1리에 있는 돌부처 1구가 크레인 등을 동원한 절도범들에 의해 도둑 맞았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께부터 크레인을 실은 트럭 등 차량 2대와 3~4명의 남자가 돌부처를 캐서 트럭에 싣고 달아났다.

주민 조 모(59)씨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 돌부처를 낯선 사람들이 크레인으로 캐내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차에 싣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 돌부처는 높이 80cm, 넓이 50cm에 무게 1t 가량으로 비지정문화재이나 30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목검문소 등을 설치했으나 용의 차량을 발견치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서산 지역 지리를 잘 아는 문화재 전문 절도단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용운사지터에서도 석조불상 2점이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원주경찰서는 11월24일 김모 (26·원주시 단계동)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홍 모(28)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13일 새벽 2시께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용운사지터에서 미리 준비해 간 밧줄등을 이용해 석조불상 2점을 훔친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8월께 원주시 부론면 법천2리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서건물지내에서 강원도지방기념물 제48호인 석조불상 1점을 비롯 용두상 2점을 도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지난 8월 법천사지 석물이 도난 당했는데도 이를(지정문화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다가 법천사지를 찾은 주민이 석물 몇 점이 사라진 것 같다고 제기하자 뒤늦게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미륵사지 인근에 위치한 120cm 높이의 석조불두(佛頭) 역시 지난 9월14일경 흔적도 없이 사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불두는 인근에 위치한 석불들이 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 이전의 석불로 추정된다.

충주시 문화공보실 관계자는 "불상 도난후 2주일뒤인 9월28일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문화재청에 보고했다"고 밝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산속 깊숙이 위치한 수많은 비지정 석불을 사찰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그러나 지자체나 문화재관리청, 관할경찰서에 보다 성의있는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도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미륵대원사 인근의 불두. 비지정 성보 문화재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팔만대장경 남해서 제작"

정상운씨 주장 "판각·운송등 연관지명 많아"

경남 남해 일원의 지명을 통해 남해가 팔만대장경 판각지(분사도감)임을 주장하는 이색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2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해분사도감, 그 흔적을 찾아서'라는 세미나에서 남해 향토사학자인 정상운(41)씨는 '남해분사도감의 고려대장경 판각 장소'라는 논문을 통해 남해의 지명을 살펴본 결과 경판에 사용할 목재의 운송과정, 경판 목재의 종착지, 경판목의 가공, 대장경판 작업시 사용한 경판과 불경지를 생산한 곳, 대장경판 보관장소 등과 있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명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대사마을에는 지사골, 지소골, 지쇠골 등 종이 제조와 관련된 지명이 많으며 이곳에 종이의 원료가 되는 양질의 닥나무가 자생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그것을 입증해 준다고 밝혔다. 또한 경판에 사용할 목재의 운송과정에서 유래했다고 추정되는 달실, 소금등, 애서리 등과 대장경판에 사용될 목재의 최종목적지이며 가공과 건조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텀벙내, 터블내, 터머리, 가매소, 가마소 등을 들고 있다.

즉 목재 운송 과정에서 밀물, 썰물의 때를 맞추기 위해 사용되었던 신호체계에 소금(小苓·피리) 소금(小金·괭과리) 소금(素琴·거문고) 등의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소금이 유래했으며 터물내, 터머리, 던벙내 등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팔만대장경 제작의 장소였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공동체를 생각하는 남해사람들의 모임'(대표 효천스님)은 남해분사도감에 대한 주장들을 조만간 책으로 엮어내고 학계와 경상남도에 발굴작업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남해=천미희 기자

한라산 케이블카 반대

관음사등 18개단체 공청회·서명운동

제주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에 나섰다.

관음사와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를 비롯 제주환경운동연합, 경실련등 18개단체는 11월27일 '케이블카설치반대 범도민대책기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원로산악인 안홍찬씨를 선임했다.

준비위는 12월 1일 한라산국립공원의 올바른 보호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대토론회에 이어, 4일 더 책위 출범식을 가진 뒤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각계 1000인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준비위는 특히 제주도가 경제성과 한라산보호를 명분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려는 의도에 맞서 실질적인 대안을 발굴하는데도 주력키로 했다.

관음사 주지 중원스님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라산 개발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종교·환경단체와 연대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동명불원 신도회 주축

'대불 장학회' 설립



사찰 신도회가 주축이 된 장학회가 설립됐다.

11월2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명불원(주지 장산) 대불장학회 설립기념법회〈사진〉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부산불교신도회 강선태 회장을 비롯 1천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대불장학회는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불교정규대학이나 불교관계대학원 또는 유학승에게 장학금을 지급, 불교 인재양성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대불장학회 산하에 장산장학회를 설립, 불자들의 자녀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명불원 주지 장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불장학회가 장학불사는 새로운 불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씨앗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재일 4·3유족회 발족

재일본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공동대표 강실·김기옥)가 11월26일 일본 오사카 관음사에서 발족기념행사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보 제주도정무부지사와 김한욱 제주4·3사건처 리지원단장과 동포 유족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3영령위령굿'과 업무 설명회 등 다채롭게 개최됐다.

유족회는 앞으로 동포사회에 4·3 희생자 신고 활성화와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수덕사의 여승' 노래비

수덕사 입구에 세웠다

불자가수 송춘희씨가 불러 크게 유행했던 '수덕사의 여승' 노래비가 수덕사 입구 주차장에 세워졌다.

수덕사와 불자가수회 등으로 구성된 노래비건립위원회(위원장 법장 수덕사 수지)는 11월 26일 노래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노래비에는 전면에 '수덕사의 여승' 가사 1, 2절을, 뒷면에 영어와 일본어로 가사를 새겨넣었다.

행사에 참석했던 백승진 법사에 따르면, '수덕사의 여승'이 요즘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 노래를 상품으로 관광단을 모집하는 여행사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정성운 기자

시인 정지용 천도문화제

'향수'의 시인 정지용을 기리는 '천도문화제'가 11월30일 충북 진천 보탑사에서 열렸다.

삼선포교원 지광 스님의 천도재 집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시인의 시와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향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최근의 가슴아픈 소식을 듣고 시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되어 월북문인으로 치부됐던 시인을 북쪽의 아들인 구인 씨가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일원으로 아버지와 형님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청동대불 개금불사 법회

제5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지명)는 11월28일 용화보전앞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개금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방생된 꽃사슴은 경기도 이천 호법농원 대표 백인범씨가 기증한 5년생 어미 한쌍과 생후 5개월된 새끼 5마리 등이다. 이날 지명스님은 법문을 통해 "미륵부처 개금불사의 진정한 의미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 국난을 극복하고 희망에 찬 대서원의 가시화에 있다"고 설법했다. 청동미륵대불 개금불사는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11월7일에 착공, 오는 2001년 12월말께 완공될 예정이다.

아산지역 불자 대법회

제6 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진허)와 아산시사암협의회(회장 현문)는 12월5일 오후2시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포교원장 정련스님 초청 '아산지역 불자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는 경제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마곡사는 어린이 겨울불교학교(12월 26일~28일), 일반인 겨울 선 수련회(12월 30일~2001년 1월 1일), 청소년 겨울 수련회(2001년 1월 4일~7일)를 갖는다.

(041)548-9336

진각종

서울교구 송년음악회

총금강회 서울교구는 1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서원의 자리가 될 이날 음악회는 '즐거운 합창, 하나되는 신교도'라는 주제로 서울교구 신교도간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선각종

광주교도소 독경 대회



11월19일 광주교도소에서 불자 재소자들을 위한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종정 정업(사진), 총무원장 정암, 포교원장 벽해, 사회복지원장 지훈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는 독경분야 12팀, 찬불가분야 6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종정상에 김용, 총무원장상에 조광종, 포교원장상에 이동렬, 사회복지원장상에 강경운 외 3명, 인기상에 김창래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종정 정업스님은 법어를 통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 도량이니, 마음 잘 다스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태고종

도선국사 진영 봉안 법회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는 6일 오전 11시 11분 개산 1111주년 봉축 및 개산조 도선국사 진영 봉안법회와 다례식을 갖는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 찬불가, 연혁 및 행장소개, 진영이운 및 봉안, 축사, 권공, 다례, 법어, 발원문,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02)392-3007

무량본종

제1회 법계고시

고시위원회(위원장 고담)는 4일 총무원인 서울 무량정사에서 종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1회 법계고시를 실시했다. 이날 법계고시에는 30명의 스님들이 응시했다. 또한 이날 무량본종은 제3차 정기중앙종회를 개최, 새 해 예산 1억3천만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아바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etet.co.kr
E-mail:bokbat@kornet.net

김흥국장학재단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호랑나비 김흥국입니다.
새 천년과 함께 저 개인적 화두였던 인간방생과 평생 숙원사업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사업과 축구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 2월 26일 김흥국장학재단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와 뜻을 함께 해 주신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모아져 지난 11월 25일 '2000년도 제1회 김흥국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시·군·구청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을 추천 받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저희 김흥국장학재단으로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신 후원회원님들에게 일일이 찾아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지만 지면을 대신해 인사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학재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제1회 장학금전달식 장면



장학금 수여자들과 임원진 일동

김흥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일
①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청소년장학금 지급
② 어린이 꿈나무축구교실 지원
③ 해병대 전우회 자녀 돕기

후원계좌 안내
농 협 : 094-12-080613(김흥국장학재단)
국민은행 : 803-21-0319328(김흥국장학재단)
우 체 국 : 012-211-0062595(김흥국장학재단)

장학재단 사무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동성빌딩 2층)
전화 : (02)786-4011 팩스 : (02)786-4877, (02)3775-1119
(02)761-2002(papilio) www.2002asia.co.kr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김 흥 국 장 학 재 단 이사장 김 흥 국 후원 :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밑 자비행

김장나누기-생필품 지원등 교계복지관 프로그램 '따뜻'

불자련 20일경 동지포덕

보리약사회 12일 무료투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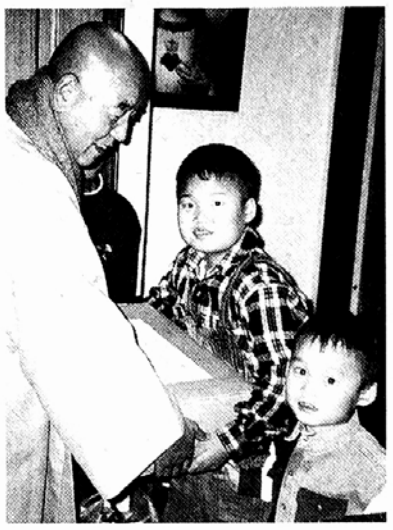
최근들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노숙자·등 불우한 이웃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교계 복지·신행단체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하고 풍성한 자비행을 펼친다.

우선 교계 복지관들의 활발한 활동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교계 복지관들은 이미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거나 계획중에 있으며, 특히 '생필품 지원'을 통해 불우이웃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덜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달말 1차로 불우이웃 70여 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한 데 이어 이달 중순까지 모두 200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한다. 또 이달 중순경 지역내 불우이웃을 복지관으로 초청, 쌀과 생필품을 전달한다(02-806-1376).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달 28~30일 3일간 '외투나누기' 행사를 벌여 지역 독거노인에게 100벌의 외투를 전달하는 한편 이달 25일을 전후해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케이크 나누기' 행사를 벌인다(031-716-4215).

부산 개금사회복지관은 이달 23일과 28일 정신지체 장애인과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일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이달중 저소득 가정 8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방감기약 등 비상약품을 전달한다. 이와함께 일일찻집도 열어 수익금을 저소득 가정 생계비로 지원한다(051-893-5034).

강북장애인복지관은 5일 오후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내 중증장애인을 초청, '겨울나기 큰잔치'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쌀과 겨울의류, 보장구를 제공하며(02-989-4214), 은평노인복지관도 이달 중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벌여 지역내 불우노인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다(02-385-1351).



◇청담사회복지관 관장 혜성스님은 11월 29일 관내 소년소녀가장을 방문,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이달 27일부터 지역내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방침술 서비스를 펼치며(02-421-6077),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신도들의 뜨개질 물품을 모아 이달말 불우이웃들에게 보시할 예정이다(02-571-2988). 또 성북노인복지관(02-929-7950)과 부천 덕유사회복지관(032-325-2161)도 이달 중순 지역내 불우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한다.

이밖에 구로사회복지관은 지난달 말 40세대에게 전기담요와 히터 등 겨울철 난방기기를 전달했으며, 자양사회복지관은 1일 일일찻집과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복지관 못지 않게 신행단체들도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불자보리약사회는 12일 탑골공원에서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펼치며(02-959-3298), 반야연예인포교단은 21일 부산 동래 허심청 대청홀에서 불자 소아암 환자돕기 디너쇼를 개최한다(02-762-4964). 또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이달중 소년소녀가장과 결손가정 어린이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016-272-2386).

앞서 한빛은행 부산불자회는 3일 송도 천마재활원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도 지난달 29일 치매노인 요양시설인 고양시 샘터마을을 방문해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벌였다.

불교단체로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이달 20일경 '동지포덕' 행사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며(02-723-6258), 광림사 연화복지학원도 17일 송년법회를 열고 장애인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나누어줄 계획이다(02-2202-5831).

한편 진각종 복지재단은 지난달 30일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자비의 날'로 정해 알뜰장터에서 모은 수익금과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진각종 대구교구도 같은 날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또 지난달 말부터 관내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지원하기 시작한 봉은사는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02-516-565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강영삼 대리는 "더 많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에 대한 불자들의 적극적인 후원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JTS의 북한돕기

농업기술 지원 '풍작'

한국JTS(이사장 법륜)가 지난 3년간 북한의 농업부문에 대한 물적, 기술적 지원을 한 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제적 효과와 북한 사회내의 파급성은 지원규모에 비해 훨씬 뚜렷한 것으로 드러나 북한의 장기적인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11월29일 JTS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대한 농업지원은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보기 드문 풍작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농업기술면에서는 온성군의 벼 초회식 재배법과 라진·선봉지역의 옥수수 비닐박막 피복재배법을 완전히 승인, 접수하는 등 지원 요청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장원들의 노동 적극성도 높아지면서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JTS의 올해 농업지원 면적은 라진·선봉과 온성 지역의 24개 농장에 있는 수전(논) 1,300정보와 한전(밭) 550정보 함계 1,850정보다. 여기에 지원된 물자는 비료 800톤과 종자, 비닐박막, 농약 등이며, 농업기술면에서 벼 초회식 재배와 옥수수 피복재배 등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였다.

올해 수확고는 벼가 정보당 2톤, 옥수수는 정보 당 3.5톤의 증산효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JTS가 지원한 1,850정보에서 벼 2,600톤과 옥수수 1,925톤을 증산한 셈이다.

법륜스님은 "온성군 세선농장 논 재배정황은 함경북도의 각 군 농장에서 참관, 학습하였으며 전 함경북도에 보급될 예정"이라면서, "농업기술면에서의 지원은 장기적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경 기자

"내복입고 겨울나자"

4대종교 환경단체 공동 절약캠페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의 환경단체가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내복입기 공동캠페인을 벌인다.

불교환경교육원, 가톨릭환경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는 1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에너지 절약 선언식'을 갖고,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입기, 고효율 조명기기·전기제품 사용, 주거·업무공간 최소화 등을 다함께 실천하자"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전국 1만 5천여곳의 사찰, 교회당, 교당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한편, (주)쌍방울과 에너지관리공단의 후원을 받아 내복할인권(30%)이 담긴 홍보지 30만장과 포스터 2만5천장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02)587-8997

김재경 기자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재가연대 등 시민단체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8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부패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재가연대 김영철 사무처장은 "현 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배제시키고 구체적인 공직자 윤리규정도 없이 실효성없는 반부패기본법안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연내에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은 인권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종교인들은 11월30일 '국가보안법 폐지 종교인 대회'를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다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종교인들 나섰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종교인들이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구현실천협의회, KNCC인권위원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은 공동으로 11월30일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종교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소속 200여 단체 회원들과 함께 참여한 종교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시작된 국가보안법은 52년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했으며, 민족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면서 "정부 여당은 국가보안법 부분개정을 통해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종교계 납골시설 30평 제한

15일 전국 불교사회복지 대회

조계종 "제한 규정 철회"

종교계의 납골시설 면적이 30평(100㎡)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종교단체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17일 종교계 납골시설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납골묘에 대해 종교단체가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로 시설규모를 제한하고, 개인납골묘는 10㎡(3평), 가족납골묘는 20㎡(6평), 문중납골묘는 100㎡(30평)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단법인의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및 녹지지역내에서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계종 복지재단은 11월30일 보건복지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고 30평으로 면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복지재단 이호걸 과장은 "규모를 30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설의 대형화·고급화 추세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판단이며, 소규모가 될 경우 장기투자가 어려워 결국은 사찰들이 납골시설 건립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종교단체 납골시설은 종교단체 특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명우 기자

통합 네트워크 등 논의

조계종 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이 12월15일 오후 2시 세검정 하림각에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는 1부 세미나에 이어 2부 법회로 진행되며, '새천년, 불교사회복지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종단의 기능과 역할'(권경임·복지재단 자문위원)과 '지역사회 내에서 사찰의 사회복지활용 및 실천방안'(김수영교수·국립보건원)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토론자로는 현각스님(종회의원·쇼쩍새마을 원장)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박경일 교수(동국대) 조성희 교수(순천향대)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을 수용하고 불교사회복지를 한 축으로 묶기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계의 한 복지관계자는 "불교복지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되지 않으면 불교복지는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종무행정학과 '신설'

한성대 행정대학원

한성대 행정대학원(원장 황진수)에 국내최초로 종무행정학과가 신설된다.

2001년 첫 신입생 40명을 선발하는 한성대 종무행정학과는 불교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의 전수, 각종 행정기술의 습득, 현대사회의 시사문제등의 과목이 개설된다. 종무행정과에서는 불교종무행정 석사과정 및 최고관리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황진수 행정대학원장(교수불자연합회 부회장)은 "종무행정과는 학교의 중점교육사업으로 채택돼 교육부로 부터 인가 받았다"며 "불교종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수준높은 연구와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7년 한성대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종무행정과에는 스님과 불자들이 학기당 40명씩 총 160여명이 이수했다. 개설과목은 조직관리, 문화재보존, 상담, 복지, 정보처리 등이며 이번 행정대학원의 종무행정과 신설도 이수자들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02) 760-4271.

김원우 기자

산청지역 훼불범 2명

손괴죄 적용 집유선고

지난 7월29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일대 지역에 위치한 사찰 3곳에서 발생한 훼불사건에 대해 기소된 2명의 피의자에 대한 결심공판이 11월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1호법정(재판관 김주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은 양모, 정모 피의자에게 '단순기물 손괴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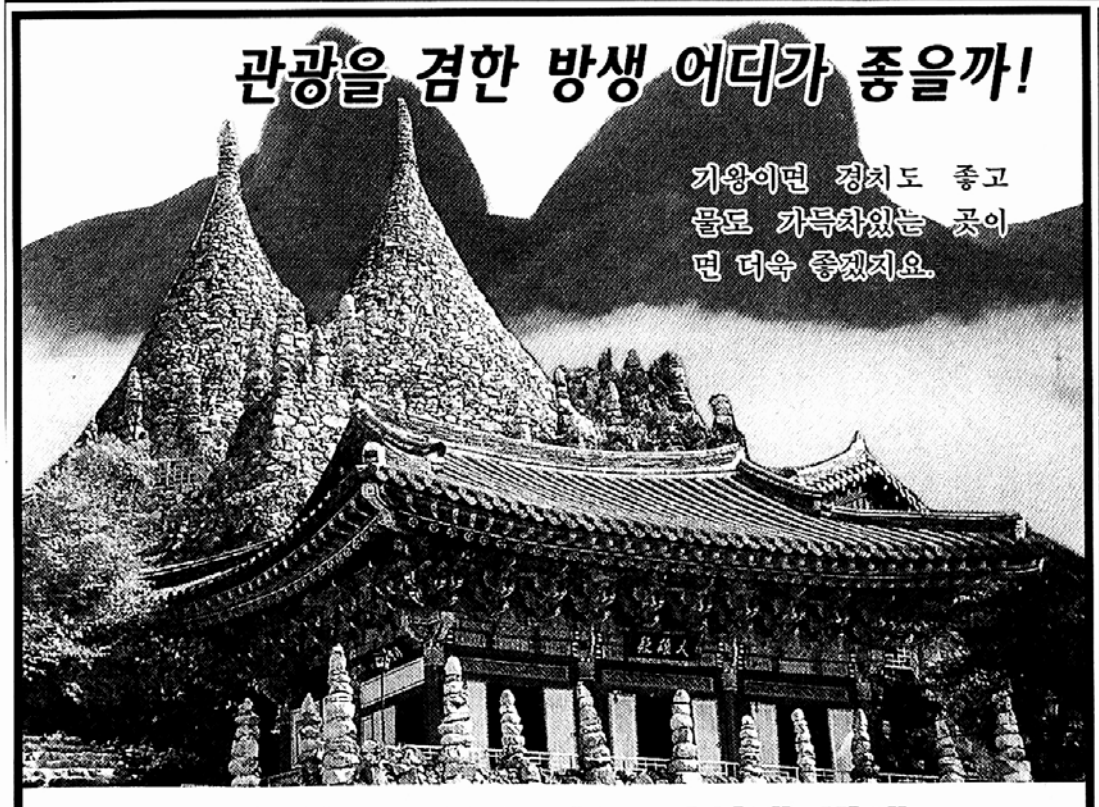
아바타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 사
전화(063)433-2900, 0303
432-0652, 0072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백련결사' 선풍 떨친 고찰



◇원묘국사 요세가 머물며 새로운 신앙결사를 조직해서 천태교학을 강론하고 참선수행을 병행했던 강진 백련사.

가람의 장면들 38

백련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교관겸수 도량…국사·대사 16명 배출

조선조 들어 쇠퇴…정약용 자주 들러

고려 불교의 드라마틱한 역사적 전개과정은 곧바로 고려의 정치사나 문화사의 중요한 줄기가 된다. 태조 왕건이 전국의 호족들을 아울러 호족 연합국가로 출발한 고려 초기에 불교계는 백가쟁명의 교종과 선종, 길고계까지 다양한 종파와 학파들이 공존하게 된다. 그러나 가지가 많으면 바람도 심한 법. 종파 간의 경쟁은 도를 지나쳐서 대립과 분열의 양상으로 치달았다. 특히 교종계열과 선종계열의 대립은 세속적인 싸움을 방불케하는 고려 사회의 큰 문제였다. 이에 대각국사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하여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주도했다. 그러나 왕자의 신분이었던 의천으로 대표되듯, 천태종은 개경을 중심으로 여전히 귀족층에 기반을 두어서 정치적 성향을 버리기 어려웠다.

이 시기에 즈음해서, 문벌귀족 중심의 고려 사회에서 설움을 받았던 무신 세력은 이른바 무신의 난을 일으켜 문벌 귀족들을 숙청하면서 고려 사회의 실세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귀족 불교, 특히 교종 계열과 천태종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이 공백을 메울 새로운 종파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바로 보조국사 지눌이었고, 그가 주도한 정혜결사는 세속 정치와는 결별하여 산 속의 수도원에서 본연의 수행과 참선에 정진할 것을 천명했다. 지눌은 선의 입장에서 교를 받아들이려 했고, 실제로 많은 교종의 승려들이 지눌의 조계종으로 귀의하게 된다. 옛 귀족들과 인연이 깊은 교종이나 천태종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무신정권은 새로 성장하는 조계종을 지원하게 된다.

후에 원묘국사가 된 요세는 지눌과 동문수학하던 사이로서, 한때 지눌의 수선사에도 참여했지만, 오히려 기존 천태종의 교관겸수 사상이 올바른 길이라 확신하게 된다. 그의 명성과 수행법을 흠모하던 전라도 강진 일대의 지방 토호층은 요세를 모셔와 그가 머물 사찰을 중창하니 바로 만덕산 백련사였다. 그는 백련사를 거점으로 새로운 신앙결사를 조직해서, 천태교학을 강론하고 참선수행을 병행하게 된다. 그는 정치와 철저히 결별할 것을 강조하여, "개성에는 50년 동안 들어가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백련결사는 지방에 뿌리를 내린 민중적 불교로 성장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미 군부 권력과 밀착되기 시작한 지눌의 수선사에 비해서, 이러한 출세간적 태도는 지방민은 물론 전국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아 교계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고려 중기에 벌어졌던 크고 작은 결사운동은 지나치게 세속화되었던 불교의 타락상을 반성하고, 수행과 정진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는 혁신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운동이 발전하려면, 대규모 승단의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토대가 필요하게 된다. 백련결사가 강진 만덕산에 기틀을 마련한 것은 두 가지 조건 때문이라 보인다.

첫째, 전라도의 이 지역들은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이며, 고려조에서는 차별을 받아온 소외된 지역이라는 사회적 측면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과 평야를 끼고 있어서 물산이 풍부하여 부유한 지방 토호층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

백련사는 그다지 높지 않은 만덕산 중턱에 자리잡았다. 앞을 내려다보면, 섬들이 점점이 떠있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현재는 7~8동의 당우만 있는 작은 규모의 가람이지만, 전성기 때는 동원과 서원의 두 가람으로 구성되어, 동원에 20동, 서원에 10동의 건물들이 있었던 큰 사찰이었다. 현재 대웅전 서쪽, 응진전 앞 마당에는 고려 중기의 문신 최자가 기록한 사적기가 놓여져 있는데, 바로 이 부근이 서원 자리였을 것이다. 일세를 풍미한 백련결사에는 수백명의 스님들이 거처했고, 경내 곳곳에 건물터로 짐작되는 넓은 땅과 기단석 등이 남아 있어서 당시의 번성을 말해주고 있다.

결사의 시작은 매우 순수했지만, 군사정권은 순수한 종교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집권 독재자였던 최우는 수선사를 지원하는 한편, 그에 대응할 백련결사도 집중 후원하였다. 백련사는 요세 이후로 8명의 국사를 배출하여 대단한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권세는 곧 종교적 몰락을 의미한다. 조선조 들어서 백련사는 한낱 지방 사찰로 명맥을 유지했을 뿐이다.

그러나 백련사의 선풍만은 면면히 이어져 조선후기에 8명의 대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19세기 초, 강진 땅으로 유배온 다산 정약용은 백련사 서쪽 2km 되는 지점에 다산초당을 짓고 은거하면서, 백련사의 고승들과 교우했다. 절에는 다산이 직접 쓴 '만덕사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 역시, 순수했던 신앙결사가 정권에 이용되면서 쇠퇴하게 되는, 정치와 종교의 비운의 관계를 안타까와 했을 것이다.



◇불족도에 나타난 卍문양.



◇겨돈사 원공국사승묘탑비 귀부의 卍문양.



◇14세기 중반에 제작된 고려불화에 나타난 卍문양.(일본 근진(根津)미술관 소장)



◇불국사 대웅전 합각벽에는 삼보문양과 함께 卍문양이 그려져 있다.



◇卍문양은 단청의 문양에도 자주 등장한다. 석남사 영산전 단청.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문양

卍

끝없이 도는 불심인

'길상'·'완전' 상징…불화·귀부·가람에 등장

卍은 불교의 상징이다. 사찰 건물에 불교의 상징으로 가장 흔하게 그려져 있으며 그밖의 건물 서까래와 기와, 탑비의 귀부, 불화 등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卍은 범어로 스바스티카(svastika)라 하며, 원래는 글자가 아니라 상징형이다. 이 상징형은 중국에서 卍이라는 글자로 개칭되기 이전부터 고대 인도를 비롯해 페르시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의 장식미술에서 사용되었다. 브라만교와 자이나교 등에서도 이 문양을 사용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의 가슴과 발 등에 나타나는 이 문양을 상서로운 상, 곧 길상의 상징으로 삼았으며 동시에 부처의 경지를 나타내는 불심인(佛心印)으로도 사용했다.

卍이 오른쪽으로 도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우주와 태양계의 회전 운동에 동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우주자연의 정상적인 운동원리로 여겼으며, 그 반대방향인 왼쪽으로 도는 것을 우주 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 이를 배척했다.

▲부처님 발바닥에 나타난 만 문양

卍문양은 불교미술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는데, 인도 쿠산왕조 때의 아마라바티 조각과 마투라 조각의 불공양 제물 등에 나타난다. 또 굽타왕조 때 만들어진 아잔타석굴의 불족도(佛足圖)와 벽체와 기둥에 새겨진 조각, 불화의 배경 장식문양에도 卍문양이 나타난다. 불교미술에 나타난 卍 문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대 중인도 마가다국에 있는 족적이 남아있다. 석가모니 부처가 입적하기 직전에 남겼다고 전하는데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탑 부근의 정사(精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돌에 부처님의 족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삼장 법사 현장이 친히 이 족적에 예배하고 스스로 본을 떠서 중국에 가져왔으며, 지금은 산시성 방주에 있는 옥화산의 돌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 부처님의 족적에 표현된 다섯 발가락과 발바닥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卍문양이 새겨져 있다.

▲고려시대 불화에 나타난 만 문양

고려시대 불화에서 卍문양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 불화에 보이는 卍문양 역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양이 주류를 이룬다. 용인 호암미술관 소장의 아미타삼존도에는 부처의 가슴부분에 卍문양이 나타나고, 삼성출판박물관 소장의 〈감지은니묘법연화경〉권2의 표지에도 卍문양이 보이는데, 모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양이다.

고려시대 불화 가운데 일본 교토 치온인(知恩院) 소장의 미륵하생경변상도와 도카이인(東海庵)에 있는 아미타여래도 등에서도 卍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미술에 나타난 만 문양

예천 용문사 대장전에 걸려 있는 목각탱화 역자의 상단부분에 오른쪽으로 도는 卍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영주 부석사 소장의 괘불에는 왼쪽으로 도는 卍문양이 석가모니 부처의 가슴에 새겨있다. 또 구례 천은사 경내에 있는 조선시대 돌절구에 새겨진 문양도 같은 형태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왼쪽으로 도는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형태가 혼재되어 왔다. 고성 건봉사의 경우 두 개의 돌기둥에 회전방향이 각기 다른 卍문양이 음각되어 있다.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근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011 SK Telecom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016 한통프리텔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019 LG Telecom
5. 인터넷채널 ⇨ 7. 종교 ⇨ 불교정보
017 신세기통신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018 한통엠닷컴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산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여 메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등 D/B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있다.